창 원 지 방 검 찰 청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주임검사

2024. 11. 4.

수 신: 검사 홍

제 목: 수사보고【피의자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쳐 사진 검토 - 강혜경 보관 PC】

2024. 9. 30.자 강혜경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시 강혜경 보관 PC에서 확보한 PC 카카오톡 DB 파일 등을 분석한 결과, '메시지' 폴더 내 총 6,892개의 이미지 파일 중 **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를 캡쳐한 사진 총 280개가 확인**되었는바,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고합니다.

□ **확인 사항**

○ 파일 경로 : '강혜경 PC 본체_PC카톡(명태균 계정)_최종선별 multimedia' 폴더

○ 대상 파일 개수 : 280개

※ 위 폴더 내 '메시지' 폴더와 '사진' 폴더에 중복으로 캡쳐 사진 저장, 중복된 내역을 제외하고 총 280개 확인

○ 대상 기간 : 2021. 6. 26. ~ 2023. 4.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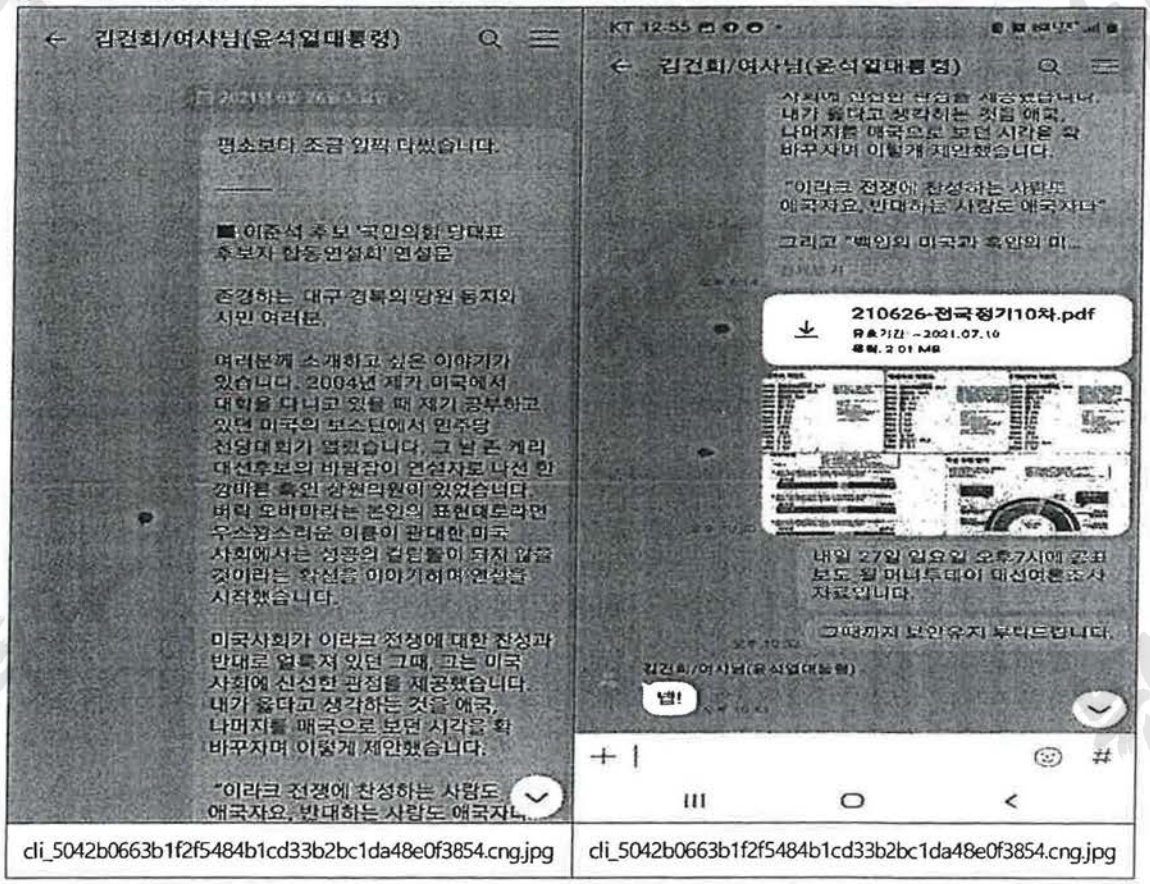
○ 대화 상대 : 명태균 ↔ 윤석열 당선인·대통령(이하 '윤석열 대통령'으로 표기), 김건희 여사

□ 2021. 6. 26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'**자신이 이준석 후보의 당대표 후보자 합동연설회 연설문을 작성**하였다'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해당 내용을 전송하고,

- **익일 공표 예정인 머니투데이 대선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전송**하면서 "그때까지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."라고 말함

○ 캡쳐 사진



cli_5042b0663b1f2f5484b1cd33b2bc1da48e0f3854.cng.jpg cli_5042b0663b1f2f5484b1cd33b2bc1da48e0f3854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합동연설회는 2021. 6. 3. 진행된 대구·경북 합동 연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, 해당 합동연설회에서 이준석이 카카오톡 내용과 같은 연설을 한 것으로 확인

※ 유튜브 「[다시보기]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, 대구·경북 합동 연설 / SBS」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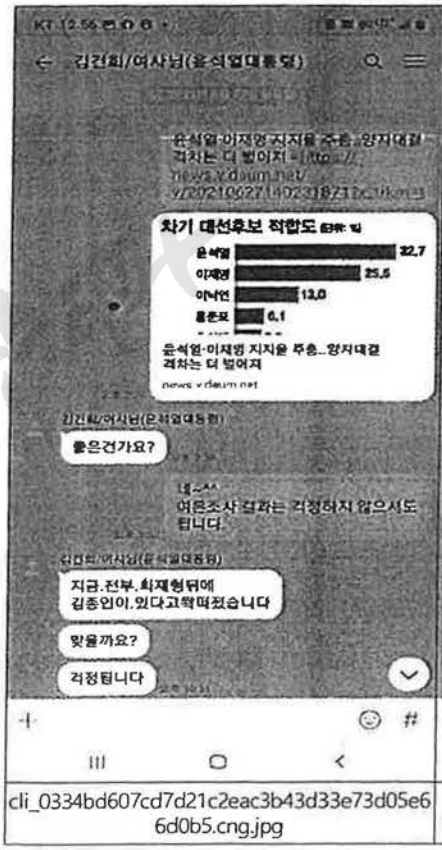
- 위 여론조사 결과는 **머니투데이 및 미래한국연구소가 PNR과 실시한 여론조사**로 보이고, 관련기사는 아래와 같음

[2021. 6. 27.자 머니투데이 「윤석열·이재명 지지율 주춤…양자대결 격차는 더 벌어져」 기사 요약]
- PNR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32.7%를 기록하여 1위를 차지하고,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.5%로 2위를 기록
-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%, 부정 평가는 53%로 나타남
- 이 조사는 2021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1%포인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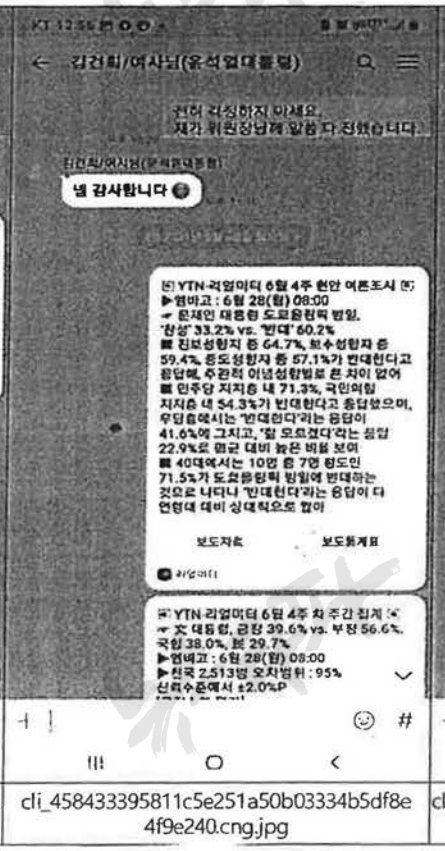
□ **2021. 6. 27. ~ 6. 28.자 대화 내용**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**명태균이 대선후보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등 언론보도 자료를 전송하자 김건희 여사가 감사**를 표하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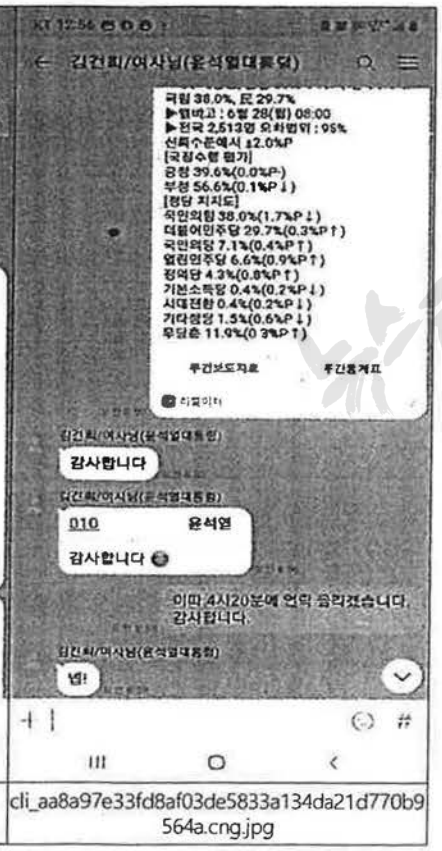
- **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연락처를 명태균에게 전송하자 명태균이 추후 연락**하겠다고 말함



cli_0334bd607cd7d21c2eac3b43d33e73d05e66d0b5.cng.jpg



cli_458433395811c5e251a50b03334b5df8e4f9e240.cng.jp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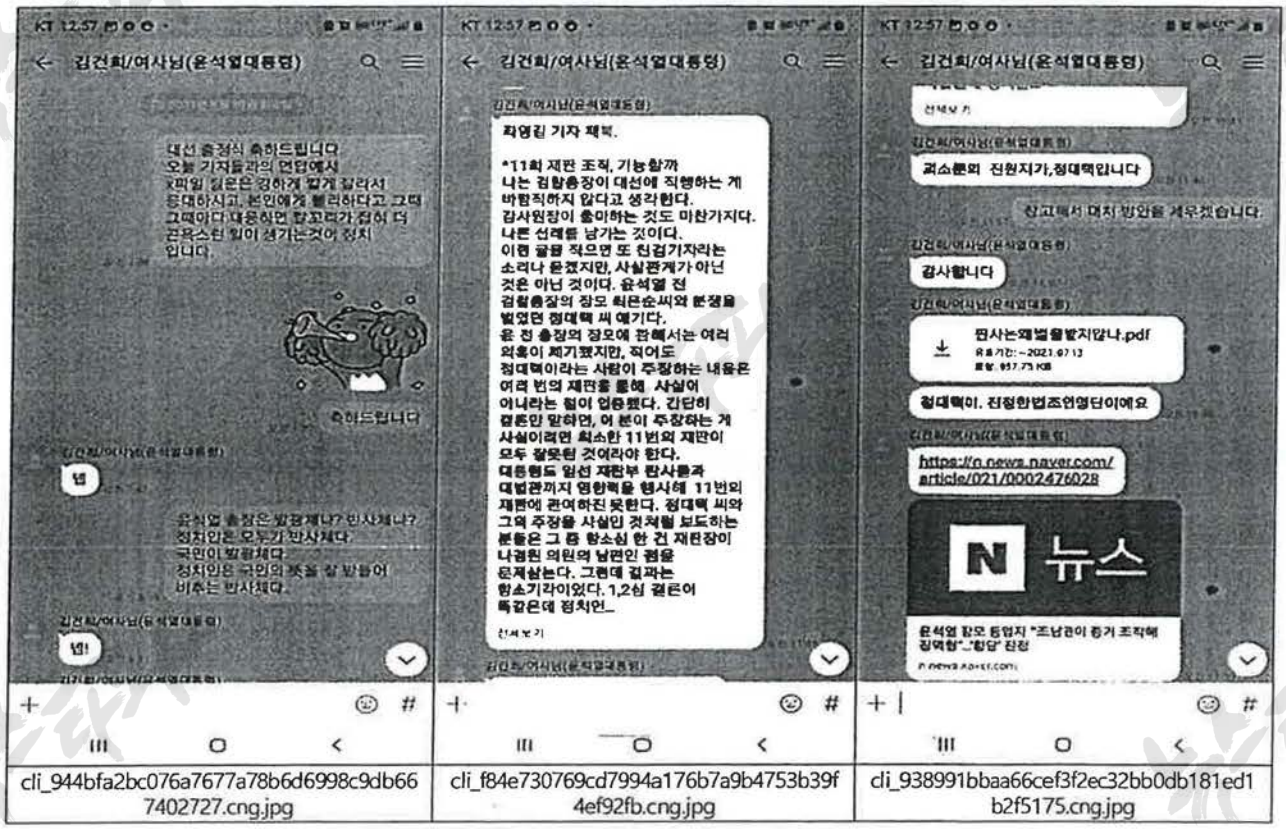


cli_aa8a97e33fd8af03de5833a134da21d770b9564a.cng.jpg

□ 2021. 6. 29.자 대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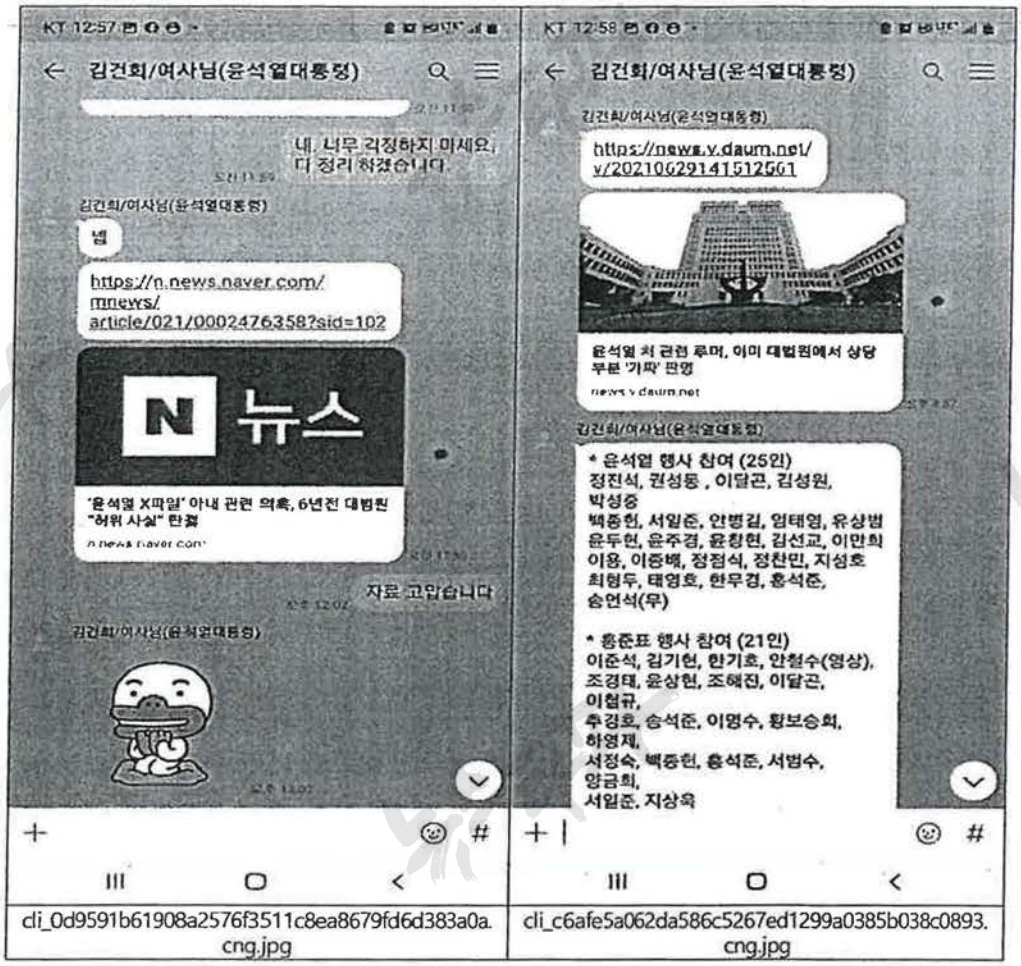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**대선 출정식 관련 축하 메시지를 전송하며 기자들과 면담 시 대응 방법**을 알려주고, **김건희 여사 측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**과 관련하여 '다 정리하겠다'라고 말함

○ 캡쳐 사진



cli_944bfa2bc076a7677a78b6d6998c9db667402727.cng.jpg	cli_f84e730769cd7994a176b7a9b4753b39f4ef92fb.cng.jpg	cli_938991bbaa66cef3f2ec32bb0db181ed1b2f5175.cng.jpg

(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)



cli_0d9591b61908a2576f3511c8ea8679fd6d383a0a.cng.jpg

cli_c6afe5a062da586c5267ed1299a0385b038c0893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6. 25.자 문화일보 「윤석열 장모 동업자 "조남관이 증거 조작해 징역형"…'황당' 진정」 기사 요약]

-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과거 동업자 정모 씨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상대로 청와대와 법무부에 신정서 제출
- 정 씨는 2004년 재판에서 조 원장이 공판 검사로서 증기를 조작해 자신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
- 정 씨는 2003년 최 씨와의 투자 관련 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2004년 징역 1년,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, 2006년 대법원에서 협박 혐의 등이 추가되어 징역 2년형 확정

[2021. 6. 29.자 문화일보 「'윤석열 X파일' 아내 관련 의혹, 6년전 대법원 "허위 사실" 판결」 기사 요약]

- 대법원은 2015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정모 씨에게 벌금 1,000만 원을 선고
- 정 씨는 2010~2011년 동안 인터넷과 잡지 등에 윤 전 총장의 처가 관련 허위 사실을 포함한 비방 글을 16차례 게시
- 법원은 정 씨가 최 씨와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

[2021. 6. 29.자 머니투데이 「윤석열 처 관련 루머, 이미 대법원에서 상당 부분 '가짜' 판명」 기사 요약]

- 대법원은 2015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모 씨에게 벌금 1,000만 원을 확정
- 정 씨는 김 씨와 동업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자 김 씨에 대한 거짓 고소장을 접수하고, 인터넷에 악성 루머글을 게시
- 정 씨는 김 씨가 내연남과 짜고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으나, 법원은 이를 모두 거짓으로 판명하고 유죄로 판단

□ **2021. 6. 30.자 대화 내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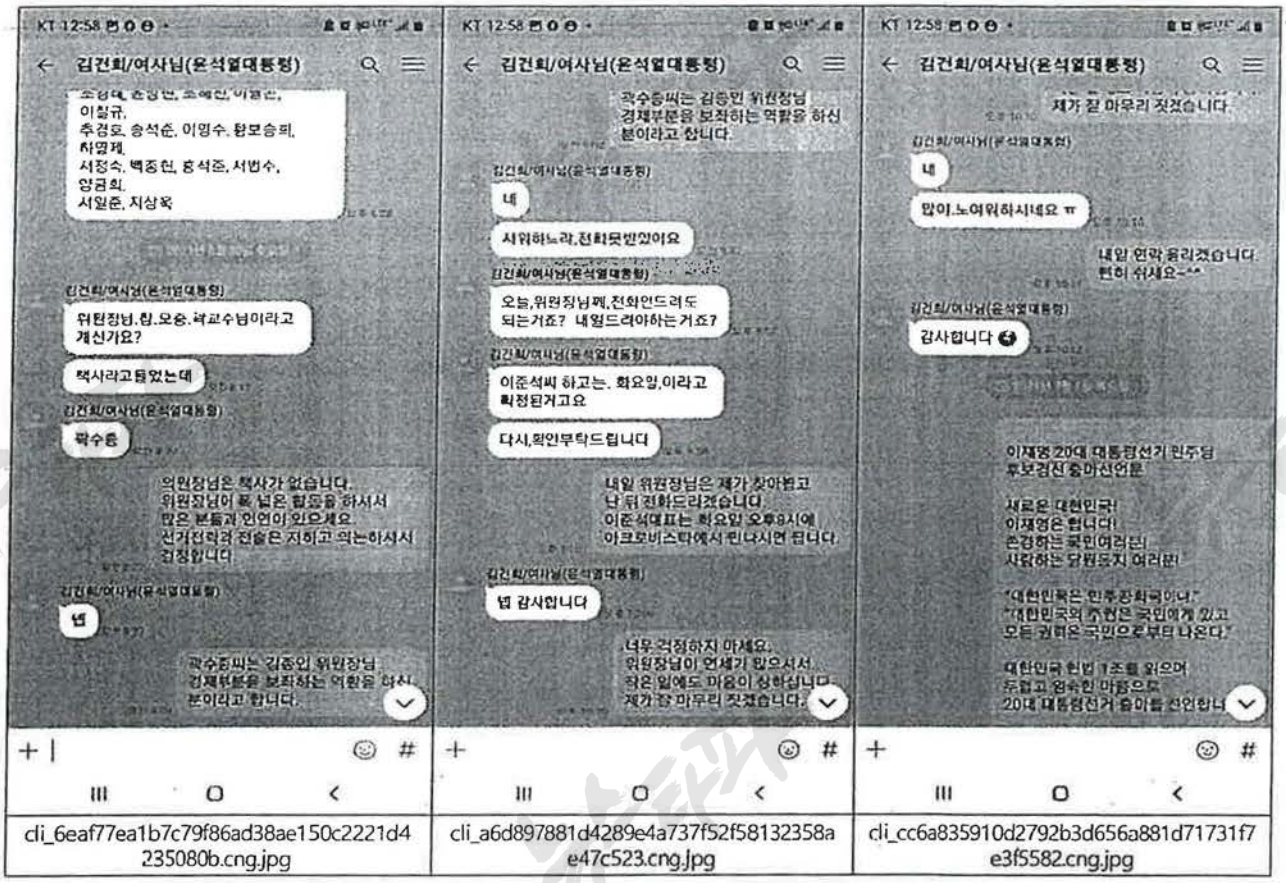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김종인(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)의 경제 분야 보좌진인 곽수종 교수에 대하여 묻자,

- **명태균이 "(김종인 위원장은) 선거 전략과 전술은 저하고 의논하셔서 결정합니다."라고 답**하는 한편,
- 김건희 여사가 **김종인 위원장과의 불화**에 대하여 걱정하자 명태균이 이를 안심시킴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**이준석과의 만남 일정**에 대하여 확인하자, 명태균이 **'화요일 오후 8시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나면 된다'**라는 취지로 답변

※ 2021. 6. 30. 직후 화요일은 2021. 7. 6.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, **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2021. 7. 6. 이준석과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짐**

(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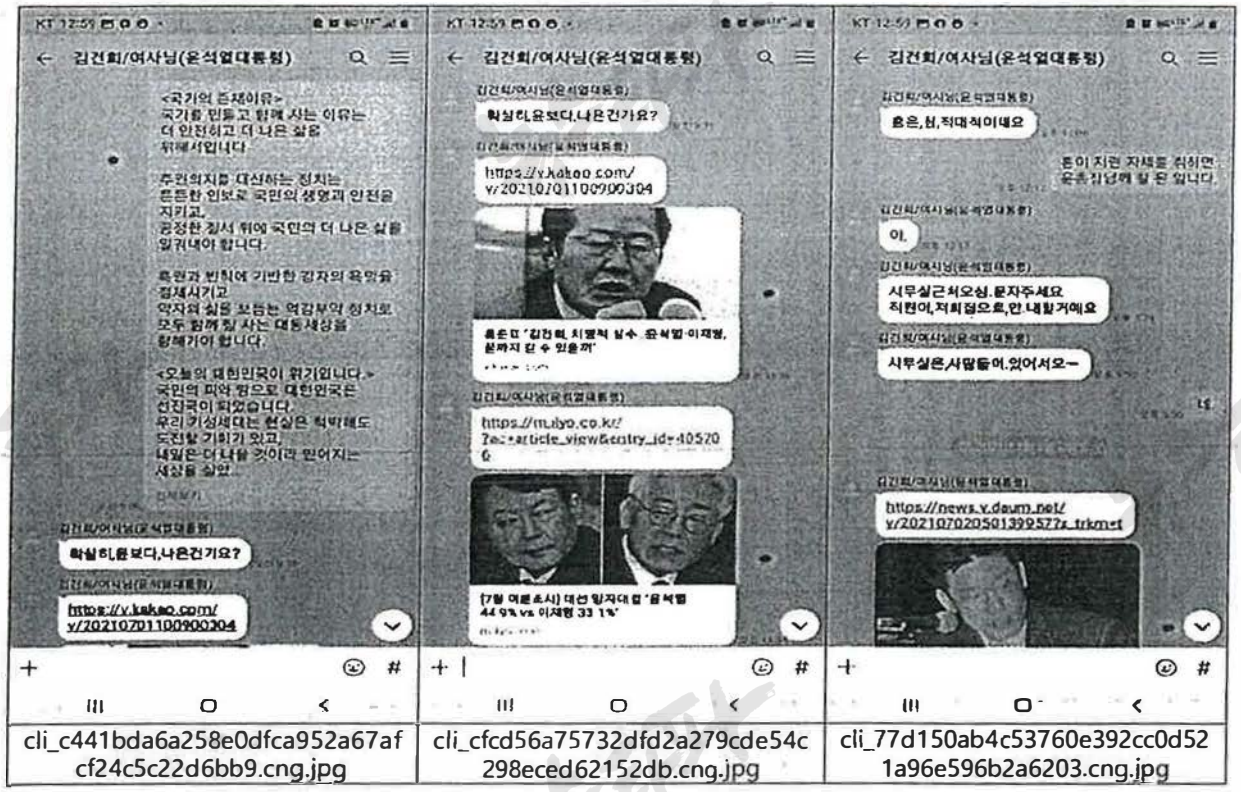
cli_6eaf77ea1b7c79f86ad38ae150c2221d4235080b.cng.jpg	cli_a6d897881d4289e4a737f52f58132358ae47c523.cng.jpg	cli_cc6a835910d2792b3d656a881d71731f7e3f5582.cng.jpg

□ 2021. 7. 1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**이재명 후보의 경선 출마선언문 내용**을 전송하고,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**홍준표 후보에 대한 언론보도** 자료를 전송하며 대화를 나눔

○ 캡쳐 사진

(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)



cli_c441bda6a258e0dfca952a67afcf24c5c22d6bb9.cng.jpg	cli_cfcd56a75732dfd2a279cde54c298eced62152db.cng.jpg	cli_77d150ab4c53760e392cc0d521a96e596b2a6203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7. 1.자 일요신문 「[7월 여론조사] 대선 양자대결 '윤석열 44.9% vs 이재명 33.1%'」 기사 요약]

- 조원씨앤아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,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4.9%의 지지율로 이재명 경기도지사(33.1%)를 앞섬
-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윤 전 총장이 47.6%, 이 지사가 31.2%를 기록; 경기·인천에서는 이 지사가 43.3%, 윤 전 총장이 40.0%로 나타남

□ 2021. 7. 2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언론보도 자료를 전송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해 언급하고, **김종인 위원장과의 식사 일정에 대하여 문의**하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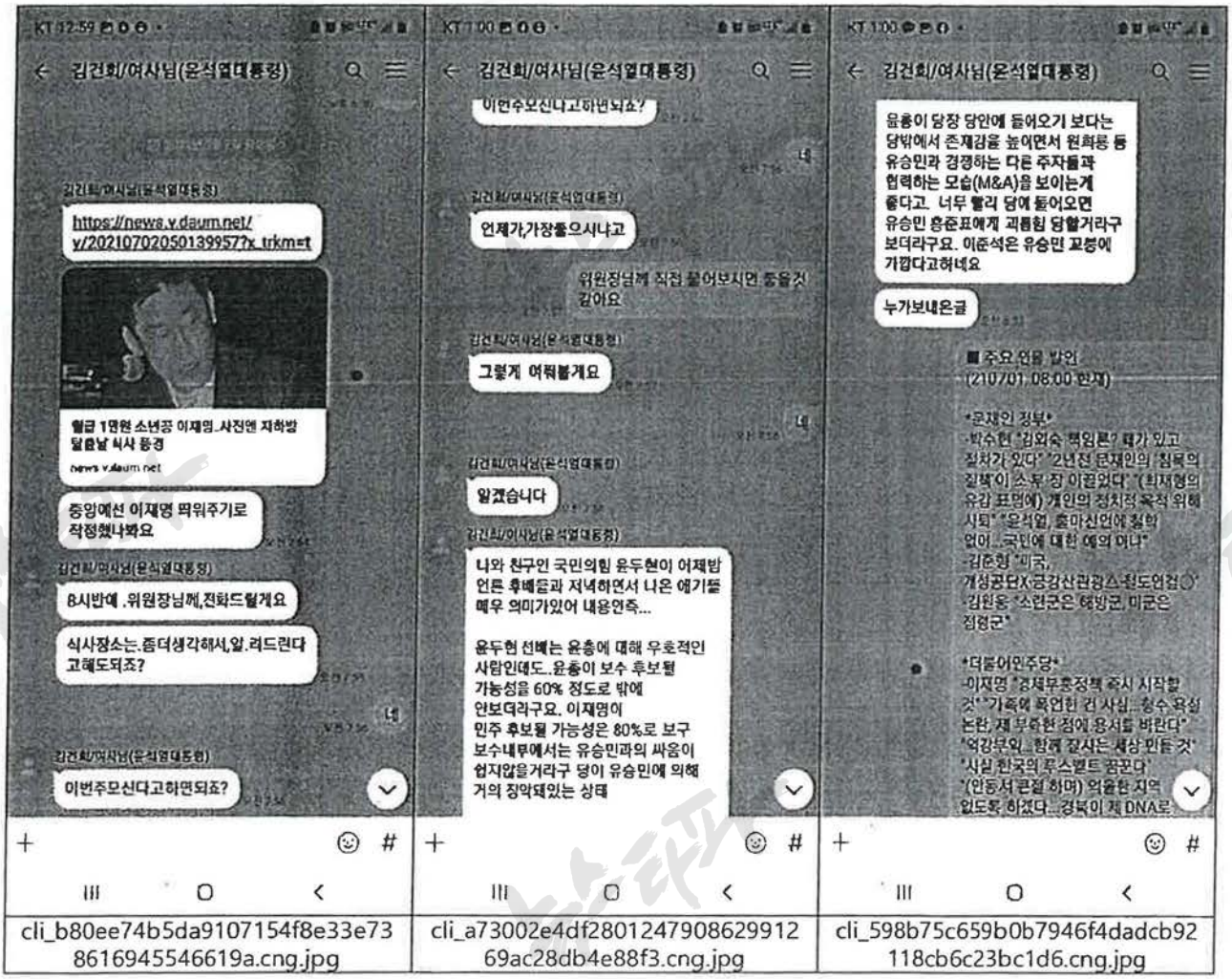
-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'**어제 어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했다**'라고 말하자, 김건희 여사가 '**어제 자신의 어머니 안색을 보았는냐**'라고 반문하며,

- 이에 명태균이 '**주방에서 참외를 주신 분 아니냐**'라고 답하자, 김건희 여사가 '**그 사람은 가사도우미**다'라는 취지로 답변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**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가 의료법위반 사건 등으로 같은 날 법정구속된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흉재**가 되는지 상의하자,

- 명태균이 '괜찮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결과에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, **자신이 꼭 만들어 낼 테니 믿고 기다려 달라**'라고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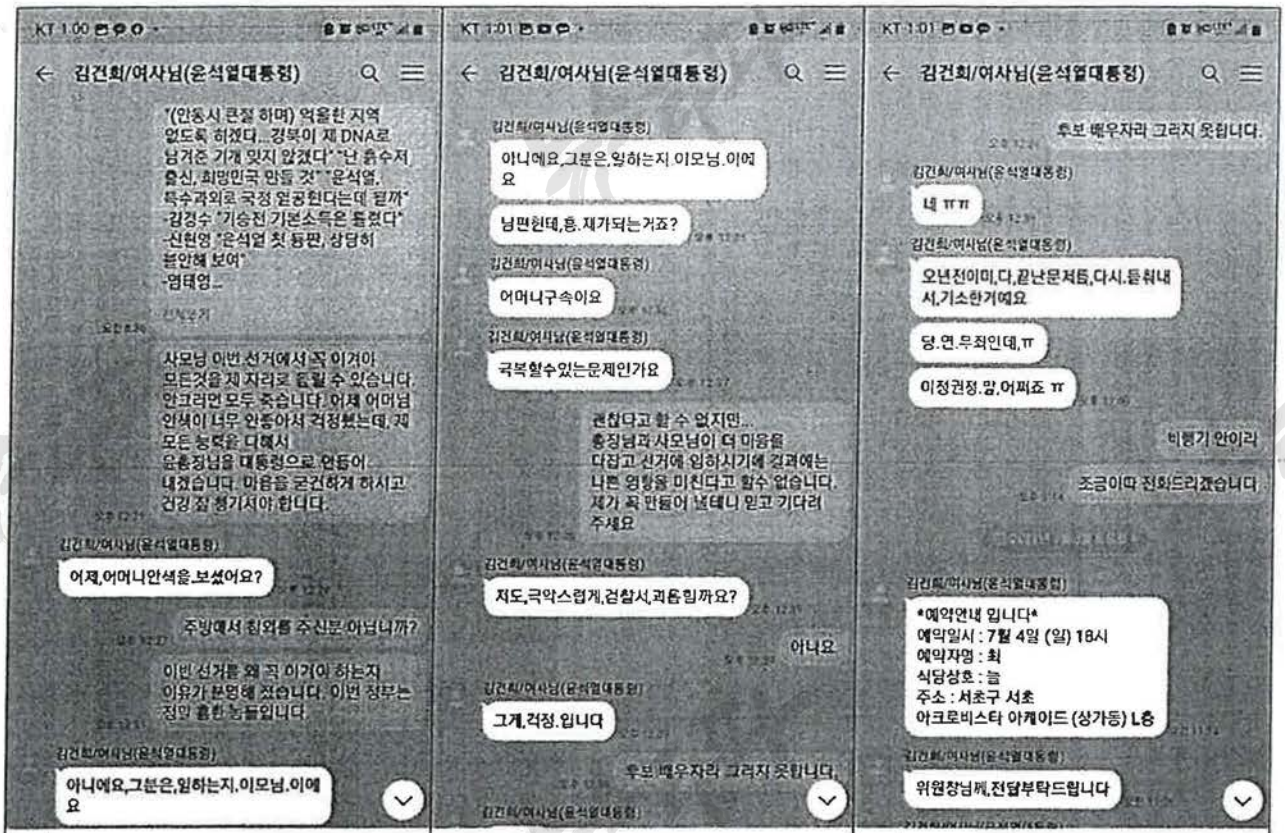
○ 캡쳐 사진



cli_b80ee74b5da9107154f8e33e738616945546619a.cng.jpg

cli_a73002e4df2801247908629912 69ac28db4e88f3.cng.jpg

cli_598b75c659b0b7946f4dadcb92 118cb6c23bc1d6.cng.jpg



cli_747ed25a7d2220bd9eefe0c5e8083d2b2066083d.cng.jpg	cli_c91d670efd196ec53280c6ca2f7dfcb3b232b36f.cng.jpg	cli_9cf31ca8c11af37ed2f8d29a428100f9454b5951.cng.jp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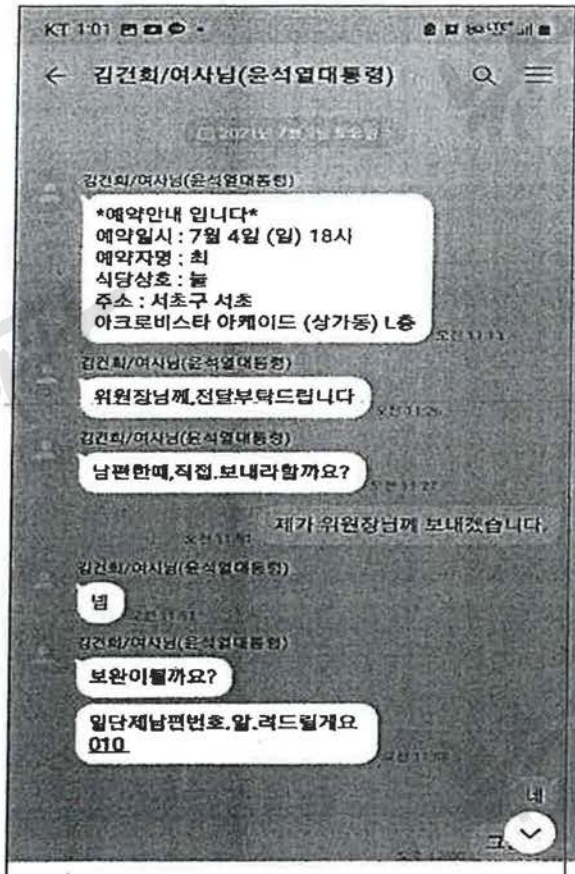
□ 2021. 7. 3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**김종인과의 저녁 약속 일정과 장소(2021. 7. 4. 18:00 아크로비스타 인근 식당)**를 보내면서 **김종인에게 전달**해 달라고 부탁하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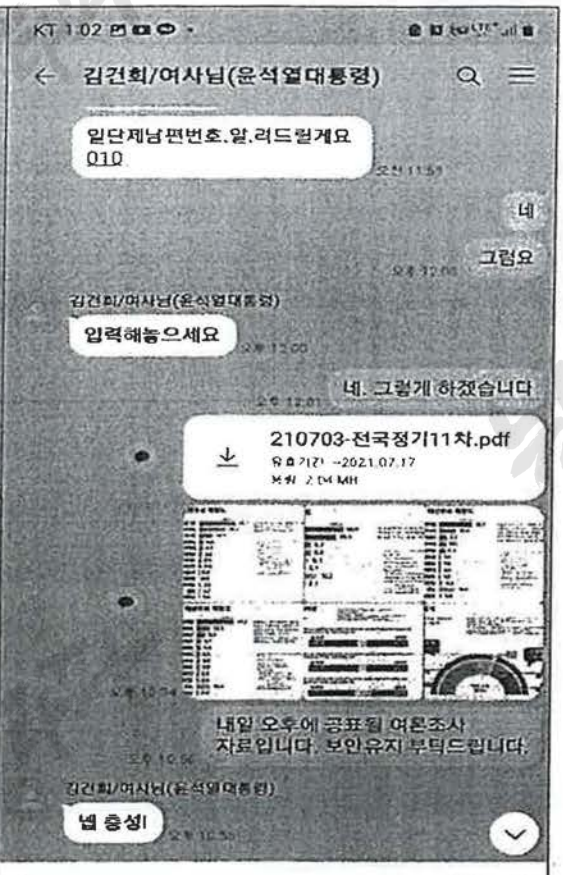
- (기존에 명태균에게 알려준 바 있는)윤석열 대통령의 연락처를 저장해 두라고 말함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**명태균이 익일 공표 예정인 대선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전송하며 보안 유지**를 부탁하자, **김건희 여사가 '충성'**이라고 말함

○ 캡쳐 사진



cli_46fc9489029f7b5665bb0948016d802fe52683db.cng.jpg



cli_c49768fd130cfa7091fc0b97b9dd3cdf11917c8c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여론조사 결과는 **<u>머니투데이 및 미래한국연구소가 PNR과 실시한 여론조사</u>**로 보이고, 관련기사는 아래와 같음

[2021. 7. 4.자 머니투데이 「[the300] [머니투데이-PNR 3일 여론조사]」 기사 요약]

- <u>PNR 리서치가 실시</u>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32.7%로 1위를 차지,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.5%로 2위를 기록
-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%, 부정 평가는 53%로 나타남
- 이 조사는 2021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1%포인트

□ 2021. 7. 4.자 대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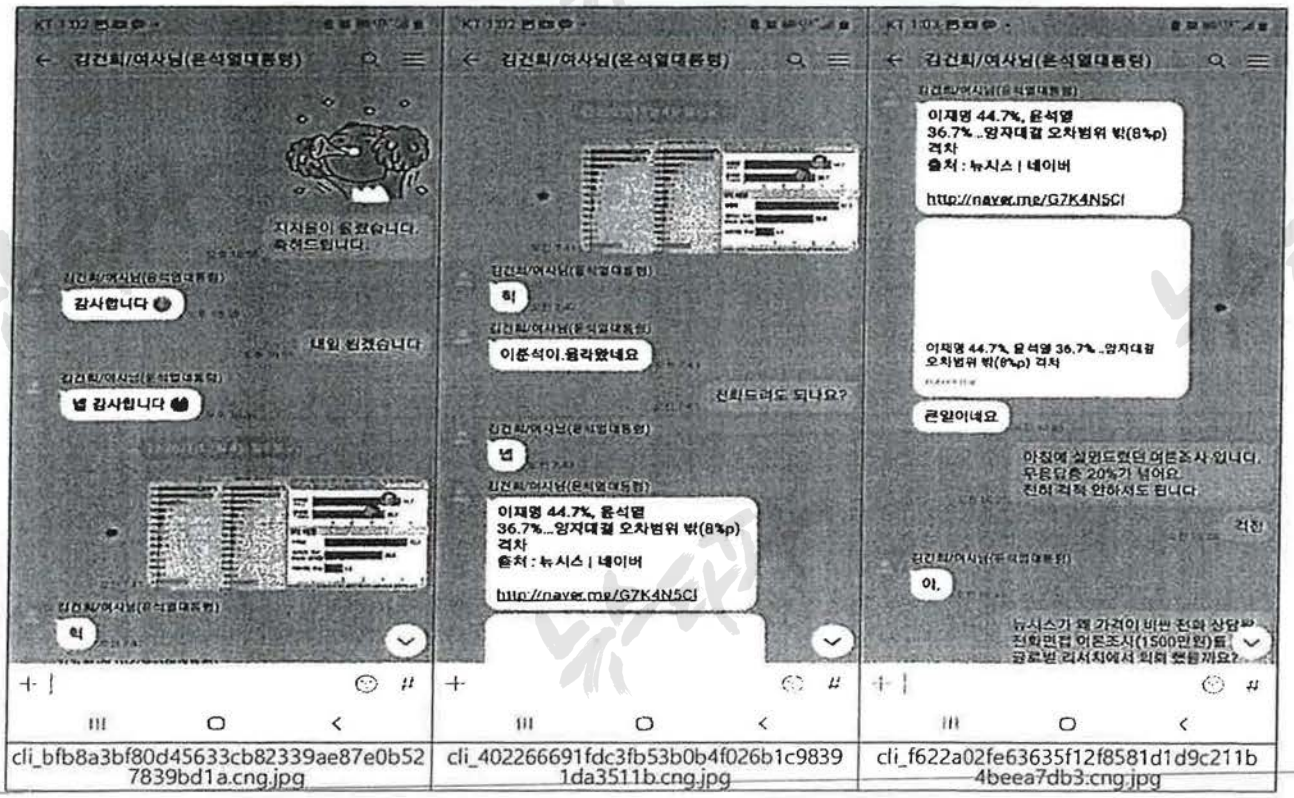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**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사진을 전송**하고, 김건희 여사로부터 같은 취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언론보도들을 전송받자,

-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'무응답층이 20%가 넘는 조사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'; '**이재명 측이 뉴시스에 의뢰해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상담원 직접면접조사로 진행하는 작업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**이다'라고 설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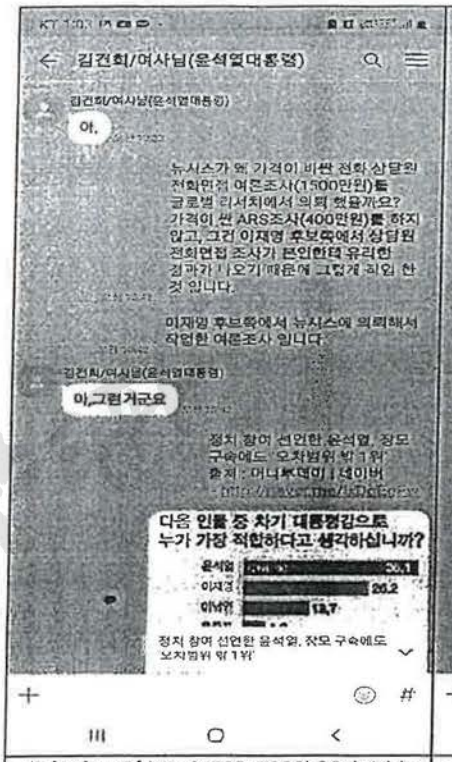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**김종인과의 비공개 회동과 관련하여 '김종인의 화가 풀렸는지' 걱정**하자, 명태균이 '**내일 김종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물어보겠다**'라고 답변

- 아울러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에게 '**오늘 만남은 절대 보안**으로 해 주고, **김영선에게도 알려주라**'라고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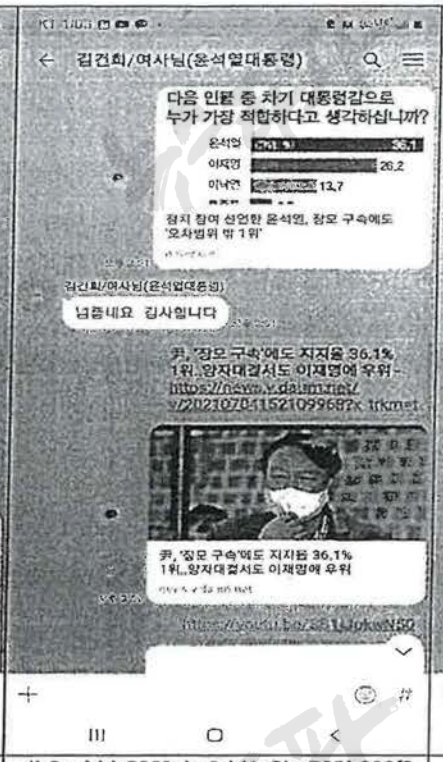
○ 캡쳐 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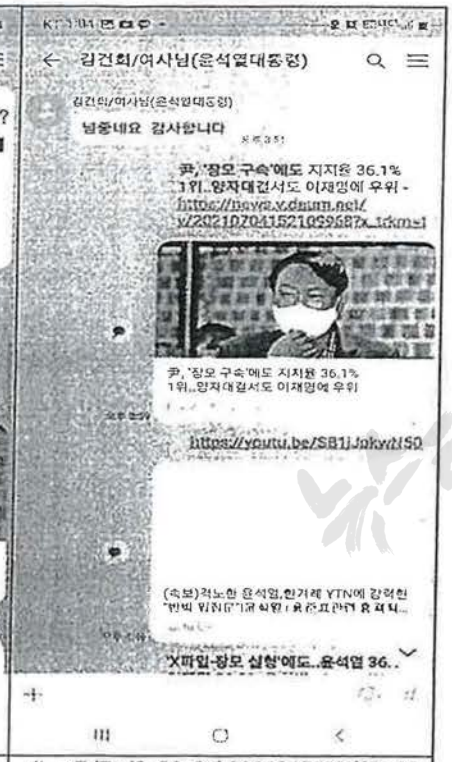
cli_bfb8a3bf80d45633cb82339ae87e0b527839bd1a.cng.jpg | cli_402266691fdc3fb53b0b4f026b1c98391da3511b.cng.jpg | cli_f622a02fe63635f12f8581d1d9c211b4beea7db3.cng.jpg



cli_f14f8ae2fd08e84722c2989b305b4dda00b2ca61.cng.jp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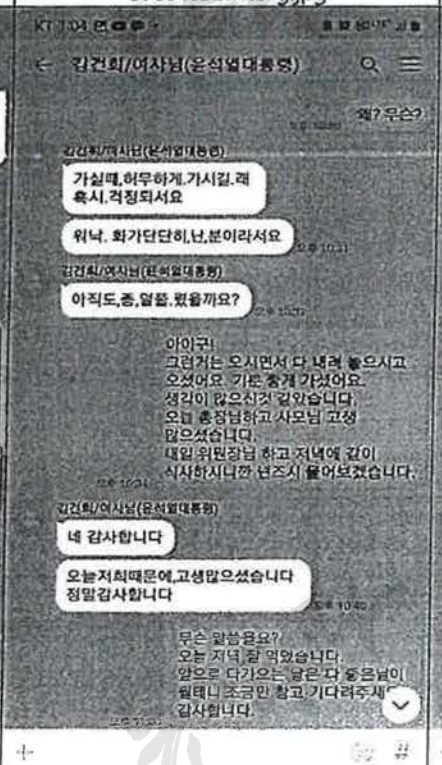


cli_2ecbbb6668ebe2dd1e2be782b099f2e0e8465b21.cng.jp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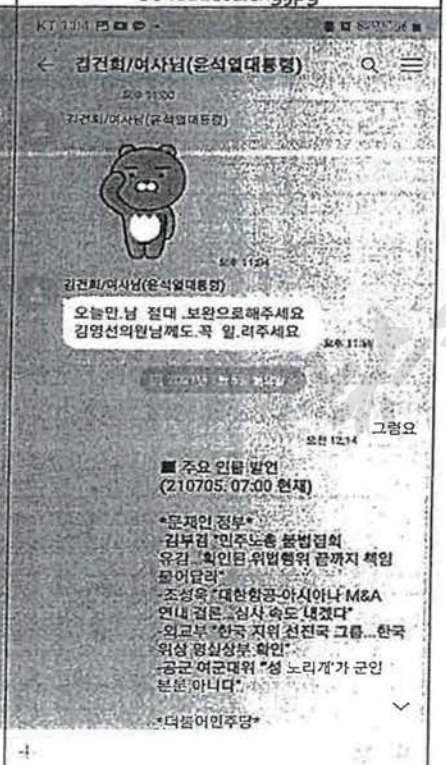


cli_ce7d7ad2e30a8ab2994946523d93e28564822c6a.cng.jpg

cli_6d2af6399fb8aa9d20208517af07c9e06934ca8b.cng.jpg



cli_50ea450be7f318c63b2000e6271f6b7108aa984c.cng.jpg



cli_9594a9cd515cf6518f7b9d7d02c05b99be7016e4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7. 4.자 뉴시스 「[[그래픽] 이재명 44.7% vs 윤석열 36.7%…양자 대결 8%p 격차」 기사 요약]
- 글로벌리서치가 2021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,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4.7%의 지지율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(36.7%)을 8%포인트 앞섬

[2021. 7. 4.자 뉴스1 「尹, '장모 구속'에도 지지율 36.1% 1위…양자대결서도 이재명에 우위」 기사 요약]
- PNR 리서치가 2021년 7월 2~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6.1%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,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.1%로 2위를 기록
- 윤 전 총장의 장모 구속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상승세를 보임

[2021. 7. 4.자 뉴시스 「'X파일·장모 실형'에도…윤석열 36.1% 이재명 26.2% 오차밖」 기사 요약]
- PNR 리서치가 2021년 7월 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6.1%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,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.2%로 2위를 기록
-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49.8%, 이 지사가 41.8%로 나타남

□ **2021. 7. 5.자 대화 내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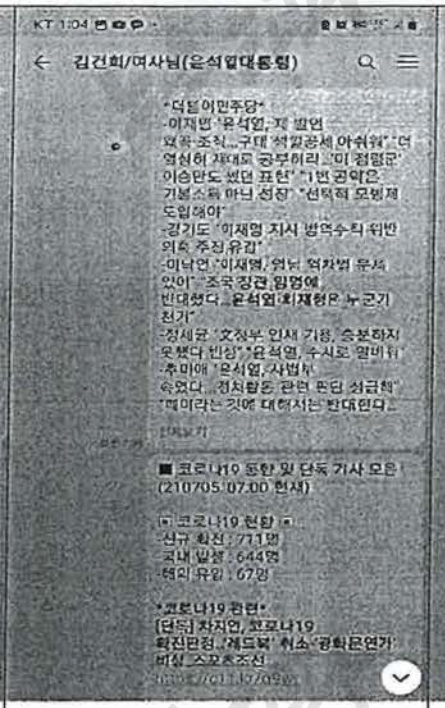
○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2021. 7. 5.자 주요 인물 발언, 언론기사 등 자료를 보내주고, 머니투데이 보도자료, 뉴시스 보도자료를 전송

○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불상자로부터 '**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이 PNR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상하다(윤석열 대통령이 높게 나온다)고 하면서 PNR의 여론조사를 중단**시켰다', '뉴시스는 편집국장이 글로벌리서치랑 아는 사이라 갑자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', '**이재명 측에서 머니투데이 측에 PNR의 여론조사 결과를 문제삼았다**, 그게 통한 것 같고 머니투데이에 항의할 필요가 있다'라고 전달받은 내용을 명태균에게 알려줌

- 이에 명태균은 '**자신이 정리하겠으나 걱정하지 말라**'라고 말함

○ 캡쳐 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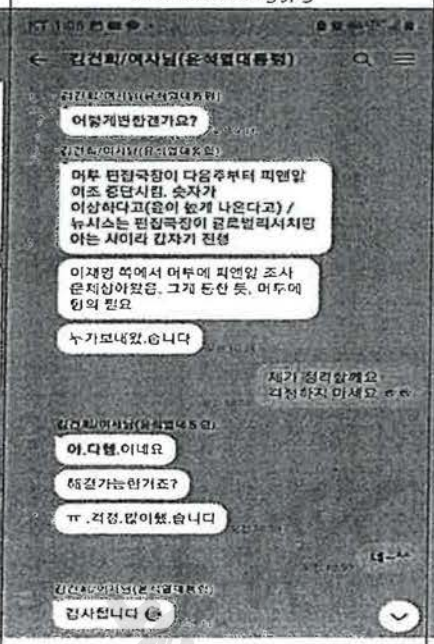
cli_9594a9cd515cf6518f7b9d7d02c05b99be7016e4.cng.jpg



cli_477d57389d338da3ba245c9e93067d2a6a122fce.cng.jpg

cli_d6454d2e5f982f3b1ae4dfec092ada57a013db1b.cng.jpg

cli_038a0d7605eaedea0198599989f4e06169e3406f.cng.jpg



cli_792e7b30cb7260a9ef158cc8fa713cd1340d0a34.cng.jpg

cli_d76b5ef5a7d4cba0ebf8709e7d624dacb15fb523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7. 5.자 한겨레 「[KSOI] 윤석열 31.4%-이재명 30.3% 박빙…윤 6.6%p 하락」 기사 요약]
- 한국사회여론연구소(KSOI)가 2021년 7월 2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1.4%,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.3%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임
-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2주 전 조사 대비 6.6%포인트 하락, 이 지사는 1.9%포인트 상승

[2021. 7. 5.자 JTBC 「[JTBC 여론조사] 윤석열 33.9% 이재명 26.3%…양자대결선 팽팽」 기사 요약]
-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21년 7월 3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,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3.9%,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.3%의 지지율을 기록
-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43.6%, 이 지사가 39.4%로 오차범위 내 접전

□ **2021. 7. 6.자 대화 내용**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'**김종인과의 비공개 회동 관련 내용이 왜 언론에 보도**되었는지' 물어보자,

- 명태균이 '**(이미 만났는데) 만났다고 기사가 난 게 아니라 잘 모르겠다**, 추측성 기사 같기는 하다, 김종인도 보안을 잘 유지하라고 하였다'라고 말함
- 한편,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정갑윤(국민의힘 상임고문)을 아는지 물어보자, 명태균은 '이름만 들어봤다'라고 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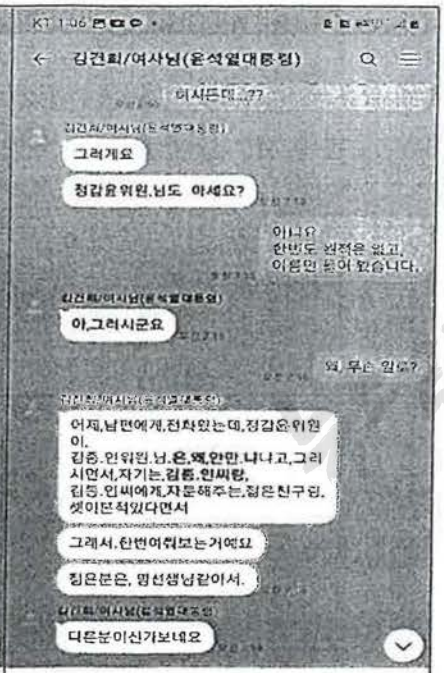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**이준석 및 안철수에게 질문할 내용을 간단하게 문자로 적어달라고 요청**하자 명태균이 질문사항을 답변하고,

-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'**오늘 미팅은 잘 된 것이냐, 이준석과 끝나고 연락 달라**'라고 하자, 명태균이 '**윤석열 대통령 집에서 나와서 이준석에게 다음 대통령 꼭 만들어 줄 테니까 이번에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약속**했다'라고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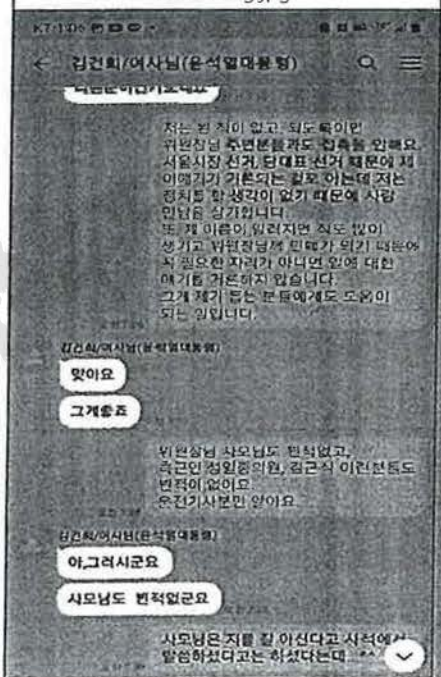
○ 캡쳐 사진

cli_bf743aaf2f6b03ab9d4642df541d3542674e3454.cng.jp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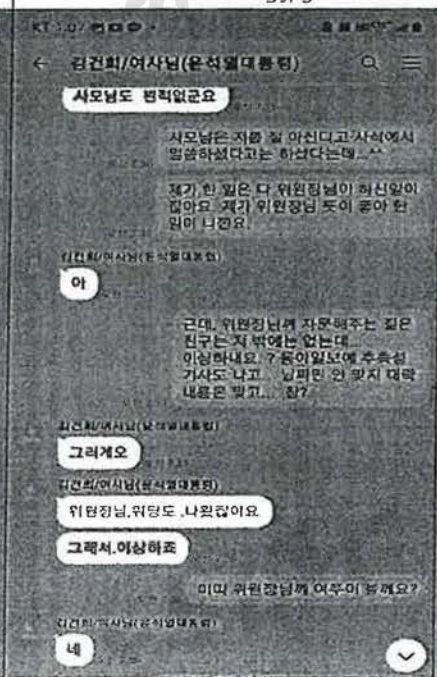
cli_9bbdb5bd2c8e73a00b7b9e0e5f7ef01d5abc92fe.cng.jpg



cli_c5d2ca18f07d834099a42962972cd9ae98be1ed3.cng.jp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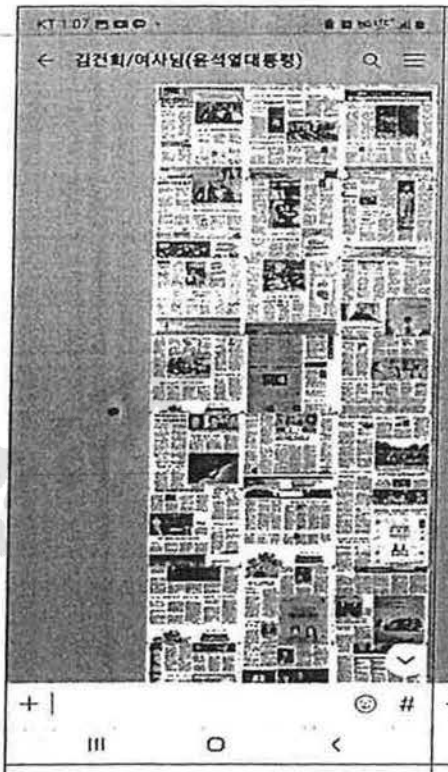


cli_f9efa159c3213df5c18fe6eb998b6ddec62d4321.cng.jpg



cli_d013fb7ab8050829113df0bc885c40106df3bfbb.cng.jpg

cli_39fa2cfdccaf3eb85c907e0077709ccbfde5bffb.cng.jp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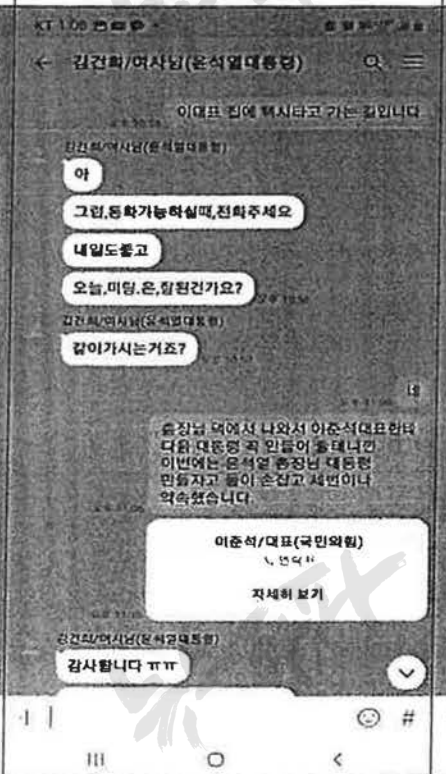


cli_90c135be237f1cbb73073e8545ef3dc284262278.cng.jp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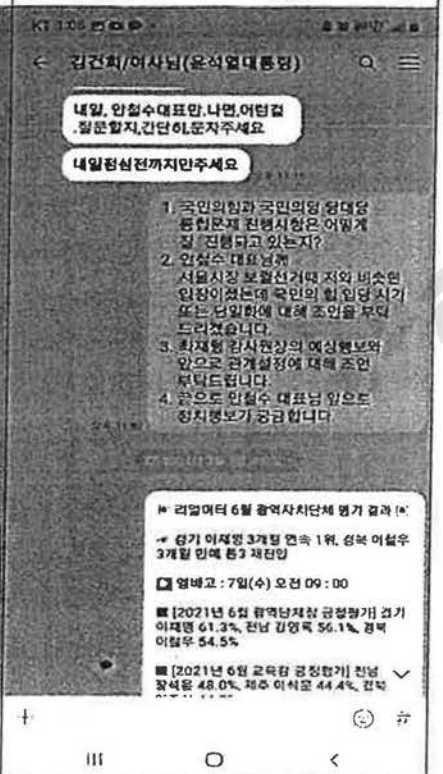
cli_1b0b7f92c56d495041813e7d55418e501abe8cba.cng.jpg

cli_18cce4106a14cd7007913ebd136643d46525d300.cng.jpg

cli_284b37bab1958dbea6d93abac217c349b0f2e5f9.cng.jpg



cli_ddf88d0f0aeddd6830b8e65ba839874ad038e6e7.cng.jpg



cli_ddf88d0f0aeddd6830b8e65ba839874ad038c6c7.cn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7. 6.자 동아일보 「[단독]윤석열, 이르면 내일 김종인과 회동… 입당문제 조언 구할듯」]
- 윤석열 전 검찰총장,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르면 7일 회동 예정
-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"미련하지 않을 것"이라며 당장 입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
- 한편, 윤 전 총장은 서울대 주한규 교수와 만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하며, 탈원전 정책 수정 필요성 강조

[2021. 7. 5.자 연합뉴스 「"윤석열 31.4% 이재명 30.3%…1.1%포인트 '최소 격차'"」 기사 요약]
- 한국사회여론연구소(KSOI)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1.4%, 이재명 경기지사가 30.3%로 오차범위 내 접전

[2021. 7. 6.자 뉴스1 「尹, 장모 구속에도 콘크리트 지지율…보수결집 대권행보 탄력」 기사 요약]
-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7월 3~4일 실시한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3.9%,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.3%의 지지율을 기록, 오차범위(±3.1%P) 밖에서 윤 전 총장이 우위를 보임
- PNR리서치가 머니투데이 더300 및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7월 3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이 36.1%, 이 지사가 26.2%를 기록해 오차범위 밖에서 윤 전 총장이 앞섬

[2021. 7. 6.자 대한경제 「이준석 "경선룰 변경, 원칙적으로 쉽지 않을 것"」 기사 요약]
-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당외 대권주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경선 룰 변경에 대해 "원칙적으로 변경이 쉽지 않다"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
- 다만, 경선 시작 전에 후보 간 대승적 합의가 있다면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으나, 현재 지도부나 경선준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
-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는 "별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"며, 국민의힘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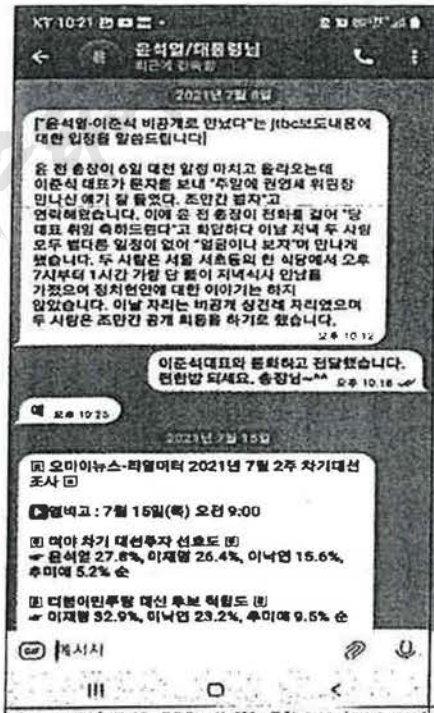
□ 2021. 7. 7. ~ 2021. 7. 8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이재명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기재된 언론보도를 보내면서 걱정하자, 명태균이 '**어차피 그곳은 친여 성향으로 계속 발표**를 할 것이고, 앞으로 계속 여론조사결과가 엎치락 뒤치락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'라고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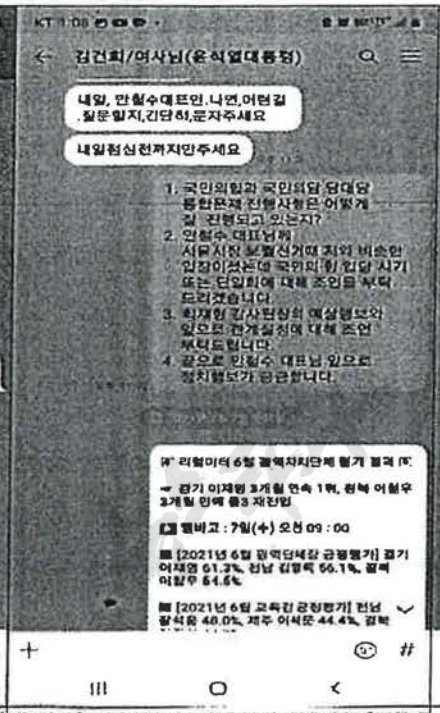
- 한편,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**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의 비공개 만남이 보도된 언론보도**를 보내주면서 '일부러 집에서 만난건데 이준석이 왜 말했는지 모르겠다, 안 만난걸로 하겠다'라고 말함

○ (명태균↔윤석열)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<u>이준석과의 비공개 회동 경위를 정리한 내용</u>을 보내주자, 명태균이 '<u>이준석과 통화하고 전달</u>했다'라고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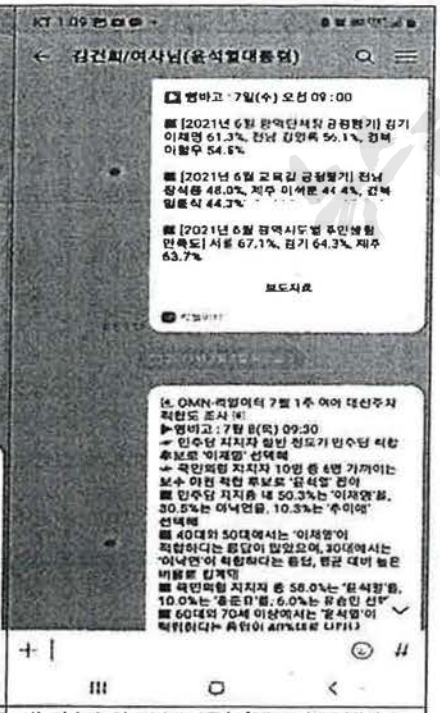
○ 캡쳐 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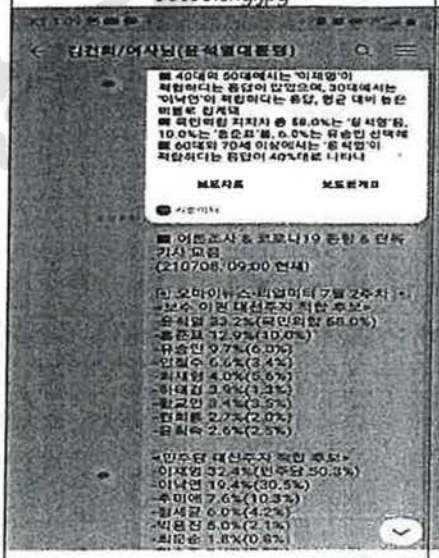
cli_56434fa8d0c380edbff9a5f8642d816c09f98e93.cng.jpg



cli_8b5f59204201b3d05496b488c93ef037e7ce58aa.cng.jp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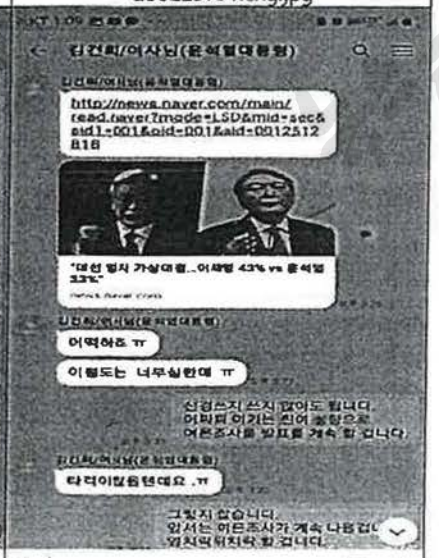


cli_1bb6a3b3324a87d1f9522e768050b6ad88225751.cng.jp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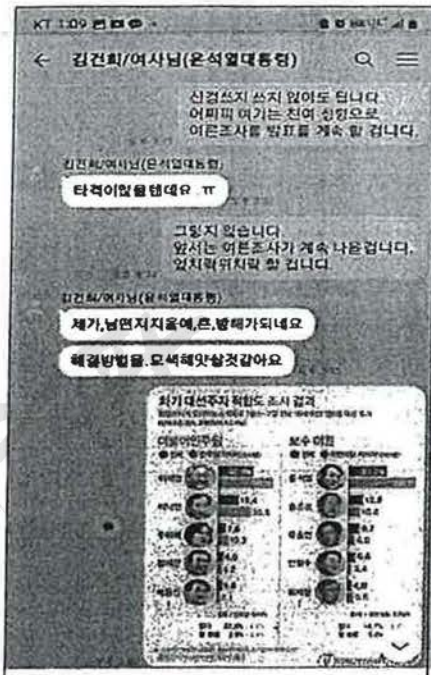


cli_1bb6a3b3324a87d1f9522e768050b6ad88225751.cng

cli_9d4131e157a1b1218e7868db3fa725b3dcc8605f.cng



cli_3a58f0b0708ab3b33c25ad895f5c4f6f16049ca1.cng.jp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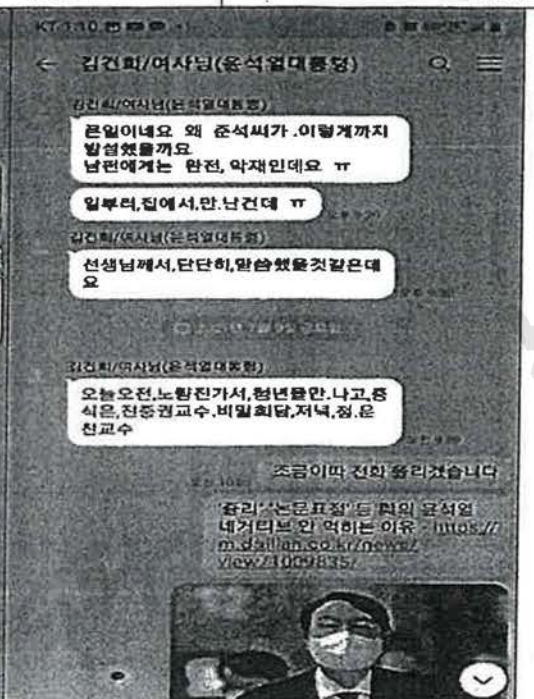


cli_74f48402c6b1db33564b869639add4294e60de2a.cng.jpg

cli_cabb360f19f40b6f3913b8def99a9a4ca5df1b40.cng.jpg

cli_59d07aea32a124dd9af9f88ab71abfd6bb239428.cng.jpg

cli_0881a8120d382722c84a67d95d2a807be152deb0.cng.jpg



cli_554cc10caeb23387df5a70f3097385c13dc60f53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7. 8.자 국민일보 「대선 양자 가상대결, 이재명 43% vs 윤석열 33%」 기사 요약]
- 엠브레인퍼블리·케이스탯리서치·코리아리서치·한국리서치가 7월 5~7일 실시한 조사에서 가상 양자 대결 결과 이재명 지사가 43%, 윤석열 전 총장이 33%의 지지를 얻어 이 지사가 10%포인트 앞섬
- 전체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 27%, 윤석열 전 총장 21%로 집계되었고, 이낙연 전 대표는 10%의 지지율 기록

[2021. 7. 8.자 뉴시스 「홍준표, 한국갤럽에 분노 "내 이름 넣지 마라"」 기사 요약]
-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갤럽에 '모든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공표하지 말라'는 공문을 발송하며, 법적 대응을 경고
- 홍 의원은 한국갤럽의 조사방식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타난다며, 특히 타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유 응답 방식을 비판
- 홍 의원 측은 한국갤럽이 성명을 상업적으로 활용해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정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

[2021. 7. 8.자 한겨레 「'윤석열 8월 버스' 이준석과 다른 말…김종인 "11월 단일화"」 기사 요약]
-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현재의 독자 행보를 지속하고, 11월에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
- 이는 이준석 대표가 "경선 버스를 놓치면 손해"라며 8월 말 입당을 전망한 것과 상반된 입장
-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장모 구속이 대선 가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

[2021. 7. 8.자 신동아 「[단독] 김종인 "윤석열, 입당 말고 11월에 여론조사로 단일화"」 기사 요약]
-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7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에 입당하지 않고 독자 행보를 이어가며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
- 11월에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며, 4·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·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방식을 대선에서도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강조
- 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총장의 8월 입당을 전망한 것과 상반된 입장

□ **2021. 7. 9. ~ 2021. 7. 10.자 대화 내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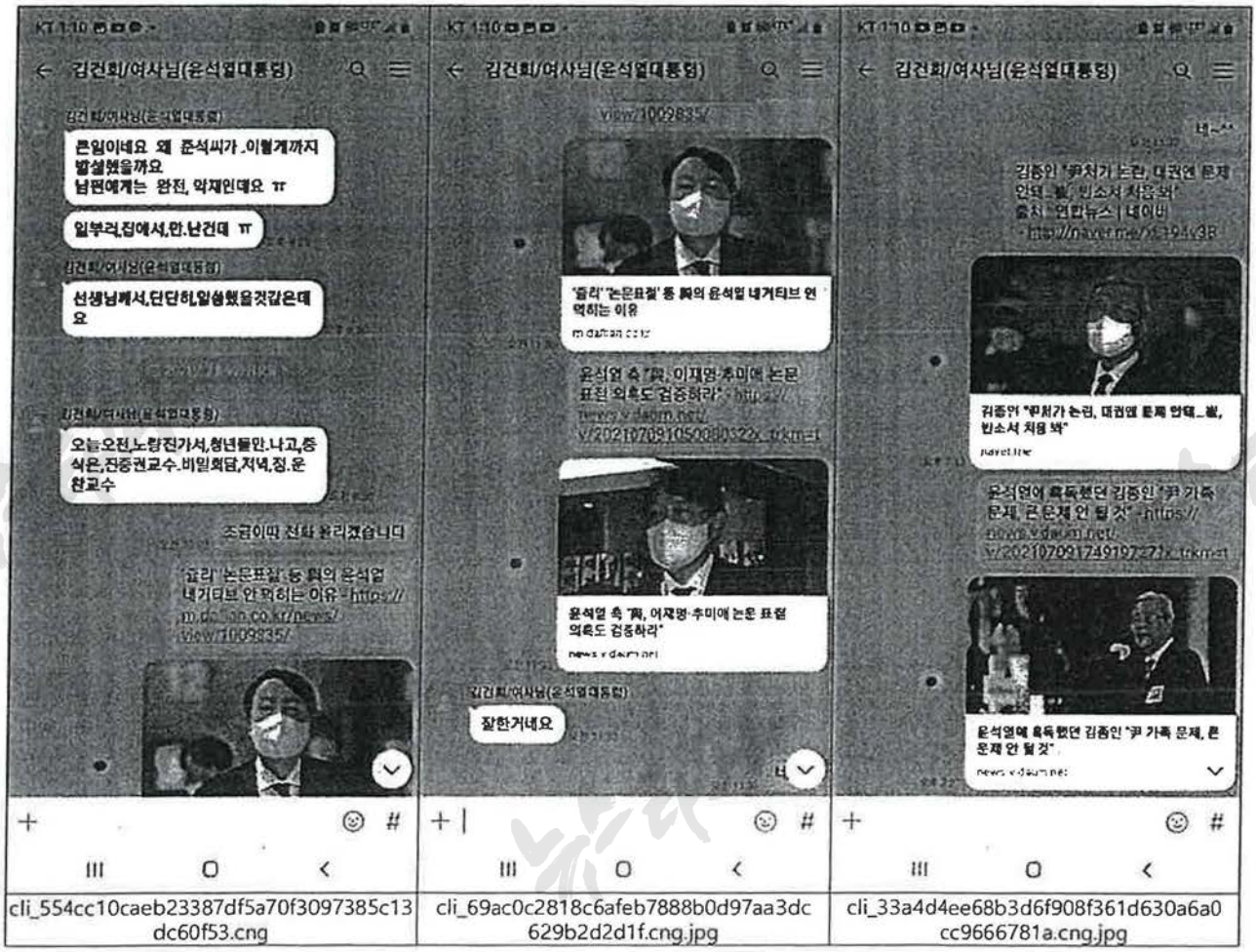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'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는 노량진에서 청년들을 만나고, 점심때는 진중권과 식사를, 저녁때는 정운찬 교수를 만날 예정이다'라고 일정 공유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김건희 여사의 '줄리', '논문표절' 등에 대한 네거티브가 잘 안 먹힌다는 언론보도를 보내자, 김건희 여사가 '잘한거네요'라고 말하고,

-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김종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한 언론보도를 보내자, '보호해 주시네요'라고 말함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**MBC 기자의 경찰사칭 문제를 고소**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문의하자, 명태균이 '사실이면 고소해야 한다'라고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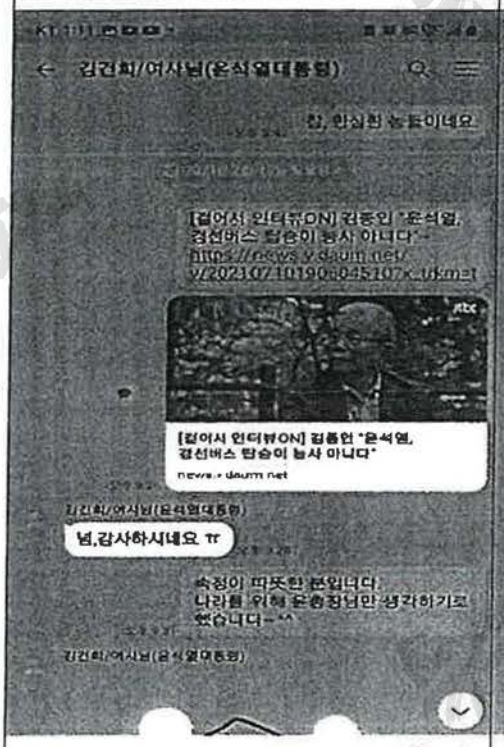
○ 캡쳐 사진



cli_554cc10caeb23387df5a70f3097385c13dc60f53.cng	cli_69ac0c2818c6afeb7888b0d97aa3dc629b2d2d1f.cng.jpg	cli_33a4d4ee68b3d6f908f361d630a6a0cc9666781a.cng.jpg

di_1513c0d658b8319e25cf20d9ac7942484514a40c.cng.jpg

di_77969c49ad3e3305eab1c814c66a936407021107.cng.jpg



cli_e679bb9e5585b6ce7f60147573871caf935d45ed.cng.jpg

di_e1eb9f8e04bcbbb802a0c2a17ece3ade60a4ca08.cn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7. 9.자 데일리안 「'쥴리' '논문표절' 등 與의 윤석열 네거티브 안 먹히는 이유」 기사 요약]
-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'쥴리' 의혹, 논문 표절 등 네거티브 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,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는 큰 변동이 없음
- 윤 전 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큰 변화가 없었음
-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과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분석

[2021. 7. 9.자 머니투데이 「윤석열 측 "與, 이재명·추미애 논문 표절 의혹도 검증하라"」 기사 요약]
-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의혹을 제기하는 여당의 공세에 맞서, 이재명·정세균·추미애 등 여당 대선후보들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
- 윤 전 총장 측은 김 씨의 논문 문제는 해당 대학교의 조사를 통해 규명될 문제이며, 배우자가 아닌 여당 후보들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조치를 요구
- 국민대는 김 씨의 논문 의혹과 관련해 연구윤리위를 꾸리고 예비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, 여권은 김 씨 논문 문제에 대한 검증과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공세를 강화

[2021. 7. 9.자 연합뉴스 「김종인 "尹처가 논란, 대권엔 문제 안돼…崔, 빈소서 처음 봐"」 기사 요약]
-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1년 7월 9일 연합뉴스TV '뉴스 1번지'에 출연하여,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'처가 리스크' 논란이 대권 도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
-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입당 여부에 대해 "스스로 할 선택"이라며, 국민의힘과 함께 할지 독자적으로 힘을 길러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할지는 개인의 결심이라고 언급
- 또한,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지지율이 30%를 넘었을 때 '별의 순간이 도래했다'고 평가했으나, 그 이후로 그 순간을 제대로 포착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

[2021. 7. 9.자 뉴스1 「윤석열에 혹독했던 김종인 "尹 가족 문제, 큰 문제 안 될 것"」 기사 요약]
-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·장모 논란이 대권 행보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며, 가족 논란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
-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본인의 선택이라며, 국민의힘과 합승할지 독자적으로 단일화를 할지는 개인의 결심에 달렸다고 언급
-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여권 내 준비된 후보로 평가하며, 대권 주자로 판세가 뒤집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

[2021. 7. 9.자 미디어오늘 「MBC, 김건희 논문표절 취재진 '경찰사칭' 사과한다」 기사 요약]
- MBC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'경찰 사칭' 논란에 대해 사과
- 내부 조사 결과, 취재진 2명이 김 씨의 박사논문 지도교수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사실이 확인
- MBC는 9일 '뉴스데스크'를 통해 시청자에게 사과하고 해당 취재진에 대해 사규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결정

[2021. 7. 10.자 JTBC 「[걸어서 인터뷰ON] 김종인 "윤석열, 경선버스 탑승이 능사 아니다"」 기사 요약]

-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성급히 입당하기보다 당 밖에서 세력을 키우며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
- 국민의힘 경선 이후에 윤 전 총장과의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라며, 당내 경선 참여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
- 윤 전 총장의 'X파일' 논란에 대해서는 대권 도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며, 국민들이 성숙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전망

□ 2021. 7. 11.자 대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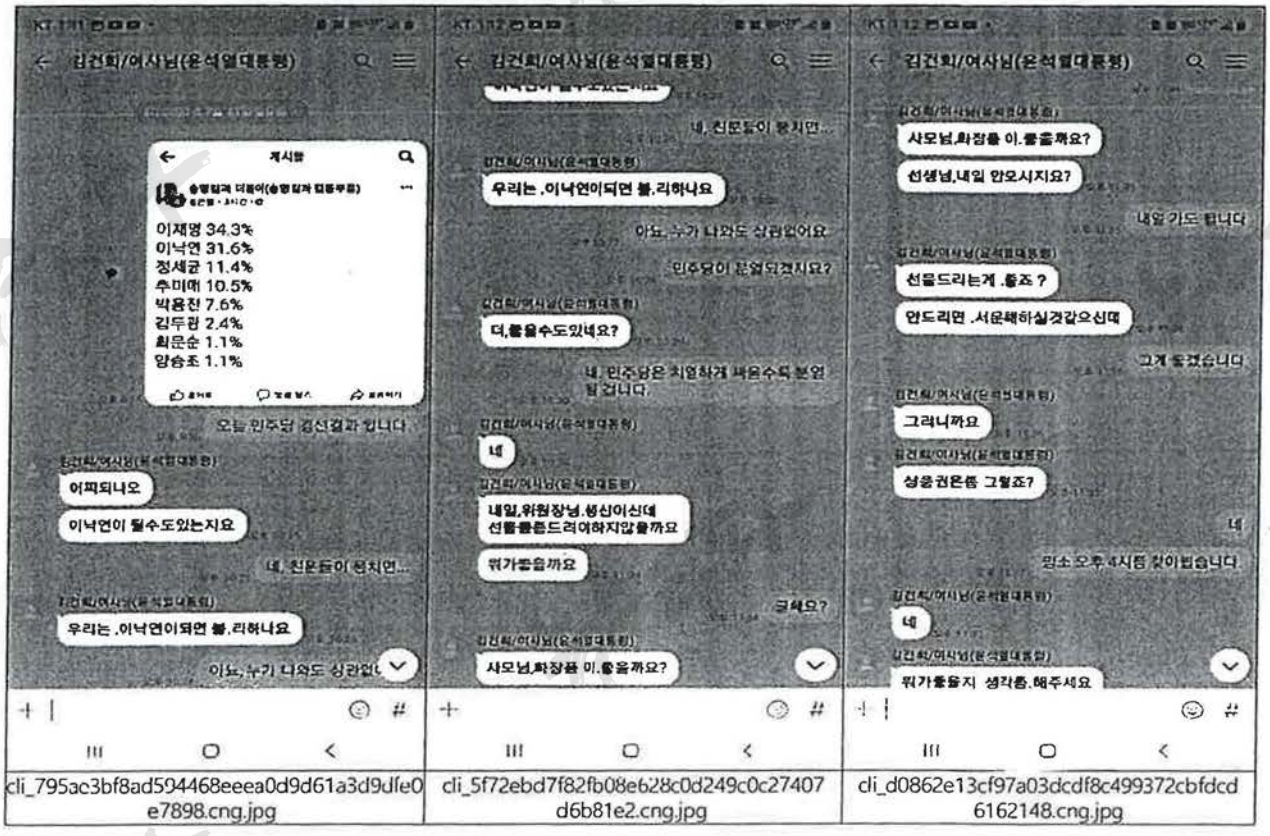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게시물 사진(이재명 34.3%, 이낙연 31.6%, 정세균 11.4% 등)을 전송하자, 여사가 경선 결과 관련 유·불리를 명태균에게 물어보고,

- 명태균이 '**누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**'라고 말함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김종인의 생일선물을 상의

※ 네이버 프로필 상 김종인의 생년월일은 1940. 7. 1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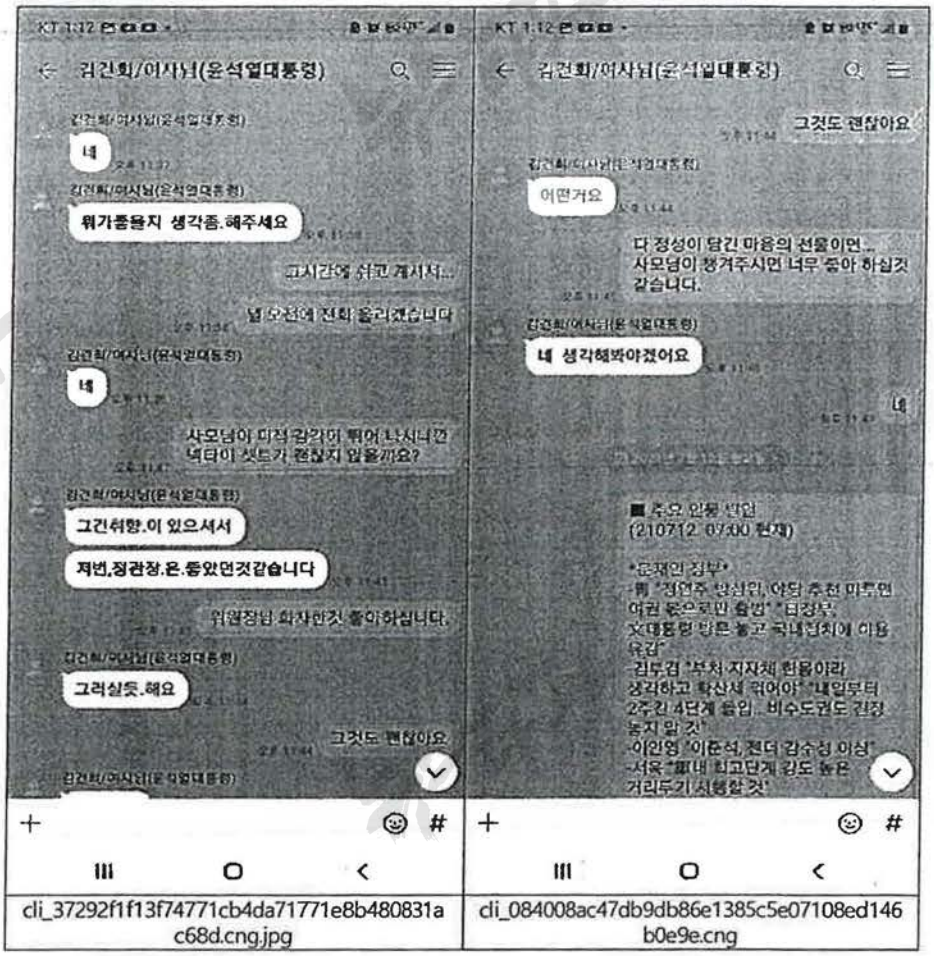
○ 캡쳐 사진



cli_795ac3bf8ad594468eeea0d9d61a3d9dfe0e7898.cng.jpg

cli_5f72ebd7f82fb08e628c0d249c0c27407d6b81e2.cng.jpg

cli_d0862e13cf97a03dcdf8c499372cbfdcd6162148.cng.jpg



cli_37292f1f13f74771cb4da71771e8b480831ac68d.cng.jp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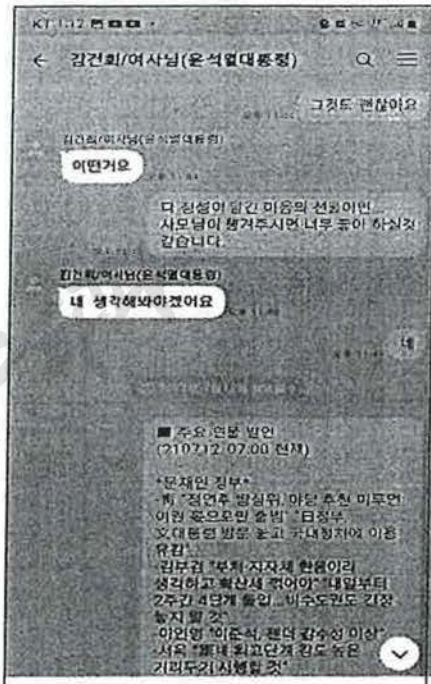
cli_084008ac47db9db86e1385c5e07108ed146b0e9e.cng

□ **2021. 7. 12.자 대화 내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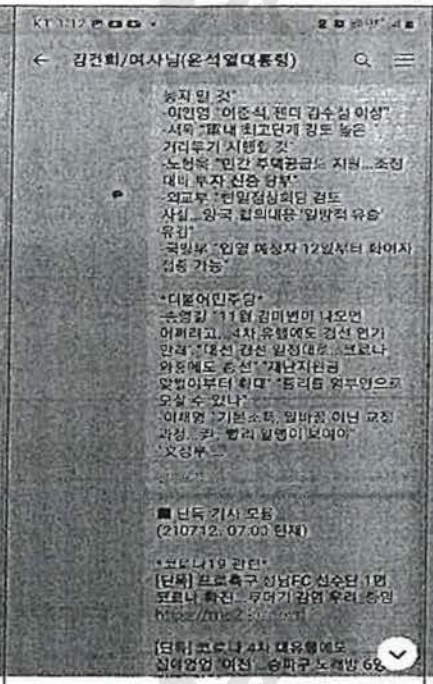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'**여권에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기관에 여론조사 중지 압력**을 주었다'라고 말하자 김건희 여사가 대응을 걱정하고,

-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**머니투데이 및 미래한국연구소가 PNR 리서치에 발주한 여론조사가 민주당 지지층의 항의로 중단**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내주고,
- 이에 **걱정하는 김건희 여사에게 '관계 없다, 대안을 다 마련했다, 해결하겠다'**라고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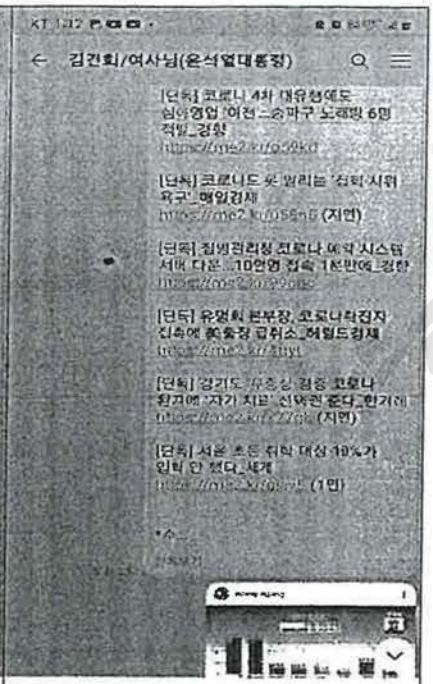
○ 캡쳐 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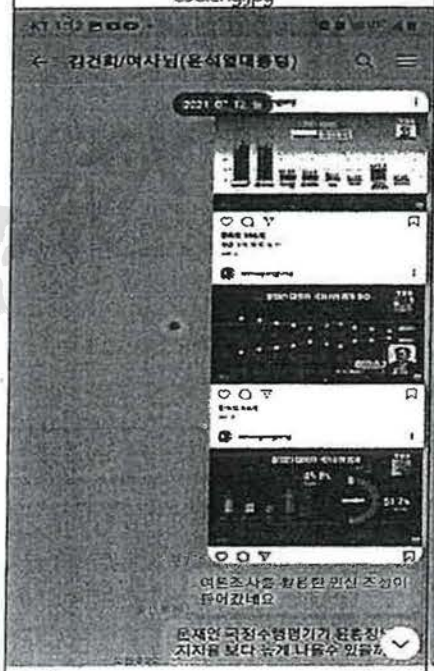
cli_084008ac47db9db86e1385c5e07108ed146b0e9e.cng.jpg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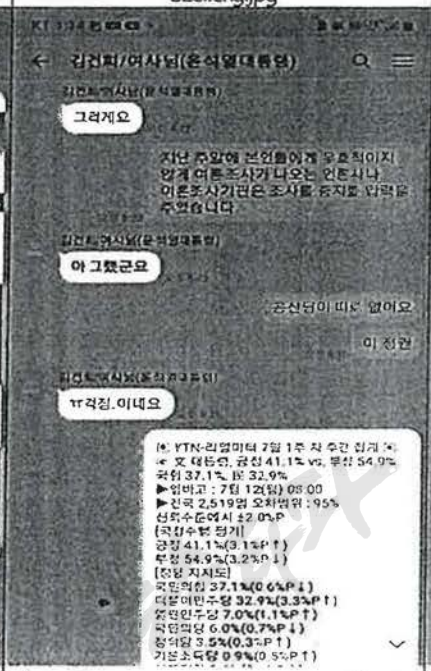
cli_95cda3a1d6e58ac310e0cf7cf5536903cdbeb2ef.cng.jpg



cli_73c2c09f154114cc8806a2c505402d9bb918cfaa.cng.jpg



cli_83207230bebcf044bb2d96cb702808152d833491.cng.jpg



cli_9037fcd1d4d58fd8f4d2ee1bb5b13921ca96b5b5.cng.jpg

cli_b003804a3a93bb9c4e49e2dccd0a160e4d4167a3.cng.jpg

cli_ee332381e61b79f8cf1dc45b137b22c2b2d5c0e1.cng.jpg

cli_52b2d84144a461308ca08f86c075d17ac723889c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7. 12자 연합뉴스 「"윤석열 29.9% 이재명 26.9%..이낙연 18.1%"」 기사 요약]

- 한국사회여론연구소(KSOI)가 TBS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29.9%, 이재명 경기도지사 26.9%로 오차범위 내 접전
-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.1%로 지지율 상승
- 조사는 7월 9~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,014명 대상으로 진행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1%포인트

[2021. 7. 12자 조선일보 「'윤석열 1위' 여론조사, 돌연 중단… "與지지자 항의 전화 쏟아졌다"」 기사 요약]

- PNR리서치가 4월부터 매주 발표해온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율 조사가 7월 11일 갑자기 중단, 발주처인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
- PNR 조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다른 조사보다 높게 나오는 것으로 평가되었고, ARS 조사 방식으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
- 여론조사 중단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의 항의가 많았으며, 여론조사업계 관계자는 이를 "민주당 극성 지지층의 승리"로 표현

□ 2021. 7. 13. ~ 7. 14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'선거 개입과 여론 조작' 관련 유튜브 등과, **이동훈(前 윤석열 캠프 대변인)이 '가짜 수산업자'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과 관련해 '여권으로부터 회유를 받았고 이를 거부했다, 이 사건은 정권의 공작이다'라고 주장**하는 언론보도를 보내자, 김건희 여사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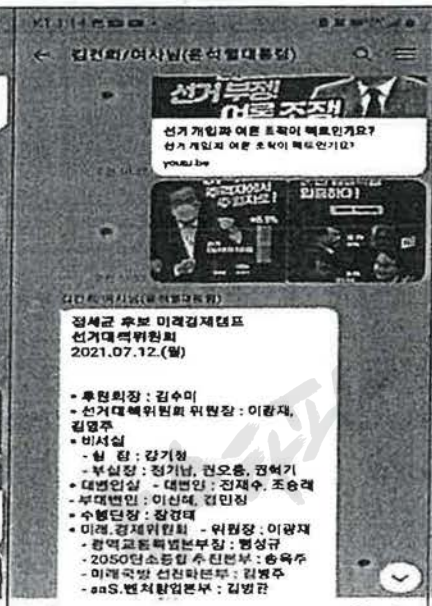
- 이에 대해 명태균은 **'이준석은 이걸로 밀어붙인다고 전화가 왔다'라고 하면서,이준석이 '여권의 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이다'라고 발언**한 언론보도를 보냄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**여권에 긍정적인 여론조사 결과 관련 언론보도**를 보내면서 '**여론조사 작업이 전방위적**으로 들어갔다, 전화해도 되는가'라고 하자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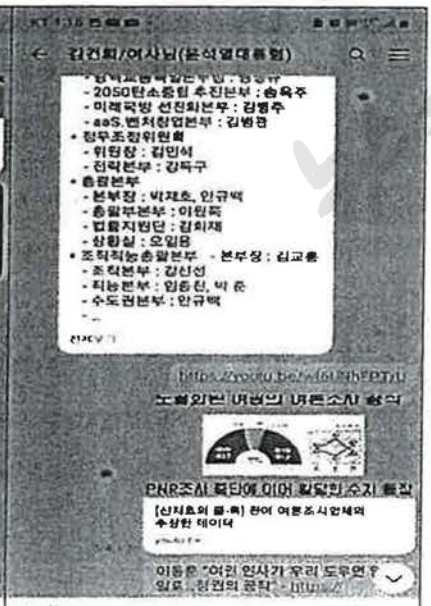
- '**자신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이 시급**하다, **그 뒤에 전화**하겠다'라고 말함

○ 캡쳐 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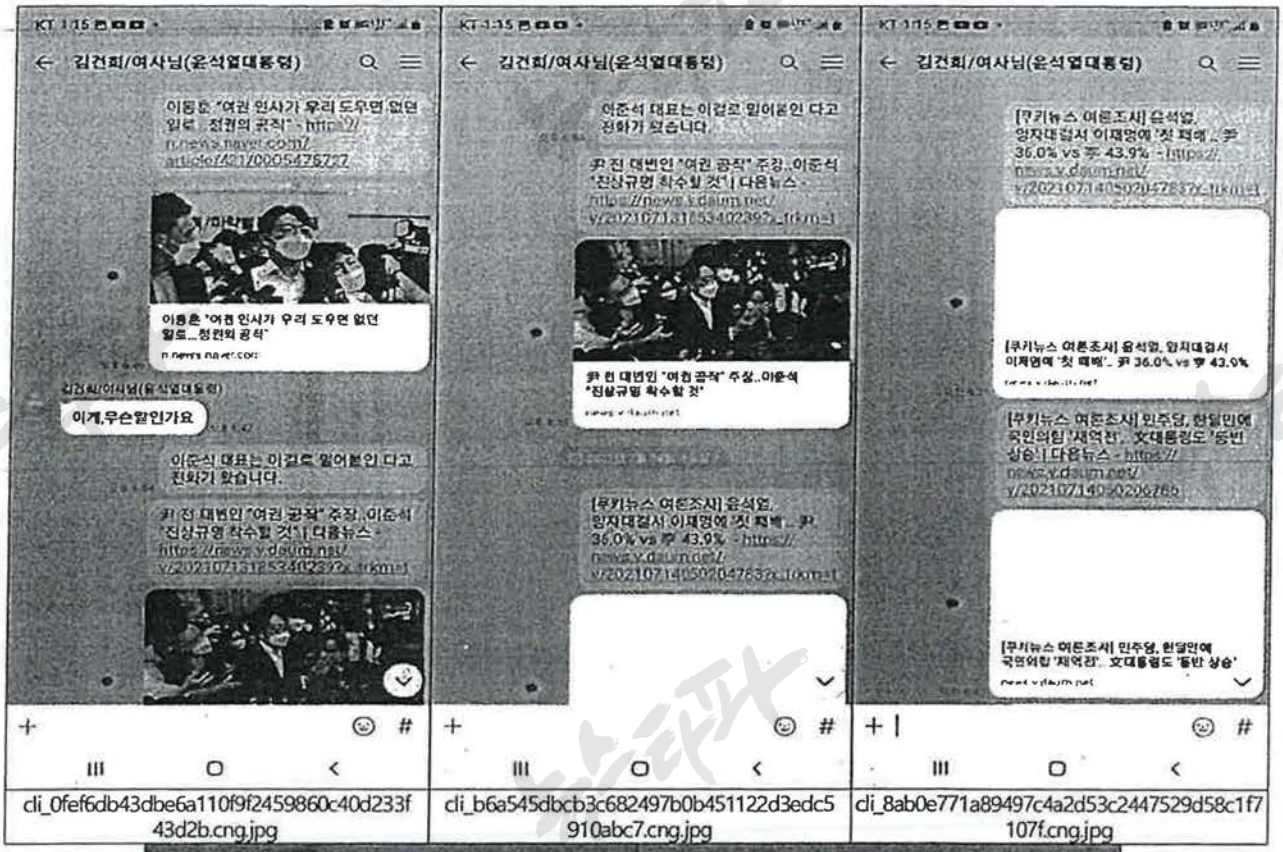
cli_52b2d84144a461308ca08f86c075d17ac723889c.cng.jpg



cli_b18e6f9759a4f5253f4adc347a87db70a54641bd.cng.jpg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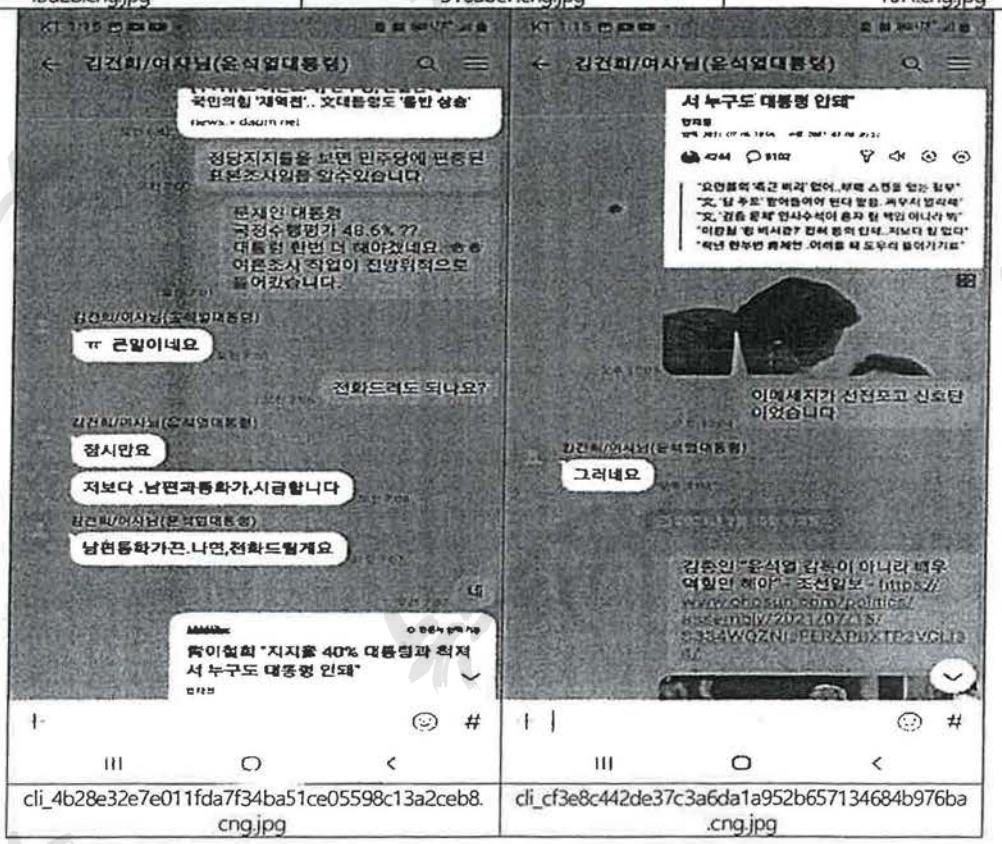
cli_e12a51fde71f5b58a33f5feaae97848ab8455033.cng.jpg



cli_0fef6db43dbe6a110f9f2459860c40d233f43d2b.cng.jpg

cli_b6a545dbcb3c682497b0b451122d3edc5910abc7.cng.jpg

cli_8ab0e771a89497c4a2d53c2447529d58c1f7107f.cng.jpg



cli_4b28e32e7e011fda7f34ba51ce05598c13a2ceb8.cng.jpg

cli_cf3e8c442de37c3a6da1a952b657134684b976ba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7. 13.자 뉴스1 「이동훈 "여권 인사가 우리 도우면 없던 일로…정권의 공작"」 기사 요약]
-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'가짜 수산업자'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3일 경찰에 출석해 8시간 동안 조사
- 조사 후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여권 인사가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, 이번 사건이 "정권의 공작"이라고 주장
- 경찰은 이동훈 전 논설위원 외에도 언론인, 경찰, 검사 등 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며, 추가 소환 예정

[2021. 7. 13.자 뉴스1 「尹 전 대변인 "여권 공작" 주장…이준석 "진상규명 착수할 것"」 기사 요약]
-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, '가짜 수산업자' 김모 씨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
- 조사 후 여권 인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
-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 차원의 즉각적인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고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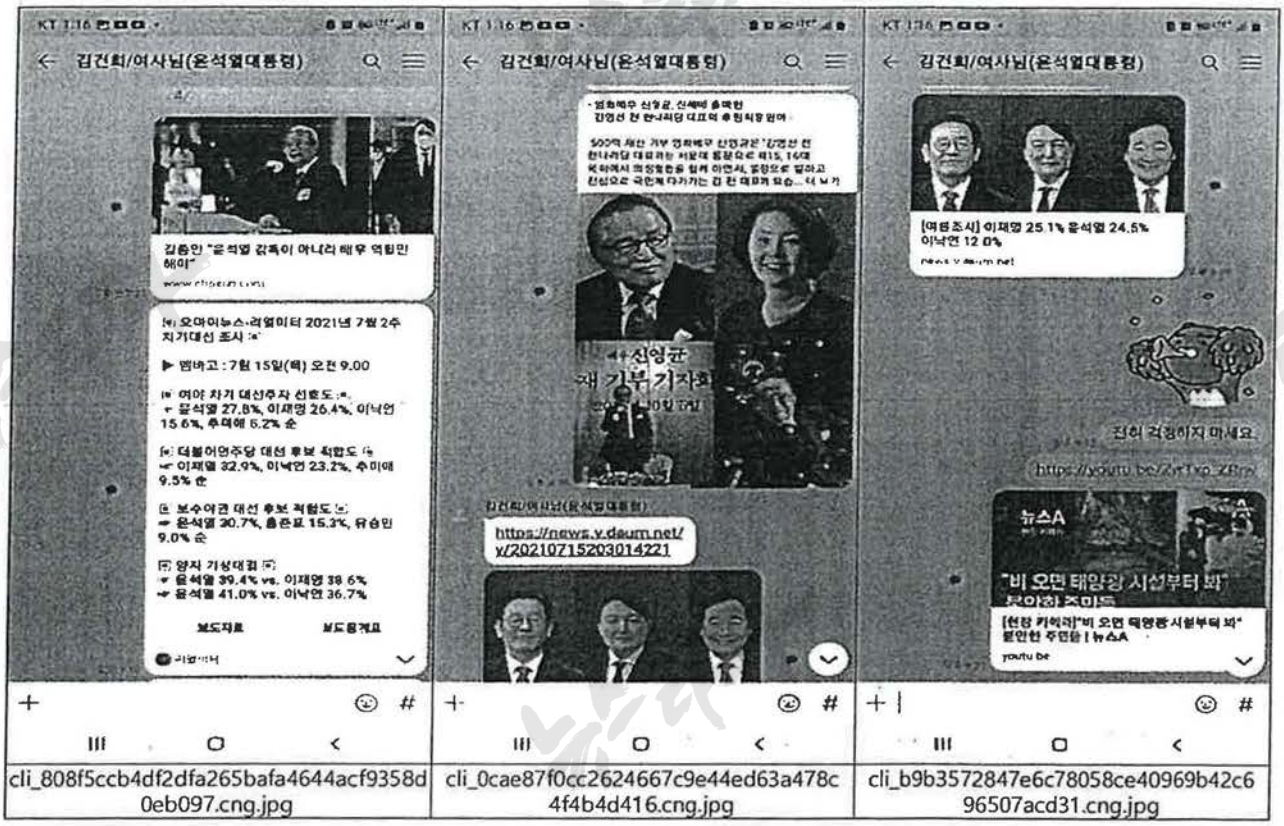
[2021. 7. 14자 쿠키뉴스 「[쿠키뉴스 여론조사] 민주당, 한달만에 국민의힘 '재역전'… 文대통령도 '동반상승'」 기사 요약]
- 한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이 40.2%로 급등하며 국민의힘(25.7%)을 앞섰고,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의 '컨벤션 효과'로 분석됨
-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도 48.6%로 올라, 긍정과 부정 평가가 0.1%p 차이로 좁혀짐
-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 의뢰로 유선 전화면접과 무선 ARS 방식으로 7월 10~12일 진행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1%p

[2021. 7. 6자 뉴시스 「靑이철희 "지지율 40% 대통령과 척져서 누구도 대통령 안돼"」 기사 요약]
-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여당이 대통령과의 갈등을 피해야 한다고 언급
- 문재인 정부는 권력형 비리나 부패 스캔들이 없는 정부라고 평가
- 김외숙 인사수석의 인사검증 책임론에 대해, 인사 문제는 인사수석 단독의 책임이 아니라고 설명

□ 2021. 7. 15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가 각종 언론보도 자료를 공유하고, 명태균이 여사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를 안심시킴

○ 캡쳐 사진



cli_808f5ccb4df2dfa265bafa4644acf9358d0eb097.cng.jpg | cli_0cae87f0cc2624667c9e44ed63a478c4f4b4d416.cng.jpg | cli_b9b3572847e6c78058ce40969b42c696507acd31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7. 15자 조선일보 「김종인 "윤석열, 감독이 아니라 배우 역할만 해야"」 기사 요약]

-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서 '감독'이 아닌 '배우'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
- 윤 전 총장이 직접 정치적 전략을 주도하기보다, 캠프 내에 전략을 총괄할 인물이 필요하다고 지적
-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

[2021. 7. 15자 SBS 「[여론조사] 이재명 25.1% 윤석열 24.5% 이낙연 12.0%」 기사 요약]

-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25.1%, 윤석열 전 검찰총장 24.5%로 오차 범위 내 접전
-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2%, 홍준표 의원 4.2%,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.8%로 뒤를 이어
-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36.9%, 윤석열 34%로 오차 범위 내 접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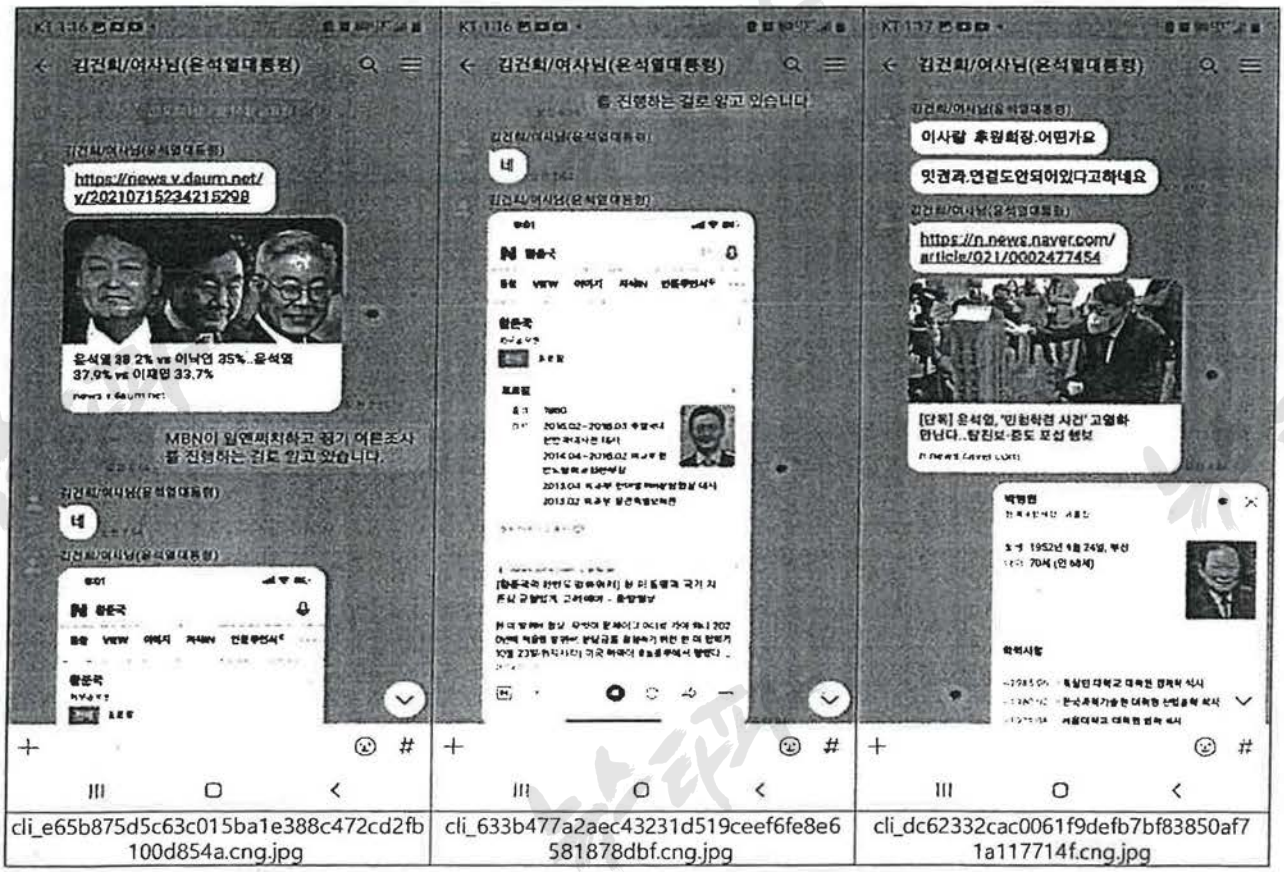
[2021. 7. 15자 SBS 「[여론조사] 이재명 25.1% 윤석열 24.5% 이낙연 12.0%」 기사 요약]

-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25.1%, 윤석열 전 검찰총장 24.5%로 오차 범위 내 접전
-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2%, 홍준표 의원 4.2%,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.8%로 뒤를 이어
-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36.9%, 윤석열 34%로 오차 범위 내 접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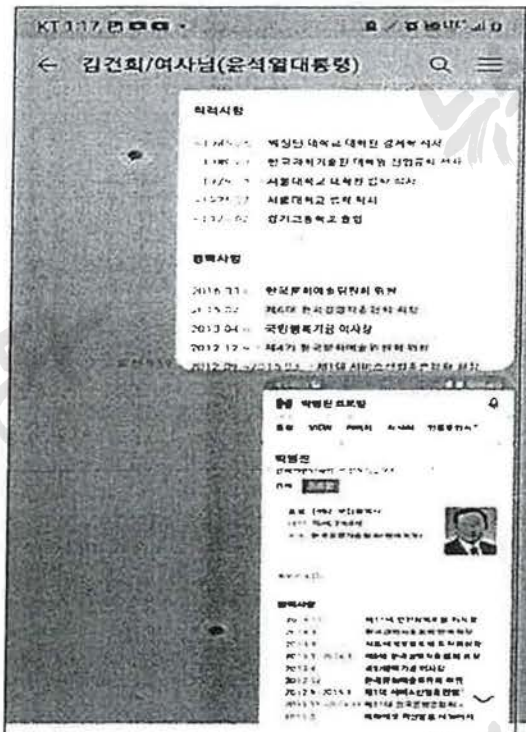
□ 2021. 7. 16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과 황준국(외무공무원), 박병원(前정무적 공무원), 최명길(前 국회의원), 신성범(現 국회의원)등을 거론하며 후원회장, 공보담당 등 인선에 대하여 논의

○ 캡쳐 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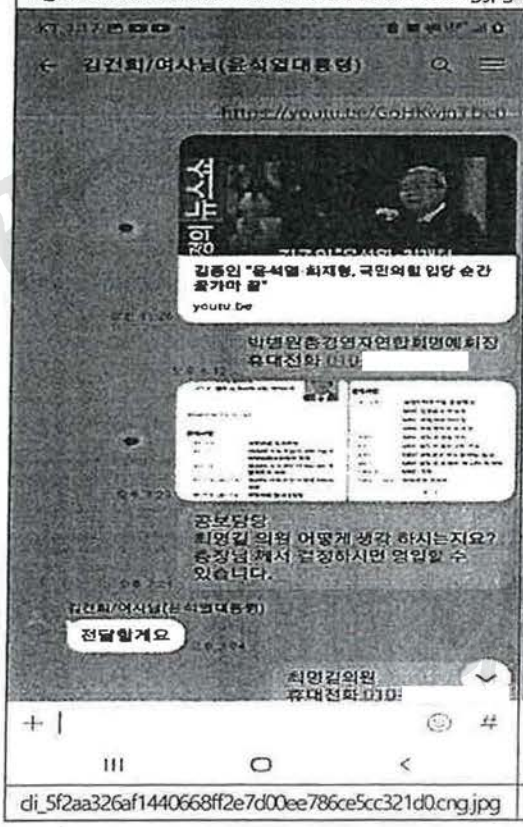


cli_e65b875d5c63c015ba1e388c472cd2fb100d854a.cng.jpg | cli_633b477a2aec43231d519ceef6fe8e6581878dbf.cng.jpg | cli_dc62332cac0061f9defb7bf83850af71a117714f.cng.jp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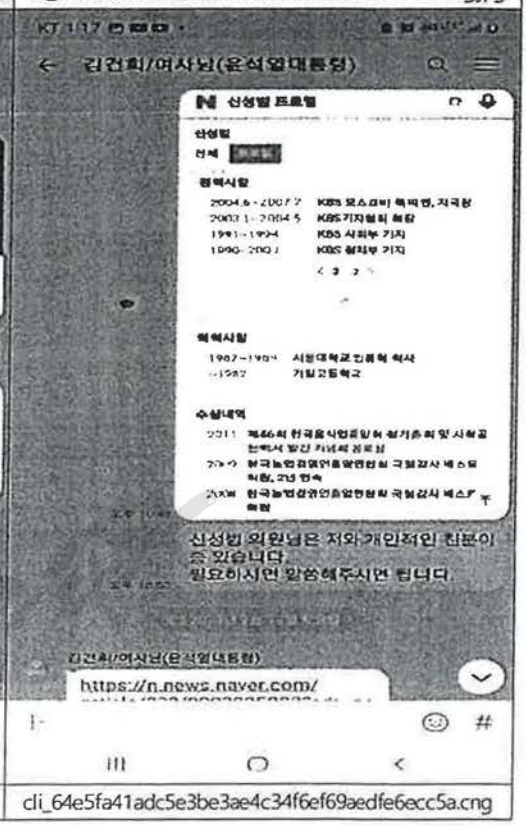


di_acf79ad7517d5b36674dfbfd19410f72dfbb2fc5.cng.jpg

di_1d9224890def896bbac2ae0d17ae526bd8b9dea0.cng.jpg



di_5f2aa326af1440668ff2e7d00ee786ce5cc321d0.cng.jpg



di_64e5fa41adc5e3be3ae4c34f6ef69aedfe6ecc5a.cn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7. 15.자 뉴스1 「윤석열 38.2% vs 이낙연 35%…윤석열 37.9% vs 이재명 33.7%」 기사 요약]
- 자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38.2%,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35%
-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 37.9%, 이 지사 33.7%
-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지사 31.9%, 이낙연 전 대표 25.5%

[2021. 7. 7자 문화일보 「[단독] 윤석열, '민청학련 사건' 고영하 만난다…탈진보·중도 포섭 행보」 기사 요약]
-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8일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을 만나 진보 및 중도 확장 행보를 시작
- 전날 탈원전 비판으로 보수 결집을 시도한 데 이어, 민청학련 사건 인사와의 만남을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섬
- 당분간 국민의힘 입당을 늦추고 중도 및 진보 인사들과의 교류로 지지층 확대 전략을 구상

[2021. 7. 16자 연합뉴스 「김종인 "尹 비전없고 崔 막연…김동연은 현실인식 잘돼"(종합)」 기사 요약]
-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
- 윤 전 총장이 지지율 향상을 위해 본인의 특색을 드러내고, 서포트 팀 구성이 시급하다고 조언
-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,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현실 인식이 잘 되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

□ **2021. 7. 17. ~ 2021. 7. 19.자 대화 내용**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언론보도를 보내면서 왜 이러는 것인지 물어보자, 명태균이 '빨리 입당 하라고, 아직 어려서 그렇다'라고 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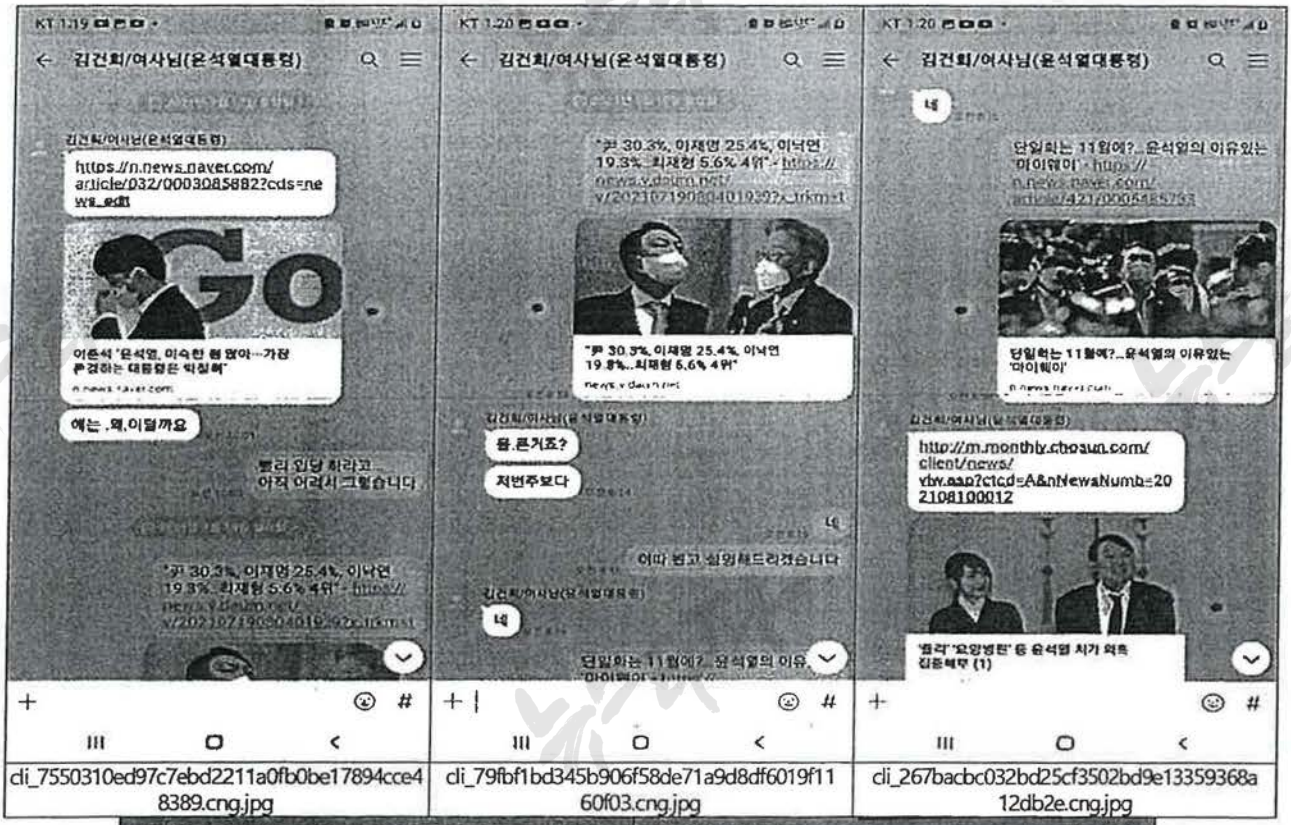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여론조사 결과 관련 언론보도를 보내자, 김건희 여사가 '지지율이 오른 건지' 물어보고, 이에 **명태균이 '직접 뵙고 설명하겠다'**라고 말함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'**윤석열 대통령이 물어본 임태희(前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특별고문)는 초기에 중책을 맡기에 좋은 사람**이다'라고 말함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도착시간을 물어보자, 명태균이 '**10시 50분에 아크로비스타 도착 예정**'이라고 말함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MBC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'걱정할 필요가 없다'라고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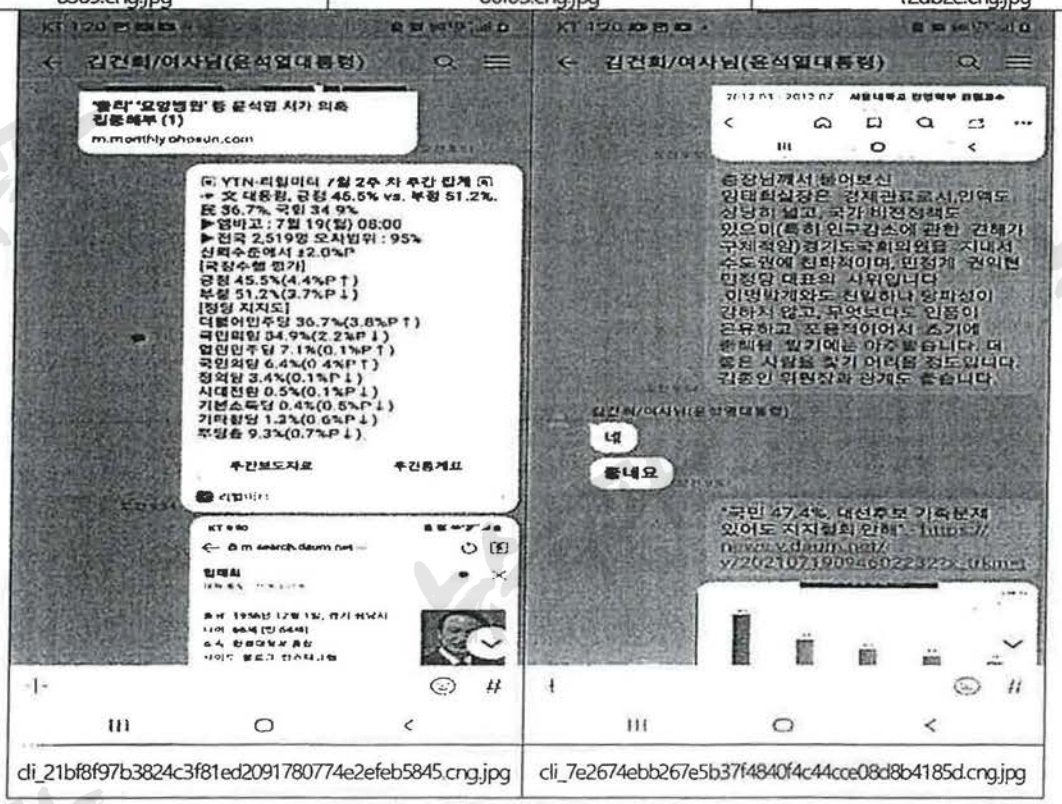
○ 캡쳐 사진



cli_7550310ed97c7ebd2211a0fb0be17894cce48389.cng.jp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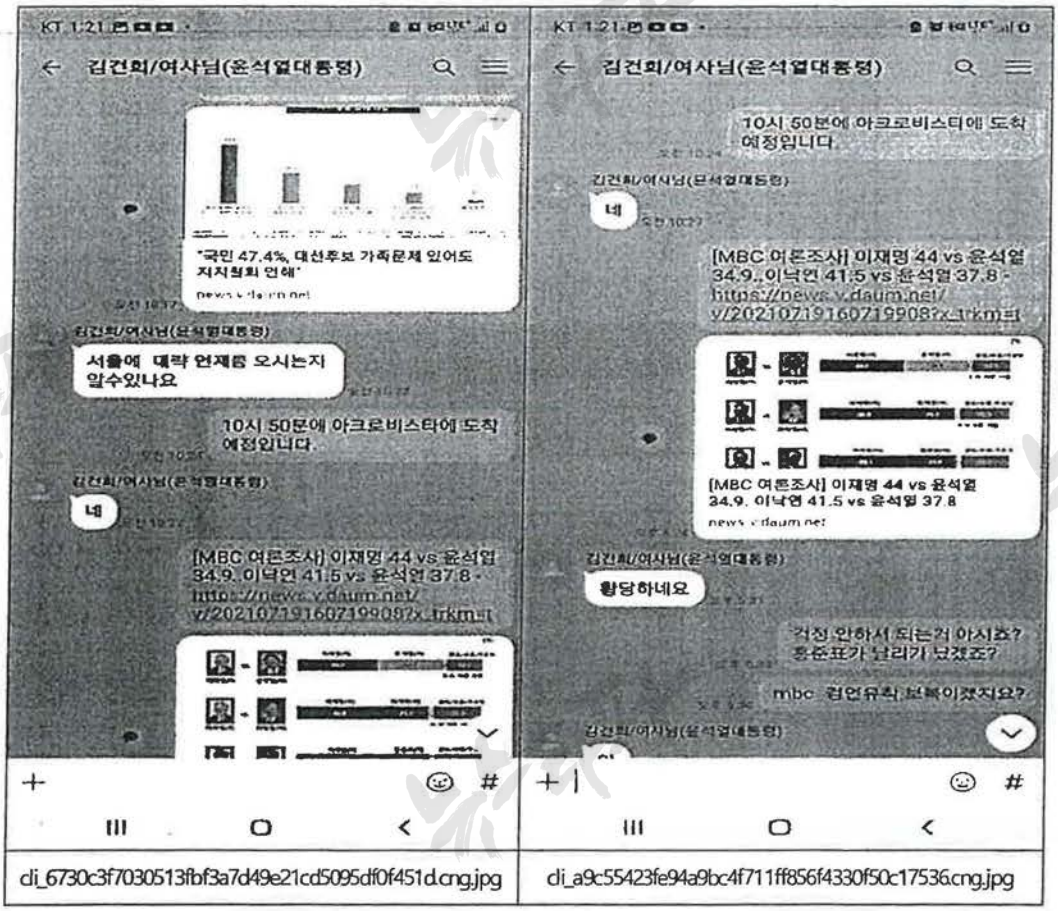
cli_79fbf1bd345b906f58de71a9d8df6019f1160f03.cng.jpg

cli_267bacbc032bd25cf3502bd9e13359368a12db2e.cng.jpg



cli_21bf8f97b3824c3f81ed2091780774e2efeb5845.cng.jpg

cli_7e2674ebb267e5b37f4840f4c44cce08d8b4185d.cng.jpg

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7. 16.자 경향신문 「이준석 "윤석열, 미숙한 점 많아…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박정희"」 기사 요약]

-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"선거 경험이 없어 미숙한 점이 많다"고 지적, 지지자 요구를 파악하면 메시지가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평가
-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으며, 경제발전을 선도한 점을 높게 평가했으나 독재로 흐른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언급
-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·일 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하며, 관계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

[2021. 7. 19.자 연합뉴스 「"尹 30.3%, 이재명 25.4%, 이낙연 19.3%…최재형 5.6% 4위"」 기사 요약]

-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 30.3%, 이재명 경기지사 25.4%로 윤 전 총장이 앞섬
-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9.3%로 상승하며 윤 전 총장과 이 지사를 바짝 추격
-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5.6%로 4위,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.4%로 집계

[2021. 7. 19.자 동아일보 「단일화는 11월에?…윤석열의 이유있는 '마이웨이'」 기사 요약]
-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며 국민의힘 입당 명분이 약화되고 있음
- 여권의 강한 비판과 공세가 윤 전 총장의 지지층 결집과 중도보수층의 지지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- 윤 전 총장은 후원회장 위촉과 전국 순회 민심 탐방 등 독자 행보를 통해 대권 행보를 강화

[(입력일자 불상) 월간조선 「'쥴리' '요양병원' 등 윤석열 처가 의혹 집중해부 (1)」 기사 요약]
-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처가를 둘러싼 X파일 논란은 검증 없이 확대 재생산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
- X파일의 주요 내용은 윤 전 총장 장모와 동업자의 과거 법적 분쟁 및 미확인 설에 바탕을 둔 의혹들로 구성되어 있음
- 이와 관련한 논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하며, 구체적 자료와 검증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려는 움직임

[2021. 7. 19.자 위키리크스 「국민 47.4%, 대선후보 가족문제 있어도 지지철회 안해」 기사 요약]
- 차기 대선 후보의 가족·측근 문제가 드러나도 지지 철회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7.4%로 절반 가까이 차지
- 지지 철회 의향을 밝힌 응답자는 '지지 의사 흔들릴 것 같다' 24.6%, '다른 후보로 바꾸겠다' 15.1%
- '지지는 철회하지만 다른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'는 응답은 8.9%

[2021. 7. 19.자 MBC 「[MBC 여론조사] 이재명 44 vs 윤석열 34.9…이낙연 41.5 vs 윤석열 37.8」 기사 요약]
-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44.0%, 윤석열 전 검찰총장 34.9%로 이 지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 우세
- 이낙연 전 총리와 윤 전 총장 대결에서는 이 전 총리 41.5%, 윤 전 총장 37.8%로 오차범위 내 접전
- 여야 후보 중 누가 당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권 후보 42.6%, 야권 후보 44.8%로 야권 후보가 근소하게 앞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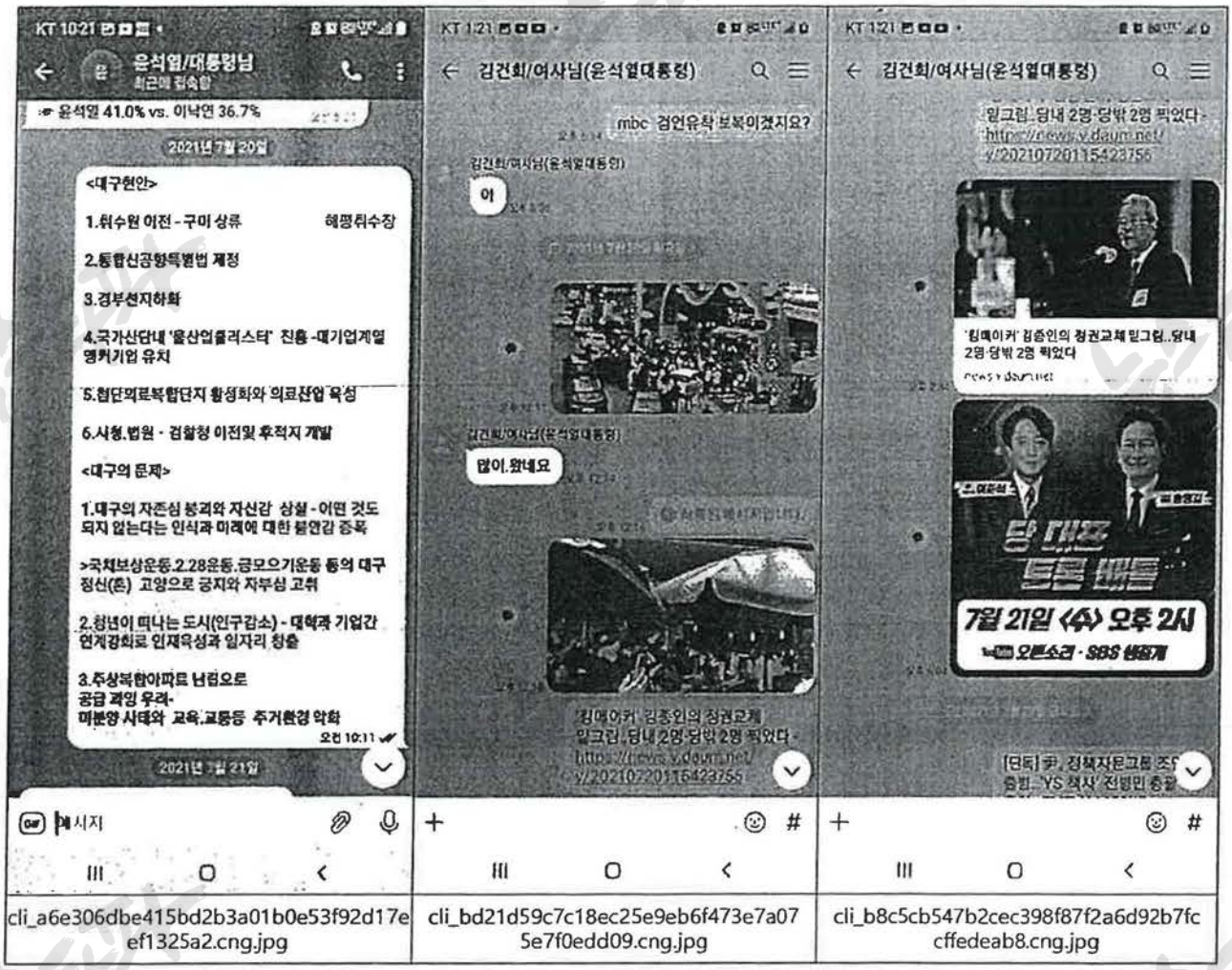
□ 2021. 7. 20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윤석열)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구 지역 현안 및 문제를 정리한 사항을 전송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유세현장 사진 및 언론보도를 보냄

※ 윤석열 대통령은 2021. 7. 20.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등 방문

○ 캡쳐 사진



cli_a6e306dbe415bd2b3a01b0e53f92d17eef1325a2.cng.jpg	cli_bd21d59c7c18ec25e9eb6f473e7a075e7f0edd09.cng.jpg	cli_b8c5cb547b2cec398f87f2a6d92b7fccffedeab8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7. 20.자 뉴스1 「'킹메이커' 김종인의 정권교체 밑그림…당내 2명·당밖 2명 찍었다」 기사 요약]

-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, 원희룡, 최재형, 김동연을 보수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평가하며 '킹메이커'로서의 역할을 본격화
-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 선출 후 11월 단일화를 통해 야권 통합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으며, 야권분열론을 일축
- 김종인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며 '킹메이커'로서의 입지를 강화

□ 2021. 7. 21. ~ 23.자 대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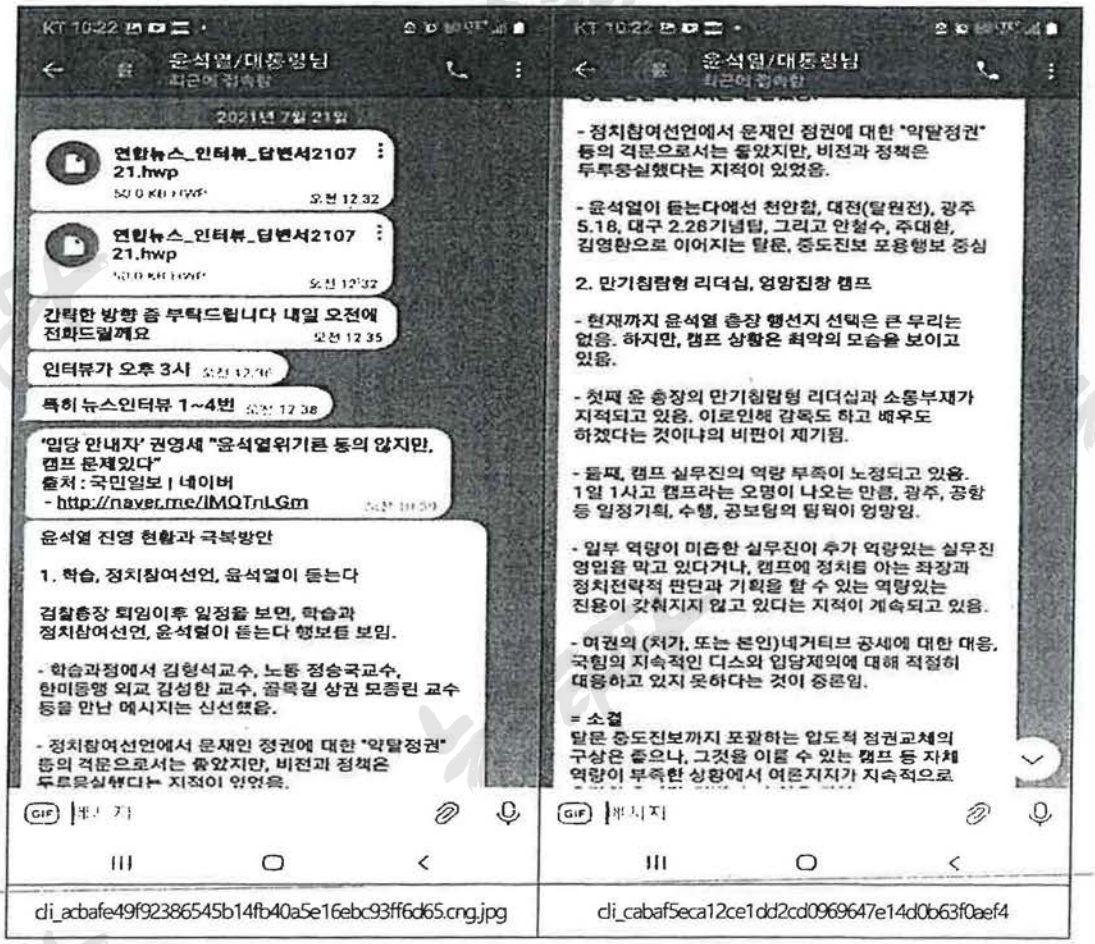
○ (명태균↔윤석열)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**"연합뉴스_인터뷰_답변서 210721.hwp" 파일을 전송하고 '간략한 방향 좀 부탁드립니다. 특히 뉴스 인터뷰 1~4번'이라고 말하면서 명태균의 의견**을 구함

- 이어서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2021. 7. 20.자 국민일보 「'입당 안내자' 권영세 **"윤석열위기론 동의 않지만, 캠프 문제있다" 언론보도**를 보내는 한편, **윤석열 캠프의 문제점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**를 보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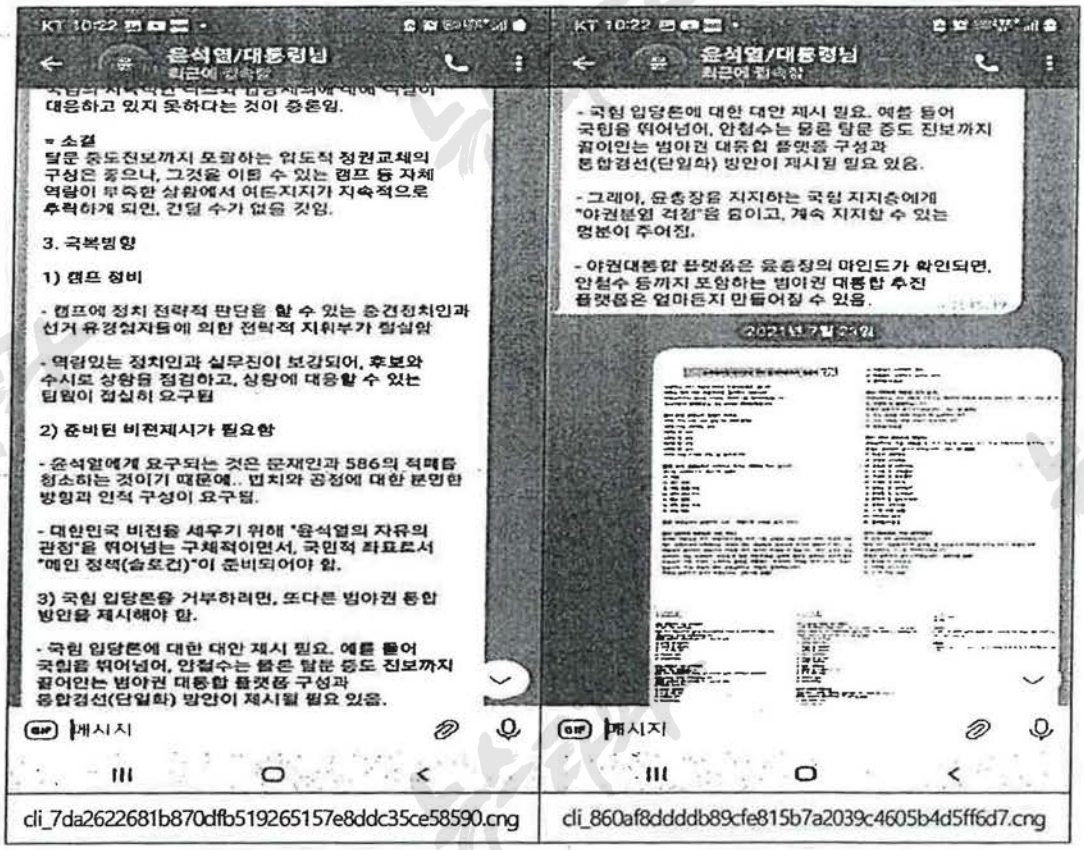
※ 시간대가 섞여 있는 점에 비추어, 중간 부분 메시지가 삭제된 것으로 추정

○ (명태균↔윤석열)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**"뉴데일리안-시사경남 1차 정기여론조사 설문지"**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냄

○ 캡쳐 사진



cli_acbafe49f92386545b14fb40a5e16ebc93ff6d65.cng.jpg | cli_cabaf5eca12ce1dd2cd0969647e14d0b63f0aef4



□ **2021. 7. 23. ~ 2021. 7. 25.자 대화 내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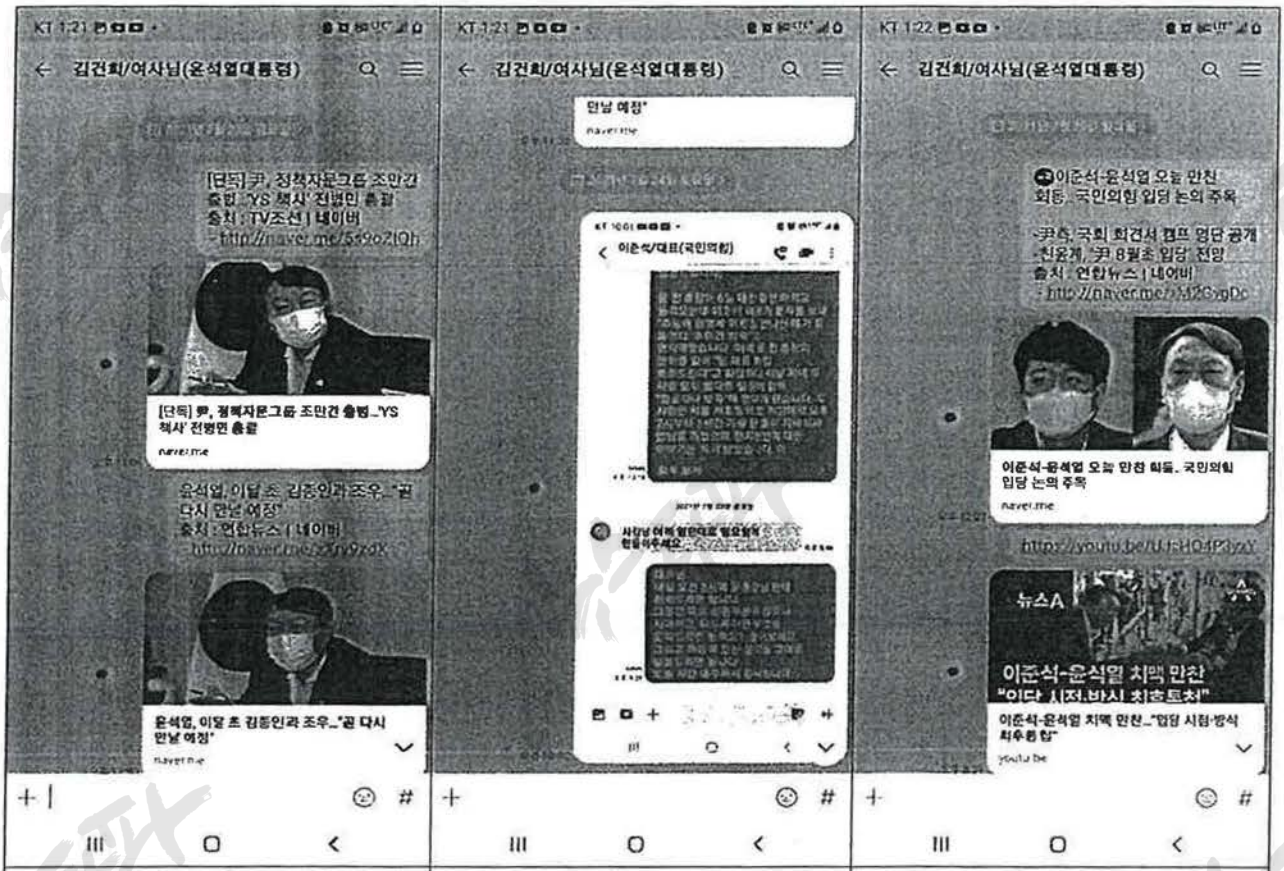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내는 한편,

- 자신과 이준석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(**이준석이 "사장님 아까 말한대로 일요일에 만들어주세요"**라고 하자, 명태균이 **"대표님, 내일 오전 8시에 윤총장님한테 전화드리면 됩니다.** 그동안 마음 상한부분이 많으니 사과하고, 되도록이면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? 물어보세요. 그리고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"라고 말함 → **2021. 7. 25.(일)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의 '치맥 회동' 관련 내용**으로 보임) 사진을 전송

※ 위 캡쳐에는 2021. 7. 6.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'이준석에게 전달해 달라'라고 부탁하였던 내용이 이준석에게 전송된 내역도 남아 있음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이후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위 '치맥 회동' 관련 언론보도를 보냄

○ 캡쳐 사진



cli_9043bda147fb7312d0cac400035aadb883867d8c.cng.jpg	cli_1654677087af4e45a935a010c86891b8824d22c0.cng.jpg	cli_424062d647446c3d9398065cb79e67401a354902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7. 23.자 TV조선 「[단독] 尹, 정책자문그룹 조만간 출범…'YS 책사' 전병민이 대선공약 종합」 기사 요약]

-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공약 구체화를 위해 약 70명 규모의 정책자문그룹을 출범, 경제·외교안보·복지 등 10여 개 분과로 구성
- 전병민 전 정책수석이 정책자문그룹을 총괄하며, 외교안보는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주도, 경제와 복지 분과에는 김소영 서울대 교수와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참여
- 외교안보 방향은 한미동맹 강화와 북중에 대한 당당한 태도를 표방, 복지정책은 현금보다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방향

[2021. 7. 23.자 연합뉴스 「윤석열, 이달 초 김종인과 조우…"곧 다시 만날 예정"」 기사 요약]
- 윤석열 전 총장이 이달 초 자택 인근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우연히 만남, 김 전 위원장과의 본격적인 만남을 계획 중이라고 언급
- 윤 전 총장이 정책 그룹을 구성 중이며, 외교는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과 박철희 서울대 교수, 경제는 김소영·안상훈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
- 정책 고문으로 전병민 전 정책수석을 둘 예정이며, 전 씨는 과거 송진우 선생 암살 사건 연루 논란으로 정책수석에서 물러난 이력이 있음

[2021. 7. 25.자 연합뉴스 「이준석-윤석열 오늘 만찬 회동…국민의힘 입당 논의 주목」 기사 요약]
- 윤석열 전 총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5일 만찬 회동을 예정, 윤 전 총장의 입당이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
- 윤 전 총장은 처가 리스크와 네거티브 대응을 위해 법률팀을 구성 중이며, 캠프 명단 일부 공개와 후원금 모금 준비 등도 진행 중
- 국민의힘 내 친윤계는 윤 전 총장의 8월 초 입당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, 캠프 측은 최종 결정은 본인 판단에 달렸다며 유보적 입장

[2021. 7. 25.자 채널A 「이준석-윤석열 치맥 만찬…"입당 시점·방식 최후통첩"」]
-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입당 시점을 놓고 비공개 '치맥 회동'을 진행 중이며, 방역 수칙상 배석자 없이 논의 중
- 이준석 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윤 전 총장에게 입당 시점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최후통첩을 할 계획,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전까지 명확한 입장을 요구
- 윤 전 총장은 입당 여부를 즉시 결정하지는 않겠으나, 정권교체에 뜻을 함께하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의향을 밝혀, 회동 후 입당 가능성을 열어놓는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

□ 2021. 7. 26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 서로 언론보도를 주고받음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진중권과 이준석의 토론 관련 언론보도를 보내자 김건희 여사가 '무슨 의미인지' 물어보고, 명태균은 '내일 이준석을 직접 만나 답을 듣겠다'라고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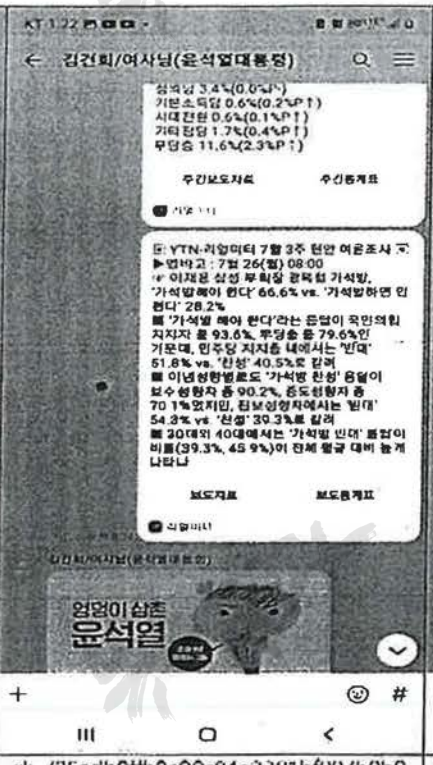
○ (명태균↔김건희) 한편,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'**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 달라**'라고 말하자, 명태균이 '**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을 걱정해서 그러는 것**이다'라고 답함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'세계일보 문제는 해결되었는지' 물어보자, 명태균이 '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끝났다'라고 말함

※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당을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 세계일보 측에서 '지지 선언을 하였다'라는 취지로 오보를 한 것으로 추정

○ 캡쳐 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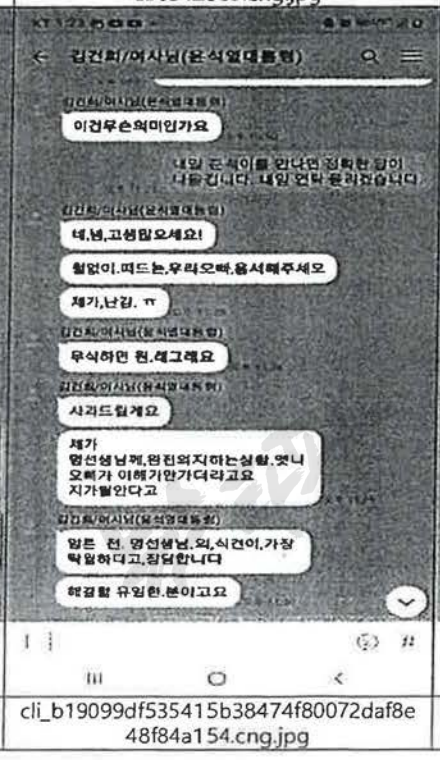
cli_11a00165282169fc6f89611be79f3f063f124ab36.cng.jpg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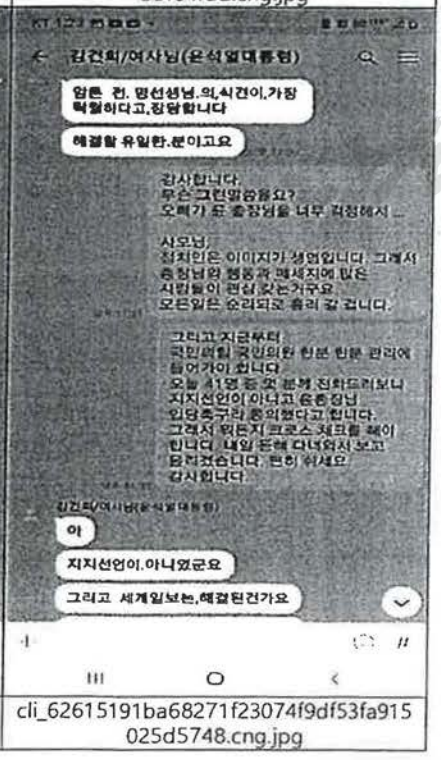
cli_/25adb9ffb9c99c84a2381bf99/b0b9c36342385.cng.jpg

cli_dc1a9ec6ed16e71e6f03f42f5bf9a78595f64fdd.cng.jp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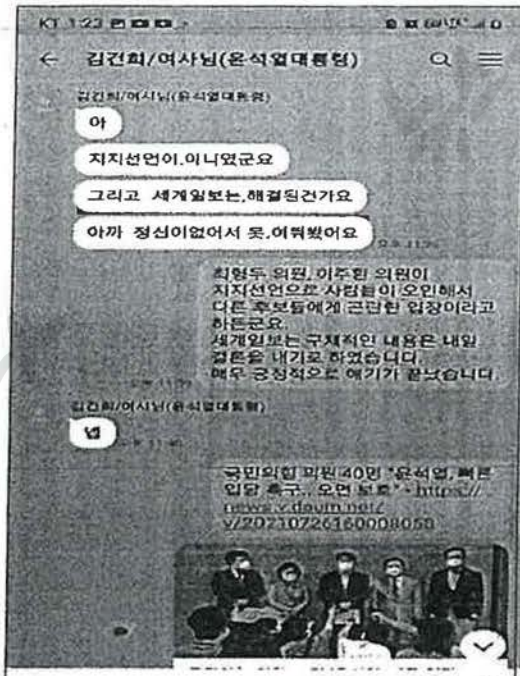
cli_3f18e586ac15e3a4193d7d11b986367f6a980008.cng.jpg



cli_b19099df535415b38474f80072daf8e48f84a154.cng.jp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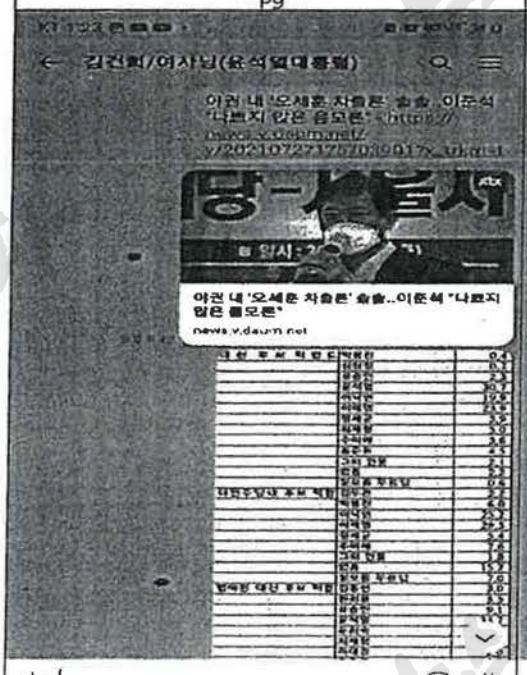


cli_62615191ba68271f23074f9df53fa915025d5748.cng.jpg



cli_54644c61afc34d4155346913c2e9db46370d768e.cng.jpg

cli_660f08ff01eb8b2e1d8002c1d25517ae06a884b3.cng.jpg



cli_879a174bf2150158ac667acb0ad07f336bc1d178.cng.jpg

cli_1fe38287da408ffcb3c1e6a05d39dda781687de3.cn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7. 25.자 파이낸셜 뉴스 「이준석 만나 '입당' 거리 좁힌 尹..오세훈 '3인 번개'는 급취소」 기사 요약]

-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결정을 앞두고 "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"며 입당 가능성을 시사했고, 이준석 대표는 두 사람의 정치적 방향성이 "대동소이"하다고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평가
- 회동 후 이 대표는 윤 전 총장 캠프의 인선이 국민의힘 철학과 유사하다며 입당 관련 불확실성이 절반 이상 해소됐다고 밝혔고, 윤 전 총장도 "정권교체를 하겠다"며 결의를 표명
- 두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번개 만남을 추진했으나, 방역 수칙을 고려해 취소하고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설명

[2021. 7. 26.자 동아일보 「尹측 "이낙연 아내 그림 공공기관이 구입, 적절한가"…첫 검증 공세」 기사 요약]

-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이낙연 전 대표의 아내 김숙희 씨의 미술 작품이 공공기관과 기업들에 의해 고가로 구매된 점을 문제 삼으며, 이 전 대표의 영향력에 의한 의혹을 제기
- 이 의혹은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사 '코바나컨텐츠'가 받았던 의혹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, 윤 전 총장 법률팀은 김 씨의 첫 전시회에서 전남도시개발공사가 김 씨의 작품을 구매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지적.
- 법률팀은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는 결혼 전과 윤 전 총장의 좌천 시절에도 지속적으로 열려왔으며, 기업들의 입장권 구매는 사회공헌과 직원 복지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함.

[2021. 7. 26.자 연합뉴스 「尹측, 이낙연 부인 '그림 판매' 의혹 제기」 기사 요약]

-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부인 김숙희 씨의 미술 작품 판매 의혹을 제기하며, 김 전 총리 부부가 전남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에 의해 그림을 판매한 것을 문제 삼음
- 코바나컨텐츠가 윤 전 총장과 결혼 전부터 전시회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대기업 협찬금 수수 의혹은 근거 없다고 주장하며,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리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되었다고 강조함
- 캠프 법률팀은 여야 모두 동일한 검증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며, 시민단체와 언론 역시 동일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'보험용 뇌물' 비난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함

[2021. 7. 27.자 조선일보 「진중권 "윤석열 중도 포기한듯" 비판에... 이준석 "좋아질 것" 엄호」 기사 요약]

-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입장을 두고 의견차를 보였으며, 진씨는 윤 전 총장이 중도를 포기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으나,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개선될 것이라고 반박
- 진씨는 윤 전 총장의 '주 120시간 노동'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유 지상주의적 사고를 우려했으나,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이 단순 말실수에 불과하다고 옹호
-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차출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선을 그으면서도, 야권 경선 흥행 요소로 언급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

[2021. 7. 26.자 오마이뉴스 「국민의힘 의원 40명 "윤석열, 빠른 입당 촉구... 오면 보호"」 기사 요약]

- 국민의힘 현역 의원 40명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, 당 경선에 참여해 공정한 기회를 받을 것을 요청함
- 권성동 의원은 이번 성명이 윤 전 총장 지지보다는 입당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, 최근 '치맥 회동'을 통해 긍정적 대화가 진행된 점을 언급
- 성명서 발표 후 당내 계파 형성 우려에 대해 권 의원은 대권 경쟁 국면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이며, 계파 형성과는 다르다고 반박함

[2021. 7. 27.자 JTBC 「야권 내 '오세훈 차출론' 솔솔…이준석 "나쁘지 않은 음모론"」 기사 요약]

- 야권 내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위기에 처할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'오세훈 차출론'이 회자되고 있음
- 오 시장은 대선 출마에 대해 명확히 불출마 입장을 밝혔으나, 이준석 대표는 차출론이 경선 흥행 요소로서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하며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
- 국민의힘 대전시당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의 윤 전 총장 입당 재촉 등을 비판하며 일방적 공세를 펼치고 있으나, 이 대표는 이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징계 가능성을 시사함

□ **2021. 7. 28. ~ 2021. 7. 29.자 대화 내용**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재명을 앞질렀다는 언론보도를 보내는 한편,

- 2021. 7. 28.자 **뉴데일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 보이는 자료를 보내면서 "내일 오후에 공표될 예정입니다. 보안유지 부탁**드립니다."라고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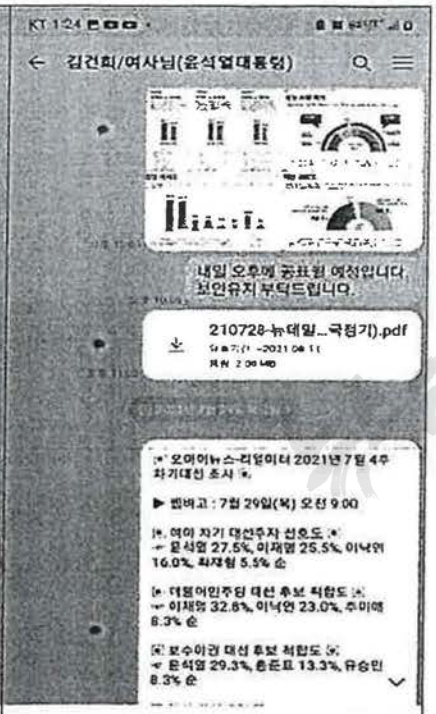
※ 위 여론조사 결과 관련 언론보도는 2021. 7. 29.자 뉴데일리 「[뉴데일리 여론조사] 윤석열 32.1%, 이재명 25.7%, 이낙연 18.8%... 최재형 5.7%, 첫 4위」로 보이고, **뉴데일리와 시사경남 의뢰로 PNR이 실시**한 여론조사임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의 부산 방문시 이한열이 새겨진 1987년 6월 항쟁 기념 조형물을 보고 '1979년 부마항쟁이냐'라고 물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하여, '미리 방문하는 곳 학습이 필요하다'라고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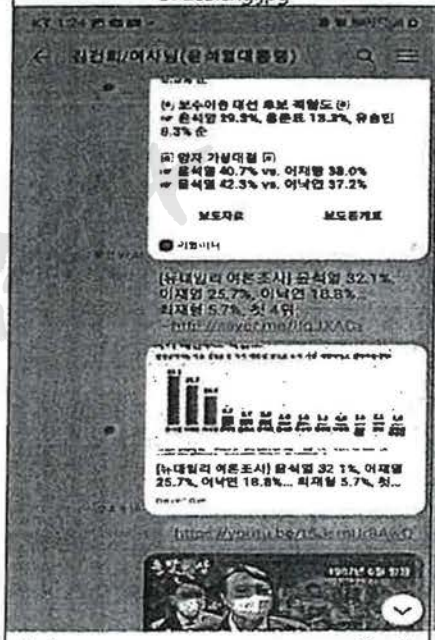
○ 캡쳐 사진

cli_1fe38287da408ffcb3c1e6a05d39dda781687de3.cng.jpg

cli_c53e4916c9c2fa63aa0bbba8c478e9e1e4585d6b.cng.jpg



cli_a9be73b4364291e03987581d3cb98fdc453d5b60.cng.jpg



cli_8888eb176524b86ed4ede38fd9772f28c6c650e5.cng.jpg

cli_319d8c979570f0edd7db3b288268d4752f4bfca7.cng.jpg

cli_f0844f4d4d12a24233633dfeed2c9df03ee4242e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7. 28.자 JTBC 「윤석열, 양자대결서 이재명 다시 앞질렀다…41.1% vs 36.9% | 한길리서치」 기사 요약]

- 한길리서치의 쿠키뉴스 의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41.1%로, 이재명 지사(36.9%)를 4.2%p 차이로 앞섰음
- 윤 전 총장은 보수층과 60대 이상 고령층, 이 지사는 진보층과 30~40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음
- 다른 후보들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윤 전 총장이 이낙연 전 대표에 41.4% 대 33.7%로 앞섰고,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윤 전 총장 29.8%, 이 지사 23.7%로 나타남

[2021. 7. 29.자 뉴데일리 「[뉴데일리 여론조사] 윤석열 32.1%, 이재명 25.7%, 이낙연 18.8%… 최재형 5.7%, 첫 4위」 기사 요약]

- 뉴데일리와 시사경남 의뢰, PNR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이재명 지사를 6.4%p 차이로 앞섬 (32.1% 대 25.7%)
-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윤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(48.7% 대 42.0%)와 이낙연 전 대표(49.0% 대 43.4%)를 모두 앞섰음
- 정권교체를 바라는 응답은 50.9%로, 여당 재집권을 희망하는 응답 43.1%보다 높았음

□ 2021. 7. 31.자 대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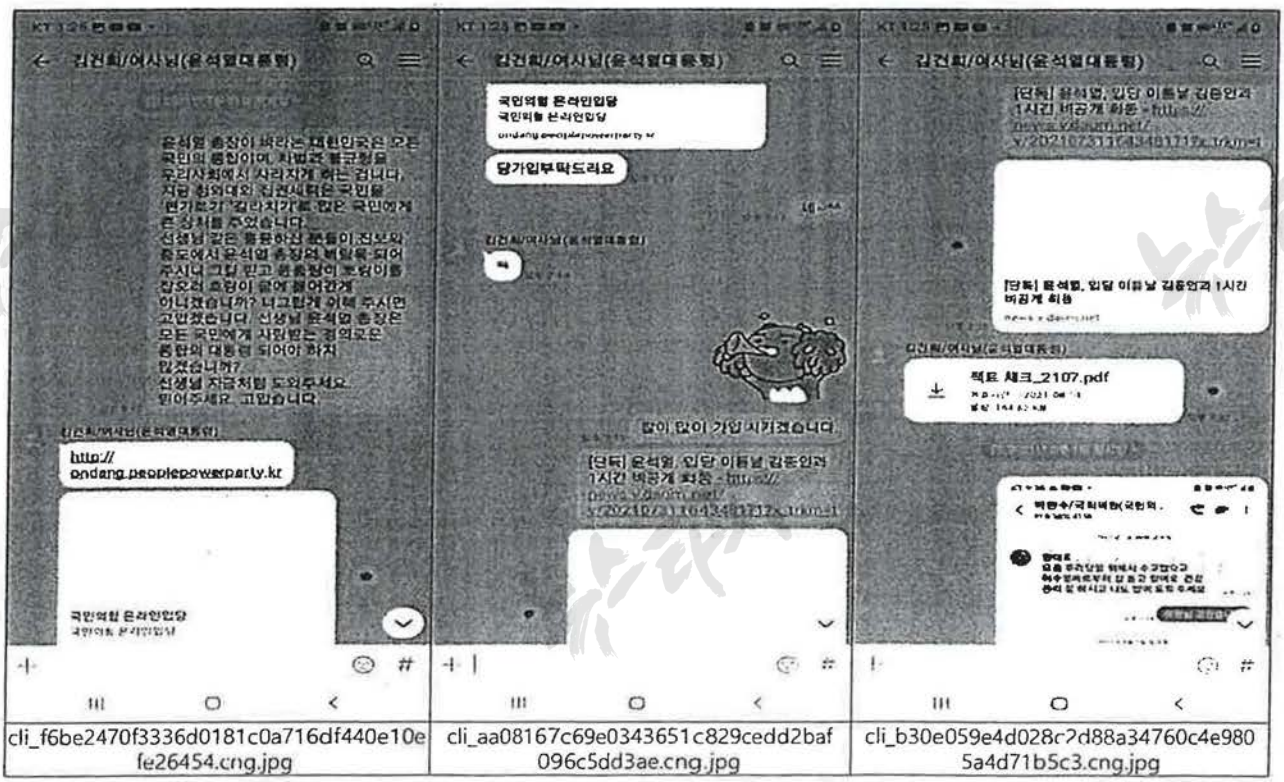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, 다른 사람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호소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글을 전송하고,

-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국민의힘 온라인입당 링크를 전송하고 '당원 가입을 부탁한다'라고 하자 명태균이 "네~^^", "많이 많이 가입시키겠습니다."라고 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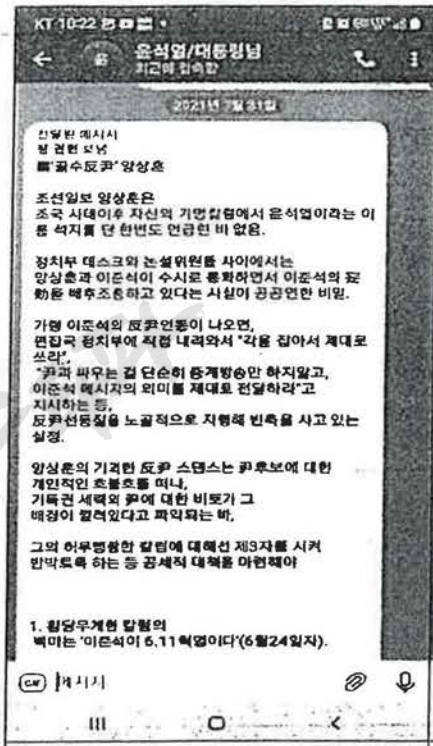
○ (명태균↔윤석열) 윤석열 대통령이 정현권으로부터 받은 '골수 반윤 양상훈(조선일보 주필)' 글을 명태균에게 전달하고, **김종인의 주소를 물어보자 명태균이 '(경희궁 아침) 호입니다'라고 말함**

- 아울러 **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'박완수(現 경남도지사)는 윤한홍과 라이벌 관계이고, 전화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준다고 할 것이다'라고 말하면서 박완수의 연락처를 전달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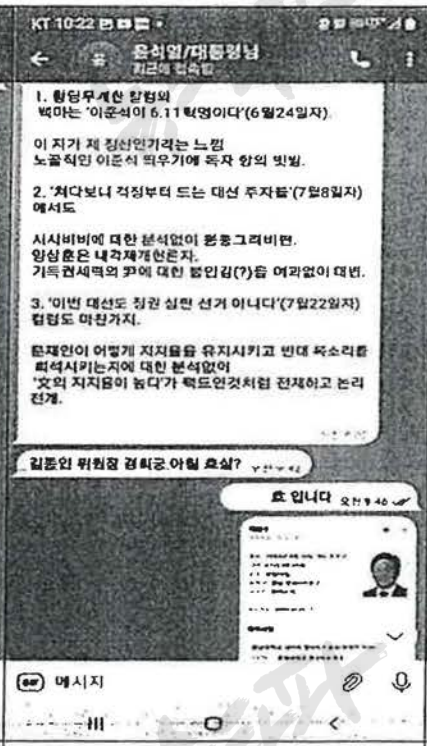
○ 캡쳐 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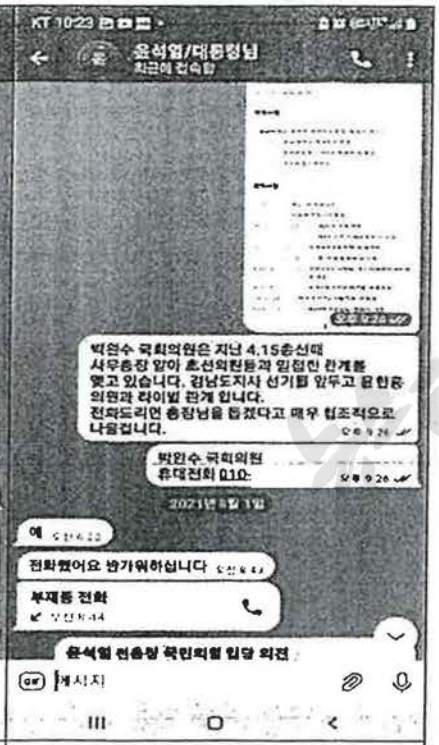
cli_f6be2470f3336d0181c0a716df440e10efe26454.cng.jpg | cli_aa08167c69e0343651c829cedd2baf096c5dd3ae.cng.jpg | cli_b30e059e4d028c?d88a34760c4e9805a4d71b5c3.cng.jpg



cli_2471a05848b95c8a6000e8159bbc18dd8ae37e29.cng.jpg



cli_9027e214fd5346db2f037e51890f1aabbfee560c.cng.jpg



cli_9ca8f4c1082fec8f87b2a1fe4d88e5c2c9e51a8a.cn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7. 31.자 조선일보 「[단독] 윤석열, 입당 이튿날 김종인과 1시간 비공개 회동」 기사 요약]

-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다음 날인 31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선 전략을 논의함
- 윤 전 총장은 조기 입당 배경을 설명했고, 김 전 위원장은 입당 이후 대응에 대해 조언함
-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조기 입당을 경선 버스론에 대한 화답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

□ **2021. 8. 1.자 대화 내용**

○ (명태균↔윤석열)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**'(박완수에게) 전화했고, 반가워하더라'**라고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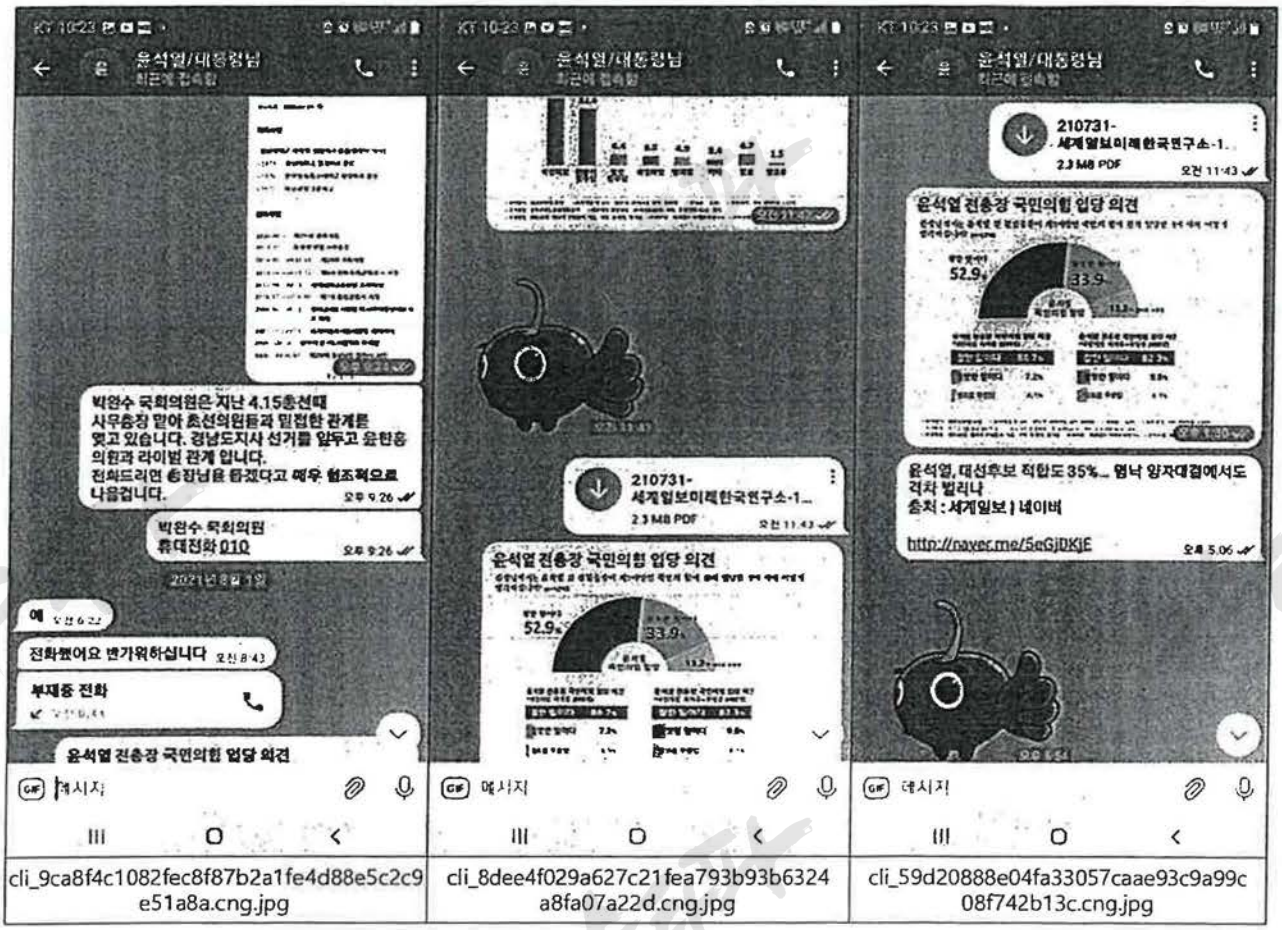
- 이어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**'윤석열 전총장 국민의힘 입당'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하자, 윤석열 대통령이 '체리따봉'**을 보냄

- 그로부터 약 5시간 뒤 명태균이 **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언론보도를 보내자,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'체리따봉'**을 보냄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에게 언론보도를 보낸 후, **자신과 박완수가 나눈 메시지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**을 전송하고, **여론조사 결과 관련 언론보도**를 전송

※ 캡쳐 대화내용 : 박완수가 명태균에게 "명대표, 우리 당을 위해서 수고많다고 이수영씨로부터 잘듣고있어요 건강관리 잘하고 나도 많이 도와주세요.", "윤총장 전화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", "열심히 할게요. 같이 합시다."라고 말하는 내용

○ 캡쳐 사진



cli_9ca8f4c1082fec8f87b2a1fe4d88e5c2c9e51a8a.cng.jpg	cli_8dee4f029a627c21fea793b93b6324a8fa07a22d.cng.jpg	cli_59d20888e04fa33057caae93c9a99c08f742b13c.cng.jpg

(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)

cli_d3fca58029c5f3a40ee2d242b33cd8ef64e0b671.cng.jpg	cli_d4d6ef0106962316350eae08ba1a230fd9298523.cng.jpg	cli_769ca00f7a9d603d72ed69bf9062d92a110faabf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8. 1.자 세계일보 「윤석열, 대선후보 적합도 35%… 명낙 양자대결에서도 격차 벌리나」 기사 요약]

- 세계일보·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PNR 리서치가 7월 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35.3%로 1위를 차지했고, 이재명 지사는 23.2%, 이낙연 후보는 16.0%를 기록함
-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2.9%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, 제3당 선호층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높았음
-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27.8%로 1위,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윤 전 총장이 38.5%로 선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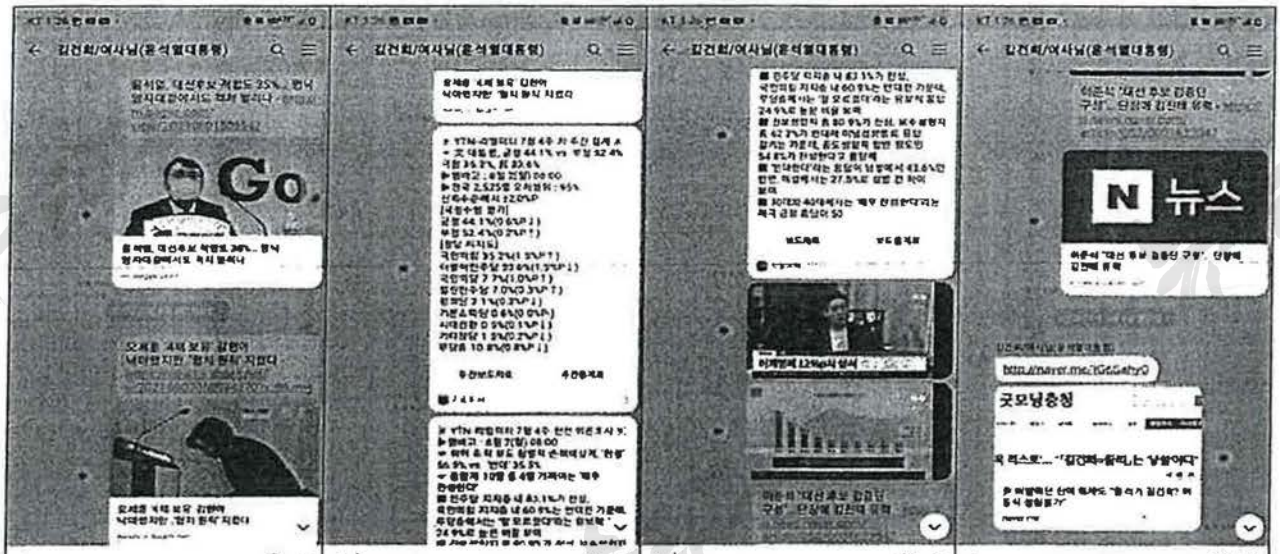
[2021. 8. 1.자 연합뉴스 「尹, 금태섭과 어제 '소주번개'…尹측 "정권교체 의기투합"」 기사 요약]

-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7월 31일 금태섭 전 의원과 저녁 식사를 하며 정국 현안을 논의
- 이번 만남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외연 확장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됨
- 캠프 측은 "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위한 정권 교체" 의지를 공유했다고 밝힘

□ 2021. 8. 2. ~ 2021. 8. 3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가 언론보도들을 서로 전송

○ 캡쳐 사진



cli_b4992a692f441232632541039 58fefb8b09428bd.cng.jpg	cli_ba96094d97414bc9440d2e 8427b9b9958fc6eac5.cng.jpg	cli_423f0783094f7ae60117cac ceb513b25aaba1999.cng.jpg	cli_a6da42e005e3a9e95ef89a4 9d87d2d7ac05c9148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8. 2.자 뉴스1 「'4채 보유' 김현아 낙마했지만…오세훈 '협치·원칙' 지켰다」 기사 요약]

-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(SH) 사장 후보자는 부동산 4채 보유 논란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으며 자진 사퇴했으며,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수용해 향후 인사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명분을 확보
- 서울시의회는 김 후보자를 '부적격'으로 판단했으며, 오 시장은 주요 산하기관 인사에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짐
- SH 사장 공석으로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, 서울시는 빠른 임명을 위해 적합한 후보자를 물색 중

[2021. 8. 3.자 조선일보 「尹 비방하던 친여 매체도 "쥴리가 김건희? 이 등식 성립불가"」 기사 요약]

-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'쥴리 접대부' 의혹이 친여 매체 보도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으로 반박됨
- 굿모닝충청과 한겨레 등 진보 성향 매체들은 호텔 관계자 발언과 다이어리 기록을 인용해 '김건희=쥴리'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도
- 기존 접대부설과 다르게 김건희 씨는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과 골프 및 명절 선물 관계였으며, 접대부설을 뒷받침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전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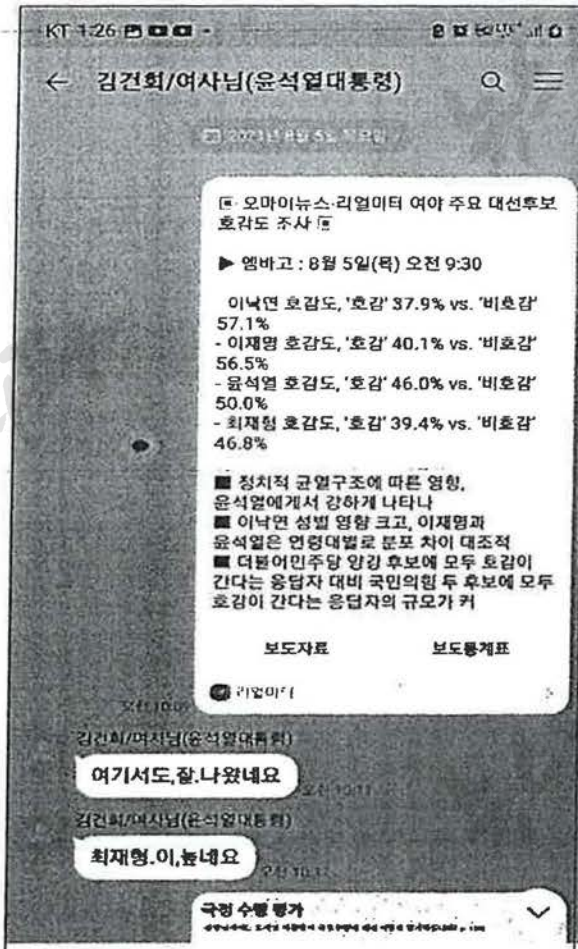
□ 2021. 8. 5. ~ 2021. 8. 6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윤석열)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**'도리도리' 현상의 원인이 부동시로 인한 행동장애가 습관화된 것 같다**고 말하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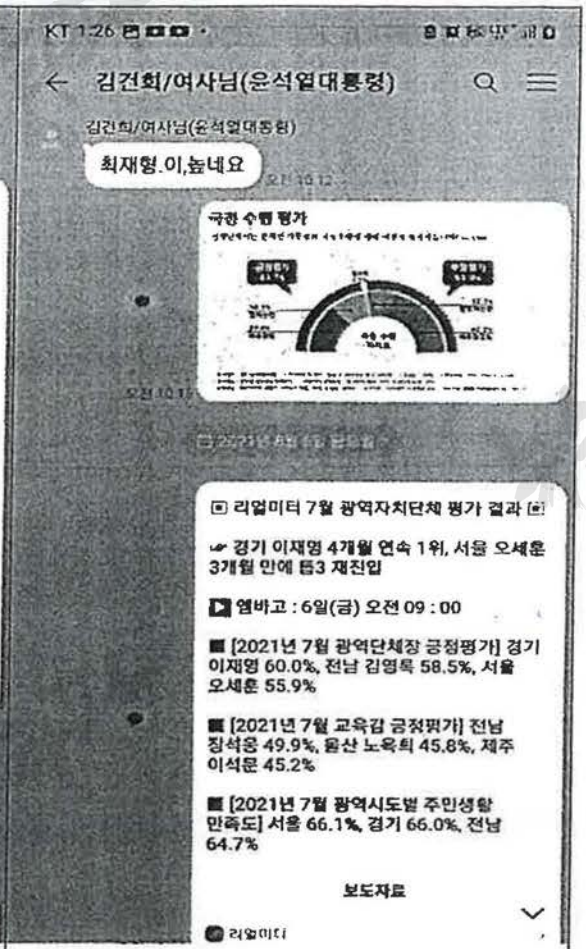
-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'도리도리 현상'을 말하라며 권유하며, '누군가와 저녁을 하기로 했다'라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'잘했다'라고 말함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를 전송

○ 캡쳐 사진



cli_b6c5e12e05d9f4b482bb4b01233ddaced71d847a.cng.jpg



cli_4b3cb41aed2ffdcad131b7a6de2379e0a287a406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8. 5.자 SBS 「윤상현, 국민의힘 복당‥총선 탈당파 복귀 완료」 기사 요약]

- 국민의힘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했던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 37명의 일괄 복당을 의결
- 윤상현 의원의 복당으로 홍준표, 권성동, 김태호 등 '총선 탈당파' 4명이 모두 국민의힘으로 복귀
- 이준석 대표는 "범야권 대통합을 위한 일괄복당 신청 기간을 두겠다"며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일괄 복당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공언

[2021. 8. 4.자 경남신문 「윤한홍 의원 "내년 6월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"」 기사 요약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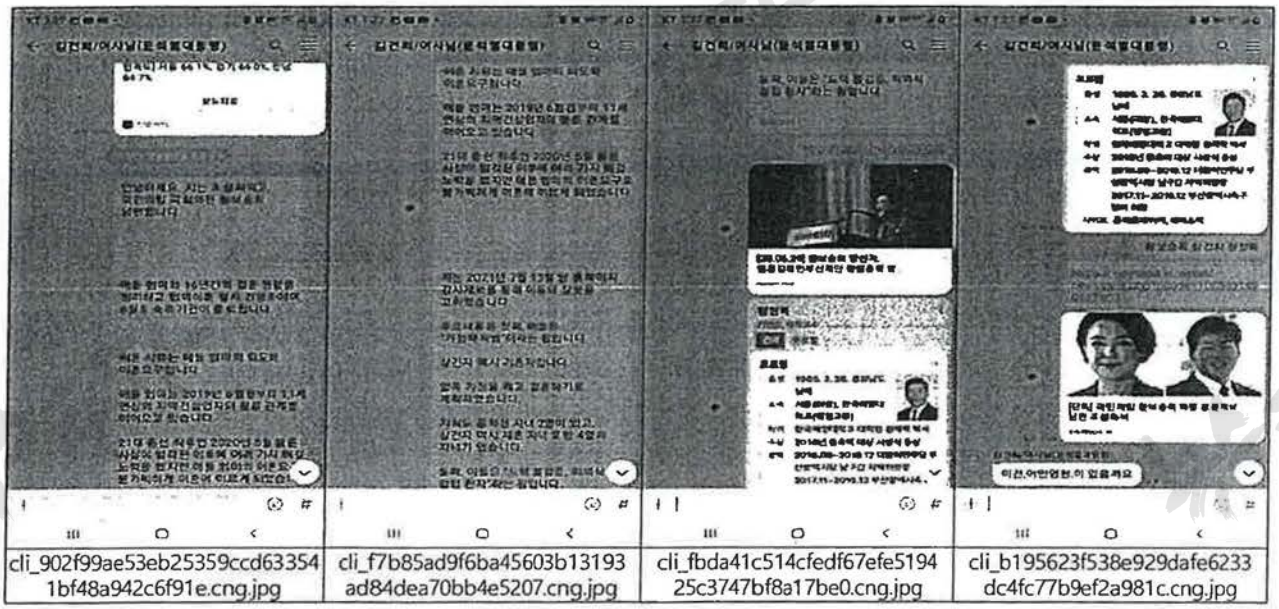
-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(창원 마산회원구)이 내년 6월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하며 경선 참여를 강조
- 윤 의원은 "현역 국회의원을 배제하지 말고 도민이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"며 경남 경제 회복과 지역 인재 육성 필요성 언급
- '동남권메가시티' 구상에 대해 "행정통합 없이 현실성 없다"며 비판, 경남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

□ 2021. 8. 7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황보승희(前 국회의원) 남편이 보낸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고, 블로그 글과 언론보도들을 전송하자, 김건희 여사가 '어떤 영향이 있을지' 물어봄

※ 황보승희 의원의 외도 및 이혼요구로 이혼하게 되었고 감사 제보하였다는 내용

○ 캡쳐 사진



cli_902f99ae53eb25359ccd633541bf48a942c6f91e.cng.jpg | cli_f7b85ad9f6ba45603b13193ad84dea70bb4e5207.cng.jpg | cli_fbda41c514cfedf67efe519425c3747bf8a17be0.cng.jpg | cli_b195623f538e929dafe6233dc4fc77b9ef2a981c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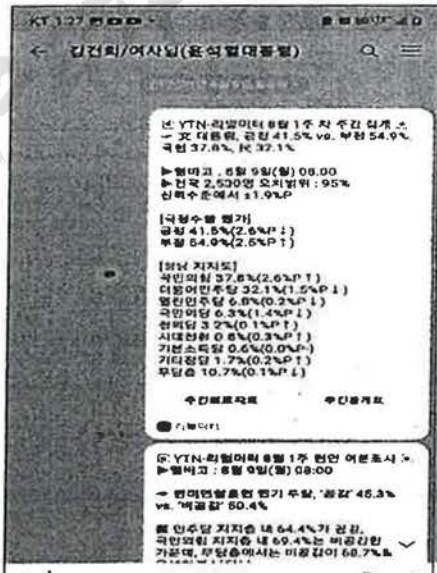
[2021. 8. 7.자 시사타파 「[단독]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불륜제보 남편 조성화씨」 기사 요약]

-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남편 조성화 씨, 외도 및 이혼 요구로 협의이혼 절차 중이라며 공개 입장 발표
- 조 씨는 황 의원과 상대 남성 정정복 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, 국민의힘 측에 비위 관련 조치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비판
- 당 대표 이준석의 책임 방임을 비난하며, 공당의 책임감 부족을 언급하며 언론의 도움 요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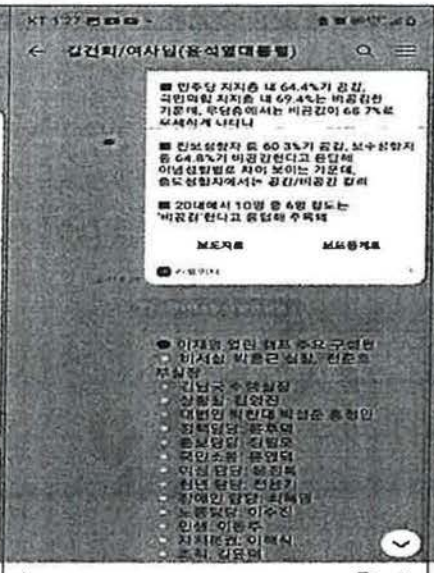
□ 2021. 8. 9. ~ 2021. 8. 12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재명 열린 캠프 구성원, 자료 등을 전송하고, <u>뉴데일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</u>하고, 김건희 여사로부터 '잘 된 건가요'라는 질문을 받자 '괜찮다'라고 말함

○ 캡쳐 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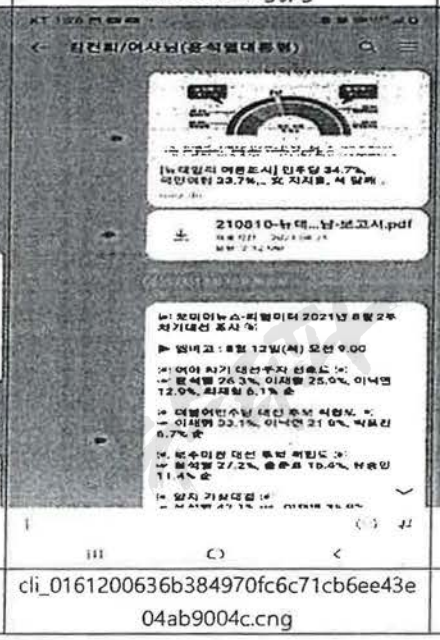
cli_19dd93a26946ce67cdc55af2aff4d4e5e9b89931.cng.jpg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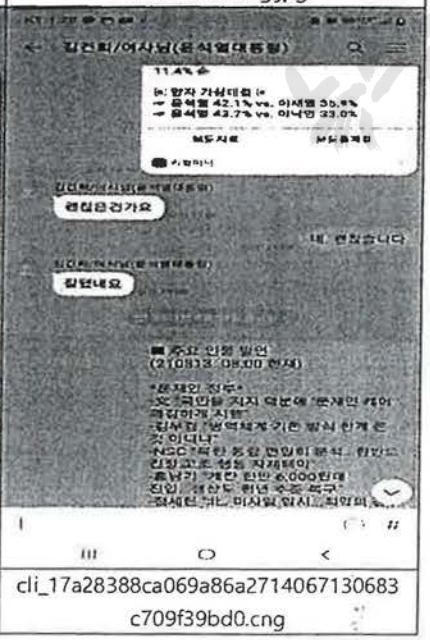
cli_b42f24e10ff143216544cce5df0ca77b89e95b38.cng.jpg

cli_283afca65233272c5e355281a7e38cea623e9b46.cng.jpg

cli_4882bedd0cd7dd288c4af3993fda2bb6d4b2a67c.cng.jpg



cli_0161200636b384970fc6c71cb6ee43e04ab9004c.cng



cli_17a28388ca069a86a2714067130683c709f39bd0.cn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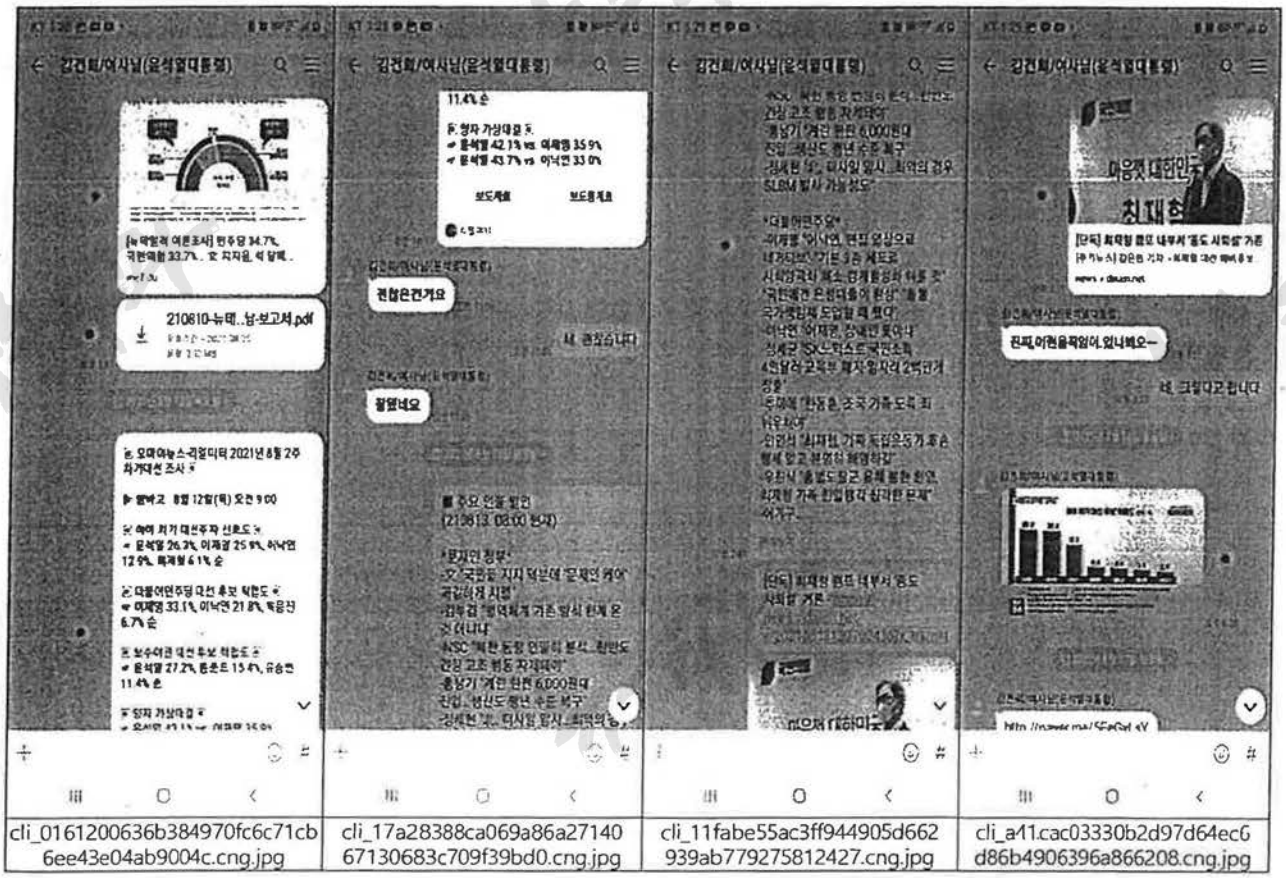
[2021. 8. 11.자 뉴데일리 「[뉴데일리 여론조사] 윤석열, 하락세에도 양자대결서 이재명에 '오차 밖' 우세… 42.4% vs 35.4%」 기사 요약]

- 뉴데일리·시사경남 의뢰, PNR이 10일 1011명 대상 조사에서 윤석열 예비후보는 28.5%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, 이재명 지사는 26.5%로 2위 기록
- 윤 예비후보는 서울과 영남 지역에서, 이 지사는 경기·인천과 호남에서 우세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이 지사가, 60대 이상에서는 윤 예비후보가 앞섬
- 윤 예비후보는 양자대결에서 이 지사(42.4% 대 35.4%)와 이 전 대표(42.2% 대 33.0%)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으며, 정권 교체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49.6%

□ **2021. 8. 13. ~ 8. 14.자 대화 내용**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최재형의 사퇴설 관련 언론보도를 보내자, 김건희 여사가 '진짜 이런 움직임이 있나 보다'라고 말함

○ 캡쳐 사진



cli_0161200636b384970fc6c71cb6ee43e04ab9004c.cng.jpg	cli_17a28388ca069a86a2714067130683c709f39bd0.cng.jpg	cli_11fabe55ac3ff944905d662939ab779275812427.cng.jpg	cli_a41.cac03330b2d97d64ec6d86b4906396a866208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8. 13.자 쿠키뉴스 「[단독] 최재형 캠프 내부서 '중도 사퇴설' 거론」 기사 요약]
-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캠프 내에서 지지율 부진으로 인해 '중도사퇴설'이 제기됨
- 캠프 간부들 사이에서 사퇴 시점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, 윤석열 예비후보 지지를 통한 사퇴 가능성이 언급됨
- 후원금 모금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, 낮은 인지도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

□ **2021. 8. 17. ~ 8. 18.자 대화 내용**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'이준석 리스크'와 관련된 언론기사를 전송하면서 "윤석열, 곧, 정리된다"라고 말하자,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에게 김 (김종인 배우자) 연락처를 전송하면서 김종인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전송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뉴**데일리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**하고, 김건희 여사로부터 **'이거 아직 공개 안 된거죠'라는 말을 듣자 '공개하면 된다'라고 말함**

○ (명태균↔윤석열)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전송하고, 윤석열 대통령은 '홍(준표), 유(승민)은 민주당 지지가 10%씩 되네요'라고 말함

○ 캡쳐 사진

(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)

cli_4342751f36c1307df77ce40a304ba8c87a0ed1b3.cng.jpg

cli_fbd370c2d8aed9969cfc01e64a9ea140cc69fb99.cng.jpg

cli_0ea55e5a959eacfd2669381520377eebb460518a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8. 17.자 중앙일보 「"이준석, 예능 PD인양 주인공 되려 해" "후보 요청 호응한 것"」 기사 요약]

-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준석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 "오만과 독선을 멈추라"고 비판하며 당내 갈등이 격화됨
- 원 지사는 이 대표의 경선 관리와 정부 비판 미흡을 지적하고, 경선준비위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음
- 경선준비위는 자의적 기준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처리하고, 당규에 없는 3,000만 원 기탁금을 요구해 논란이 됨
- 이 대표가 서병수 경준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계획에 당내 일부 최고위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

[2021. 8. 17.자 TV조선 「[단독] 尹·김종인 전격 오찬 회동…"尹 말고 대안 없어" 공감대」 기사 요약]

-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2시간 30분 동안 오찬 회동을 가짐
- 김 전 위원장은 당내 갈등에 우려를 표하며 윤 후보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에 공감
- 윤 후보는 당 대표와의 갈등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 김 전 위원장과 협력 가능성을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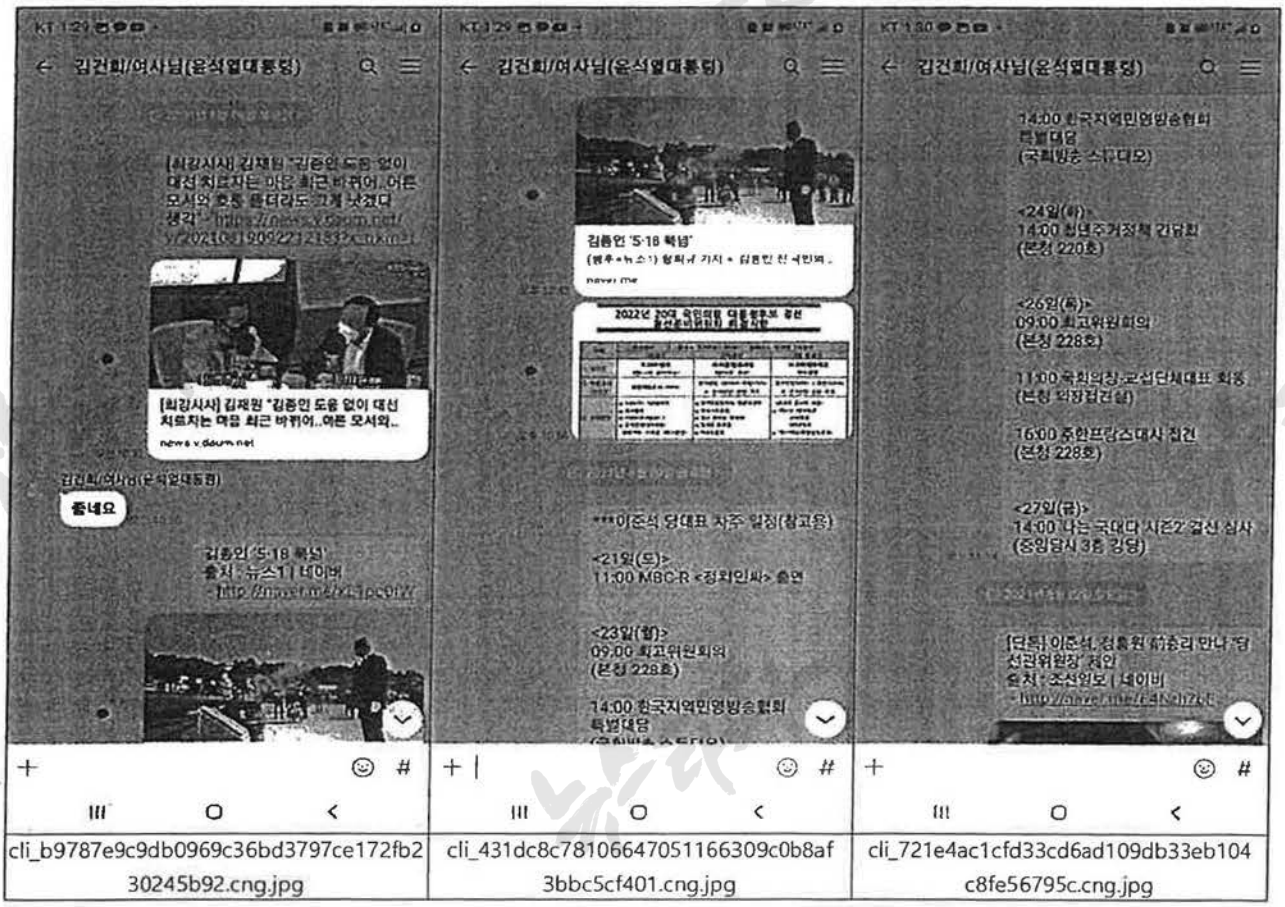
[2021. 8. 22.자 조선일보 [단독] 이준석, 정홍원 前총리 만나 '당 선관위원장' 제안」 기사 요약]

-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선관위원장 후보 6명을 접촉하며 인선을 논의
- 일부 최고위원과 윤식열 전 검찰총장 측 반내ᄅ 서빙수 선 정선준비위원상의 선관위원상 임명이 좌절되자, 정 전 총리 등 후보 검토 중
- 이 대표는 오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원장 후보를 잠정 결정하고, 26일 선관위 출범과 동시에 위원장 임명 예정

□ 2021. 8. 19. ~ 2021. 8. 20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언론보도, "2022년 20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경선 경선준비위원회 의결사항", 이준석 일정 등을 보냄

○ 캡쳐 사진



cli_b9787e9c9db0969c36bd3797ce172fb230245b92.cng.jpg	cli_431dc8c78106647051166309c0b8af3bbc5cf401.cng.jpg	cli_721e4ac1cfd33cd6ad109db33eb104c8fe56795c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8. 19.자 KBS 「[최강시사] 김재원 "김종인 도움 없이 대선 치르자는 마음 최근 바뀌어…어른 모셔와 호통 듣더라도 그게 낫겠다 생각"」 기사 요약]

- 원희룡 전 지사와 이준석 당대표의 녹취록 논란은 두 인사 모두 확전을 원치 않아 수습될 것으로 예상
- 당 경선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었으며 경선준비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있음
- 당내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과 경선의 공정성 문제로 당 내에서 갈등과 반발 심화
- 선관위원장 임명을 앞두고 서병수 위원장 임명에 반대 의견이 많아 새로운 인물을 찾고자 함
-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, 당의 어른 역할 부재 느낀다고 덧붙임

[2021. 8. 19.자 뉴스1 「김종인 '5·18 묵념'」 기사 요약]

-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국립5·18묘지에서 분향

[2021. 8. 22.자 조선일보 [단독] 이준석, 정홍원 前총리 만나 '당 선관위원장' 제안」 기사 요약]

-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선관위원장 후보 6명을 접촉하며 인선을 논의
- 일부 최고위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반대로 서병수 전 경선준비위원장의 선관위원장 임명이 좌절되자, 정 전 총리 등 후보 검토 중
- 이 대표는 오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원장 후보를 잠정 결정하고, 26일 선관위 출범과 동시에 위원장 임명 예정

□ **2021. 8. 22. ~ 8. 23자 대화 내용**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언론보도 보냄

○ 캡쳐 사진

(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)

cli_582460c5f85a5a48af6a50f5129c800178c6c3a4.cng.jpg	cli_24058496cb781b72864c896fc0f52bafd98e7601.cng.jpg	cli_bf37360bc63143c407fece6ad8995f196a1c7853.cng.jpg	cli_f4b267fa26e11375df2591f3bea58c36bbf6a5ce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8. 23.자 헤럴드경제 「국민의힘, 정홍원 선관위원장에 내정…'李尹 갈등' 봉합되나」 기사 요약]

-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당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하며 공정성 논란을 진정시키려 함
- 정 전 총리는 계파색이 옅고 선거 경험이 풍부해 당내 갈등 봉합에 긍정적 역할 기대
- 친윤 인사들이 이 대표 사퇴 요구로 갈등을 고조시키자 이 대표는 발언 수위를 낮추며 갈등 완화를 시도

[2021. 8. 23.자 서울경제 「국민의힘 10여 명 부동산 투기설, 이준석 '탈당' 이상 강력 징계 예고」 기사 요약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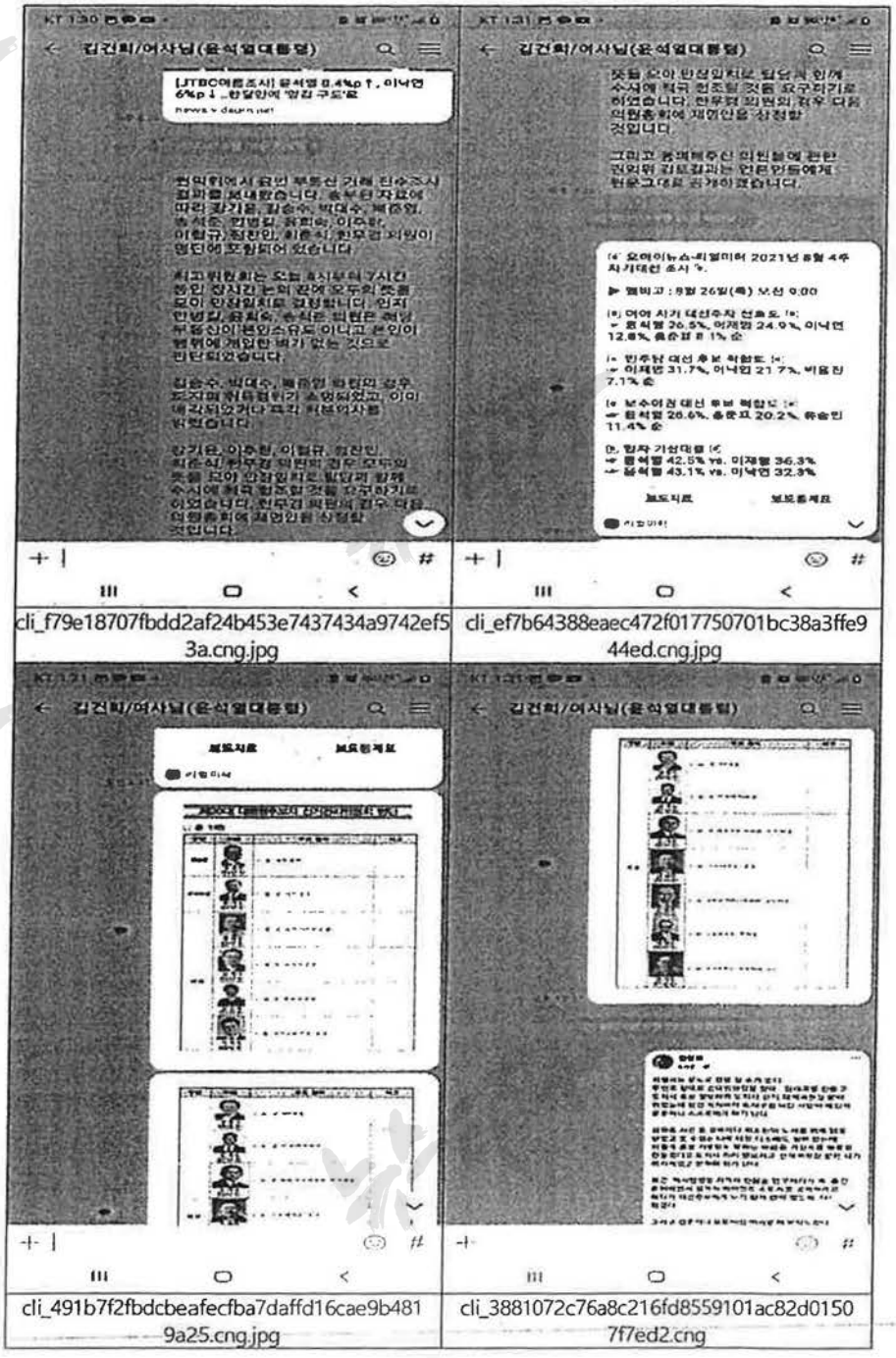
-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 의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,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드러날 경우 여론의 비판이 예상됨
- 국민의힘 지도부는 투기 연루 의원에 대한 민주당보다 엄격한 징계를 예고한 상황으로, 소속 의원들이 다수 연루될 경우 개헌저지선(100석)이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됨
- 이준석 대표는 강한 징계 입장을 밝히며, 민주당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

[2021. 8. 23.자 JTB 「[JTBC여론조사] 윤석열 8.4%p↑, 이낙연 6%p↓…한달만에 '양강 구도'로」 기사 요약]

-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30.4%, 이재명 경기지사가 27.7%를 기록하며 양강 구도로 나타남
-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해 이낙연 전 대표와의 격차가 23.1%p로 확대됨
- 국정 과제 적임자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'부동산 가격 안정', '코로나19 대응', '일자리 창출' 부문에서 우세했고, 윤 전 총장은 '사회 부정 비리 척결' 부문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음

□ 2021. 8. 24. ~ 8. 26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투기설 관련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, 대선주자 선호도 등 여론조사 결과 및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명단 파일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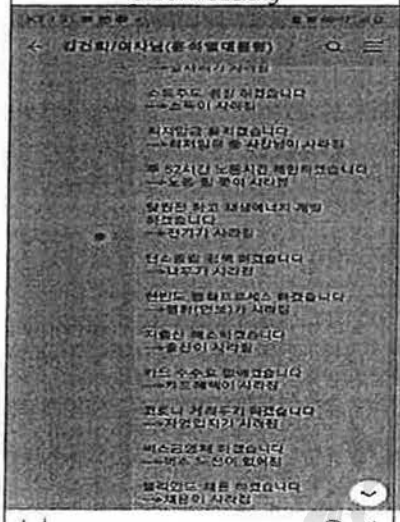
□ 2021. 8. 28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김정권(前국회의원) 페이스북 게시물 캡쳐본을 전송하고, 2021. 8. 28.자 대선 자체 여론조사(비공표) 결과보고서를 전송하면서 '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유지'라고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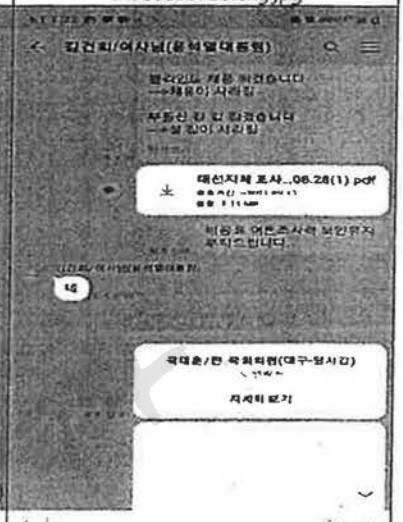
※ 페이스북 내용 : 김정권 본인이 홍준표 후보로부터 토사구팽 당하였음

cli_3881072c76a8c216fd8559101ac82d01507f7ed2.cng

cli_b5c6087837fa27635594418bd428314588e5b7ba.cng.jpg



cli_ed47d4c44fc417e2853d701221757c6b907d2992.cng.jpg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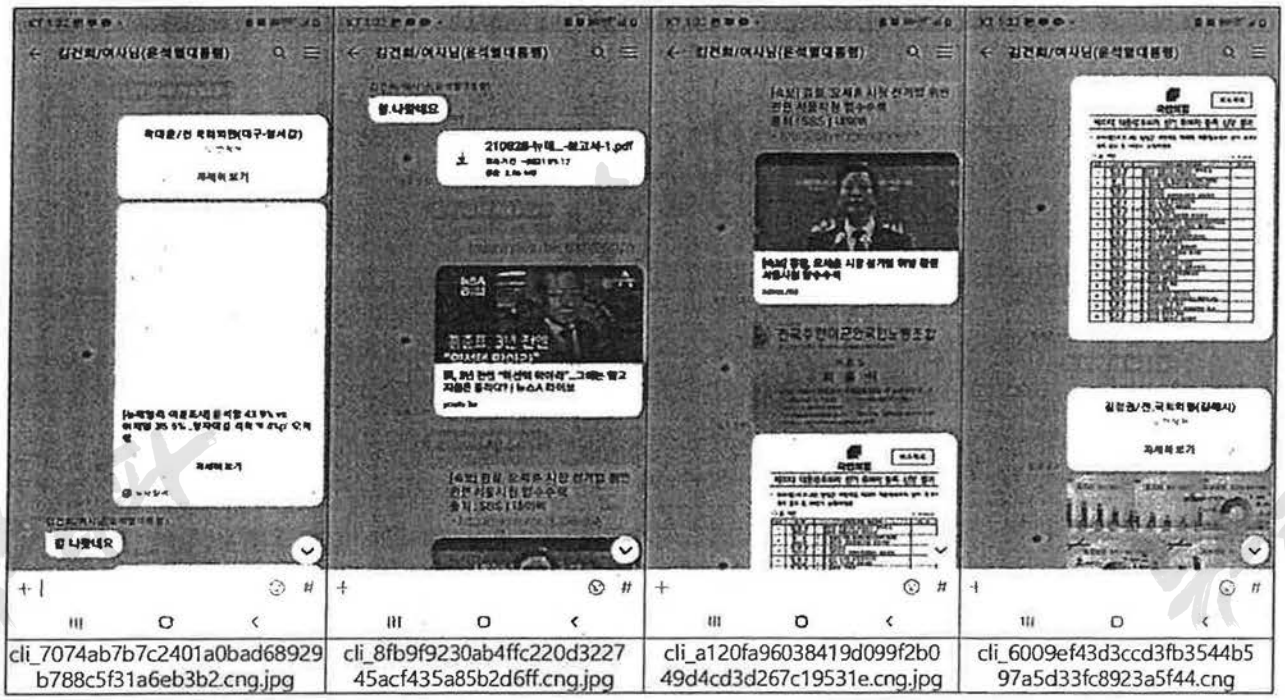
cli_f31288ce5d5fd8cac58cc94d3de50e5914cd6301.cng.jpg

□ 2021. 8. 29. ~ 2021. 8. 31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곽대훈(前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) 언락처, 선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최응식 위원장 명함 및 정계 동향 관련 언론보도, '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결과' 등을 전송

- 특히 뉴데일리 여론조사 결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, 김건희는 '잘 나왔네요'라고 언급

○ 캡쳐 사진



cli_7074ab7b7c2401a0bad68929b788c5f31a6eb3b2.cng.jpg
cli_8fb9f9230ab4ffc220d322745acf435a85b2d6ff.cng.jpg
cli_a120fa96038419d099f2b049d4cd3d267c19531e.cng.jpg
cli_6009ef43d3ccd3fb3544b597a5d33fc8923a5f44.cn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8. 29.자 뉴데일리 「윤석열 43.9% vs 이재명 35.5%… 양자대결 9.4%p 오차 밖 차이」 기사 요약]

- PNR 조사에서 윤석열 30.0%, 이재명 25.3%로 양강 구도 유지
- 가상 양자대결에서 윤석열은 이재명, 이낙연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섬
- 범야권 적합도에서 윤석열 선두, 홍준표가 26.1%로 근접 추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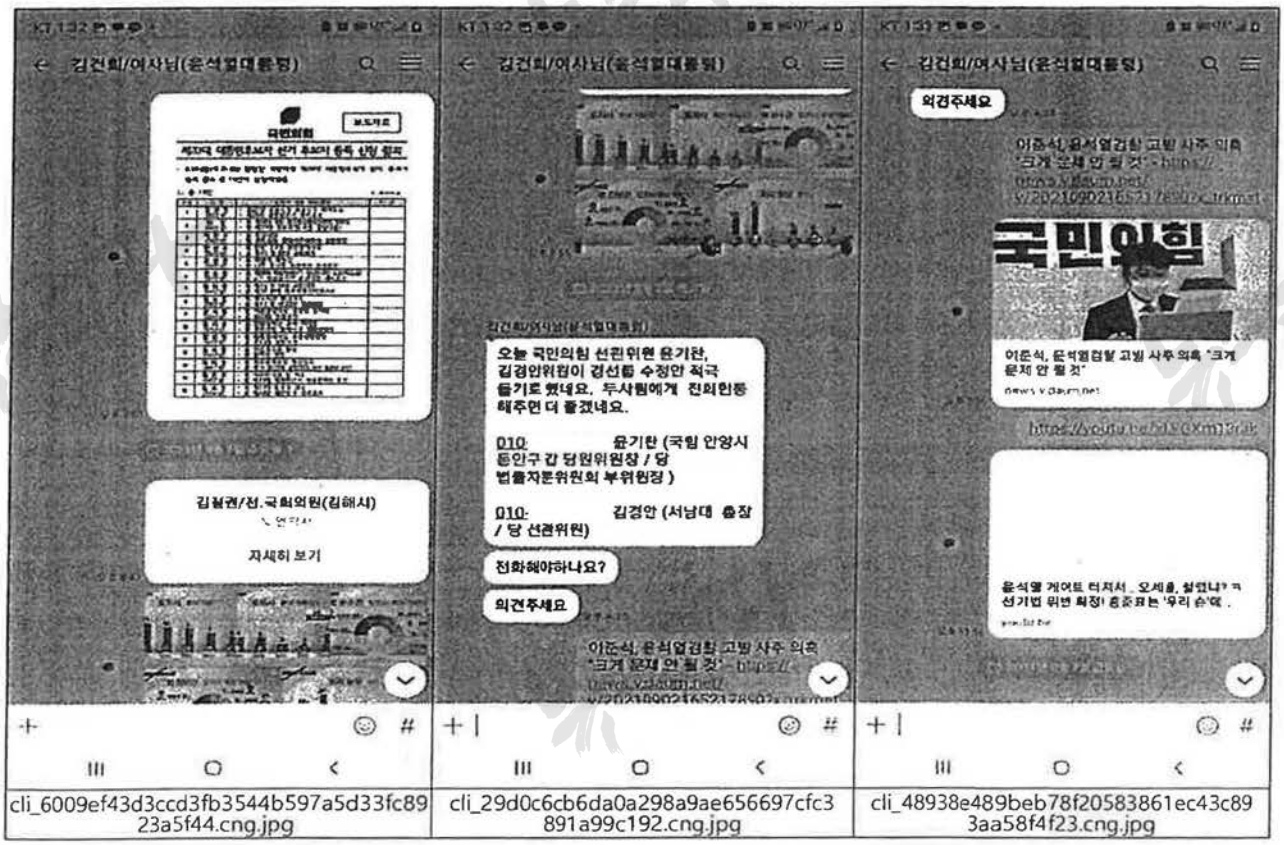
[2021. 8. 31.자 SBS 「경찰, 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서울시청 압수수색」 기사 요약]

-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청을 압수수색 중임
-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등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함
- 이번 수사는 오 시장이 후보자 시절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

□ 2021. 9. 1. ~ 9. 2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김정권 연락처를 전송하고,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에게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'<u>국민의힘 선관위원 윤기찬, 김경안 위원이 경선 룰 수정안을 적극 돕기로 했다, 두사람에게 전화 한통 해주면 좋겠다</u>'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'전화해야하나, 의견 달라'라고 말함

○ 캡쳐 사진



cli_6009ef43d3ccd3fb3544b597a5d33fc8923a5f44.cng.jpg
cli_29d0c6cb6da0a298a9ae656697cfc3891a99c192.cng.jpg
cli_48938e489beb78f20583861ec43c893aa58f4f23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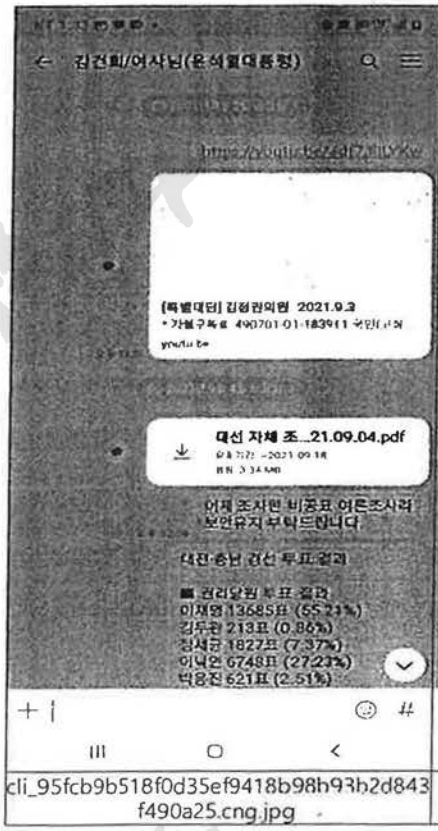
[2021. 9. 2.자 뉴스1 「이준석, 윤석열검찰 고발 사주 의혹 "크게 문제 안 될 것"」 기사 요약]

-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의 '고발 사주' 의혹에 대해 "크게 문제될 것 없다"고 발언
- 김웅 의원은 제보 받은 자료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을 뿐이며, 관련 대화창을 삭제해 출처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명
- 윤석열 캠프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, 김웅 의원 역시 고발 사주 의혹을 부인하며 "청부 고발은 사실이 아니다"라고 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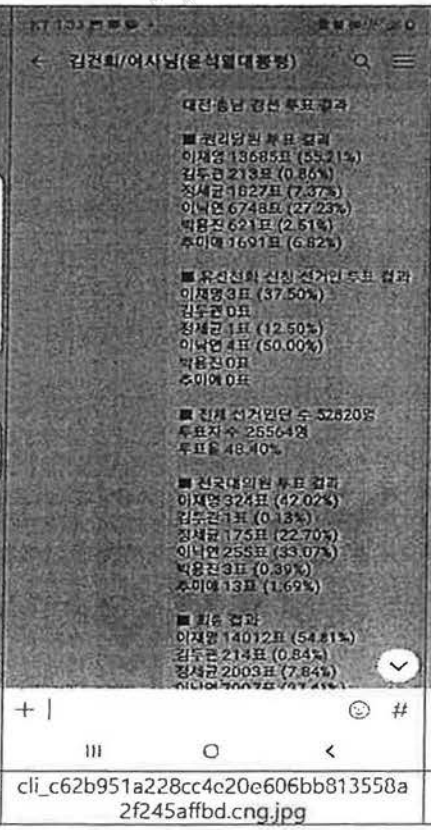
□ **2021. 9. 3. ~ 9. 4.자 대화 내용**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2021. 9. 4.자 비공표 여론조사 자료를 '보안유지 부탁드립니다'라고 하면서 전송하고, 더불어민주당 대전·충남 경선 투표 결과 자료도 전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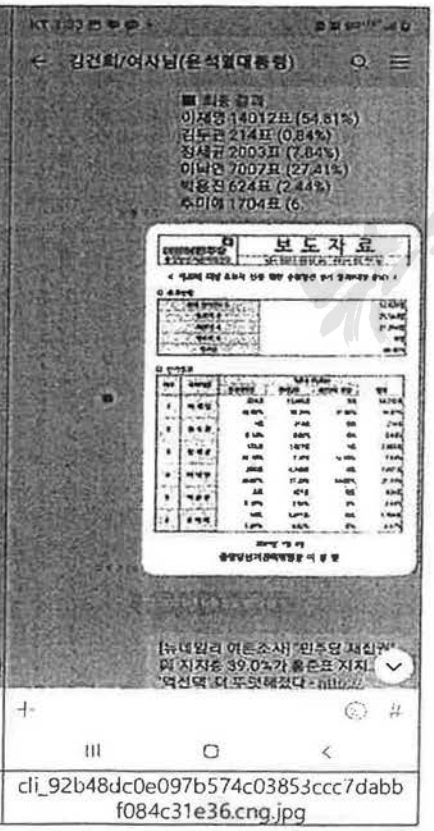
○ 캡쳐 사진



cli_95fcb9b518f0d35ef9418b98b93b2d843f490a25.cng.jpg



cli_c62b951a228cc4c20e606bb813558a2f245affbd.cng.jp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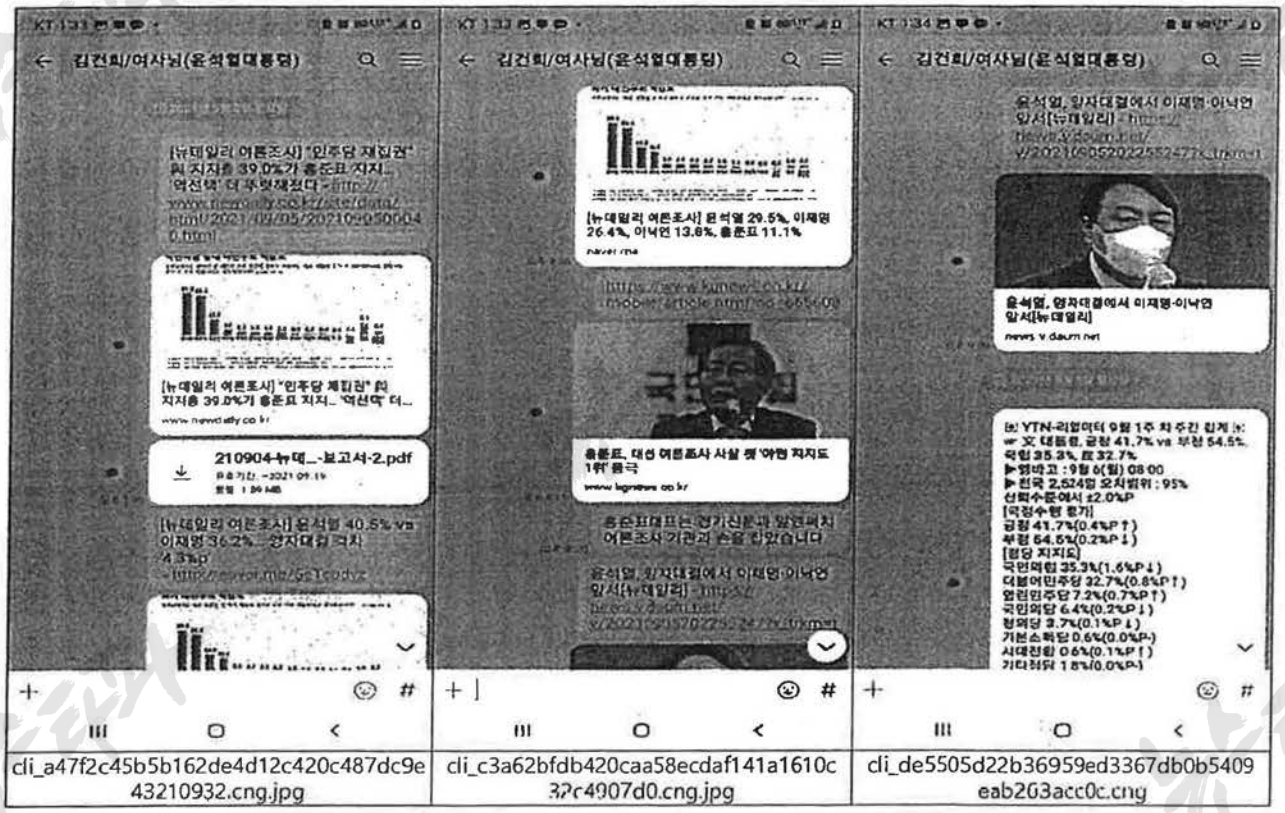


cli_92b48dc0e097b574c03853ccc7dabbf084c31e36.cng.jpg

□ 2021. 9. 5. ~ 9. 6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<u>뉴데일리 여론조사 결과 관련 언론보도를 전송</u>하고, <u>'홍준표는 경기신문과 알앤써치 여론조사 기관과 손을 잡았다'</u>라고 말함

○ 캡쳐 사진



cli_a47f2c45b5b162de4d12c420c487dc9e43210932.cng.jpg	cli_c3a62bfdb420caa58ecdaf141a1610c32c4907d0.cng.jpg	cli_de5505d22b36959ed3367db0b5409eab203acc0c.cn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9. 5.자 뉴데일리 「[뉴데일리 여론조사] "민주당 재집권" 與 지지층 39.0%가 홍준표 지지… '역선택' 더 뚜렷해졌다」 기사 요약]

-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'역선택'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, 민주당 재집권을 희망하는 응답자들이 홍준표 후보를 대거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남
- '정권 안정(민주당 재집권)'을 바라는 응답자 중 39%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, 반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4.8%에 그쳐 역선택 현상이 뚜렷함
- <u>뉴데일리와 시사경남 의뢰로 PNR 리서치가 조사</u>한 이번 결과는 지난 9월 3일에서 4일,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

[2021. 9. 5.자 뉴데일리 「[뉴데일리 여론조사] '양자대결' 윤석열 40.5%, 이재명 36.2% 접전… 홍준표는 이재명에 밀려」 기사 요약]

-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·이낙연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모두 앞섰으며, 홍준표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 앞서지만 이재명 후보에겐 밀림
-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대결에서 윤 후보 40.5%, 이재명 후보 36.2%로 오차범위 밖 우세, 윤석열-이낙연 양자대결에선 윤 43.1%, 이낙연 33.6%
- 홍준표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이재명 36.2%, 홍준표 28.7%로 이재명 우세, 이낙연과의 대결에선 홍준표 34.1%, 이낙연 31.1%로 접전

[2021. 9. 5.자 경기신문 「홍준표, 대선 여론조사 사상 첫 '야권 지지도 1위' 등극」 기사 요약]

- 경기신문 의뢰로 알앤써치가 조사한 결과,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홍준표 후보가 32.5%로 윤석열 후보(29.1%)를 앞서며 1위 기록
-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53.2%로 홍 후보(27.2%)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임
- 이재명·홍준표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섰으며, 이낙연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두 후보가 거의 동률

[2021. 9. 5.자 중앙일보 「윤석열, 양자대결에서 이재명·이낙연 앞서[뉴데일리]」 기사 요약]

- 뉴데일리 의뢰로 PNR이 조사한 결과,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내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(40.5% 대 37.5%)과 이낙연 후보(43.1% 대 33.6%)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
- 지역별로 윤 후보는 호남과 강원·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우세하였으며,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얻음
-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밀렸으나 이낙연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선 앞서는 결과를 보임

□ 2021. 9. 6. ~ 9. 7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언론보도들을 보내고, 강연재(前 국민혁명당 대변인)의 정치 이력 텍스트를 전송하며, 조성은의 페이스북(홍준표 후보가 '윤희숙의 의원직 사퇴 받아줘야 한다'고 인터뷰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 내용) 게시글 전송

○ 캡처 사진

cli_de5505d22b36959ed3367db0b5409eab263acc0c.cng.jpg

cli_b0ca939fe741bf1c314307b69e152e63513ccb8c.cng.jpg

cli_98c6c12bc022a04032050a8360c4a9abe650345f.cng.jpg

cli_3612a09474a97532876890eb738e7992be68b2a6.cng.jpg

cli_d9323ac806f99c10de65b7cefa4db9020556b96d.cng.jpg

cli_6a88404684eb5a2dfb4ee7161faa37babef10697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9. 7.자 동아일보 「[[단독]김웅 "제보자, 윤석열-유승민 모두 잡으려하는 것"」 기사 요약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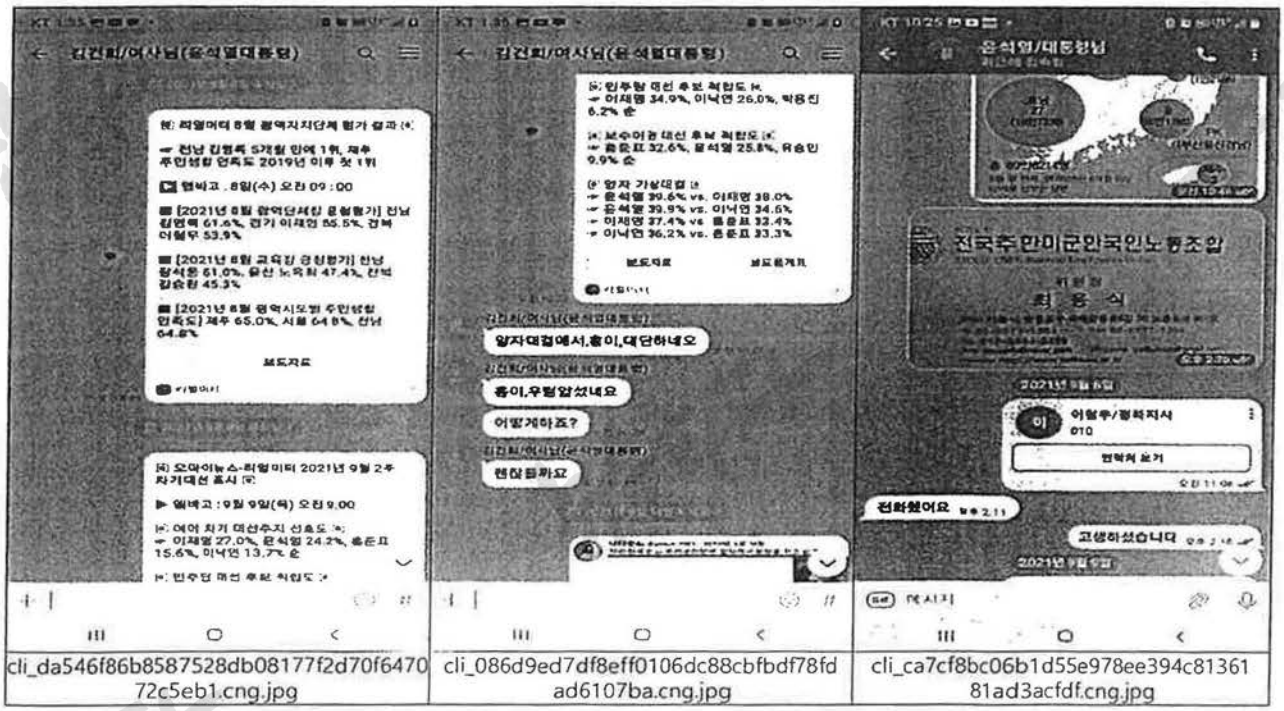
-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'고발 사주 의혹' 제보자가 윤석열 전 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인물이라며, 제보자가 밝혀지면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
- 김 의원은 윤 전 총장과의 친분이 없으며, 자신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함
- 대검찰청 감찰3과는 손 검사 PC에서 고발장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보자 조사에도 착수

□ **2021. 9. 8. ~ 2021. 9. 9.자 대화 내용**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하자, 김건희 여사가 **'양자 대결에서 홍준표가 대단하다, 우릴 앞섰다, 괜찮을까'** 라며 명태균에게 문의

○ (명태균↔윤석열) 명태균이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 및 **이철우(경북지사) 연락처**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송하자, **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했다고 응답**

○ 캡쳐 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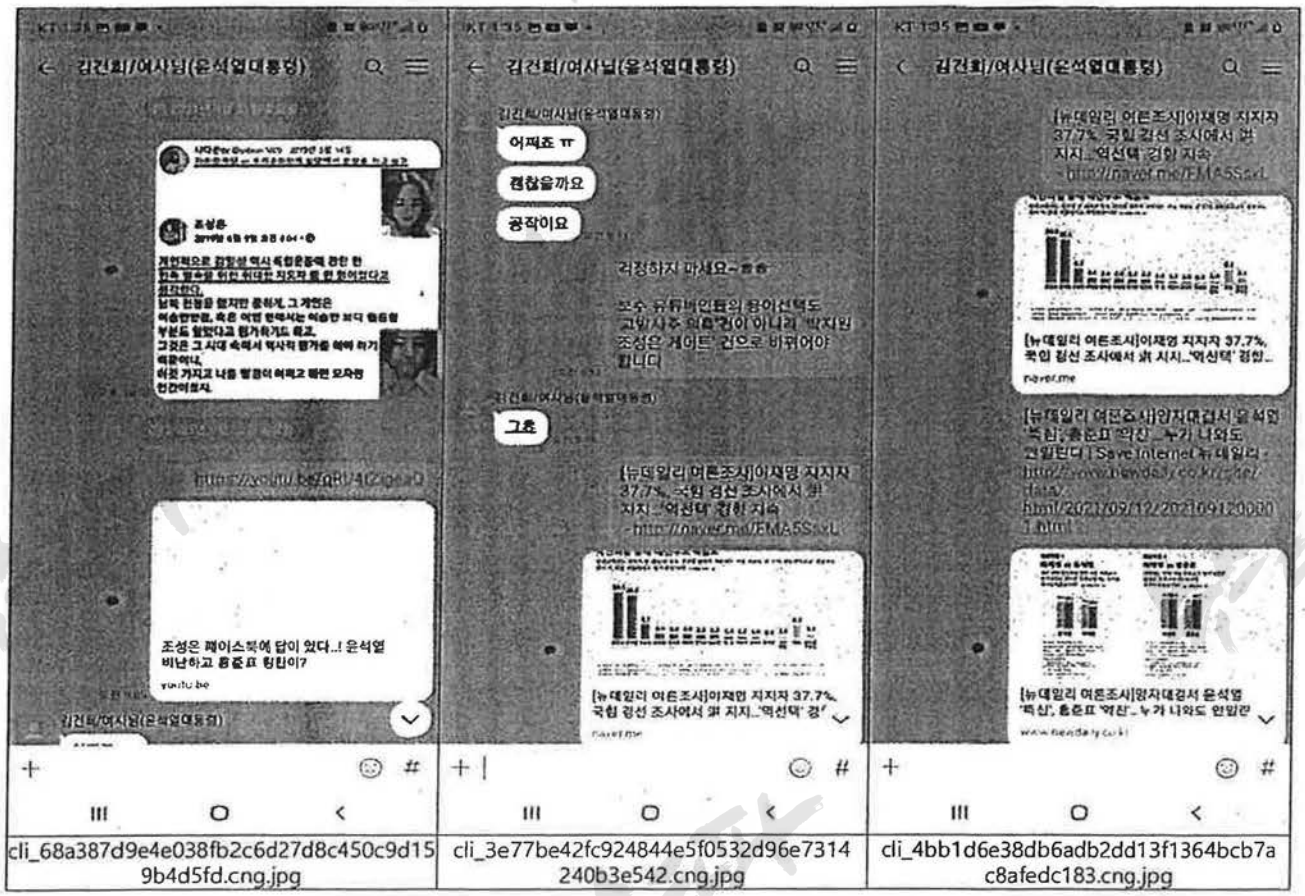
cli_da546f86b8587528db08177f2d70f647072c5eb1.cng.jpg | cli_086d9ed7df8eff0106dc88cbfbdf78fdad6107ba.cng.jpg | cli_ca7cf8bc06b1d55e978ee394c8136181ad3acfdf.cng.jpg

□ 2021. 9. 12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조성은 페이스북 내용 관련 유튜브(조성은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비난글, 홍준표 칭찬글이 있다는 내용)를 전송하자, 김건희 여사가 걱정을 하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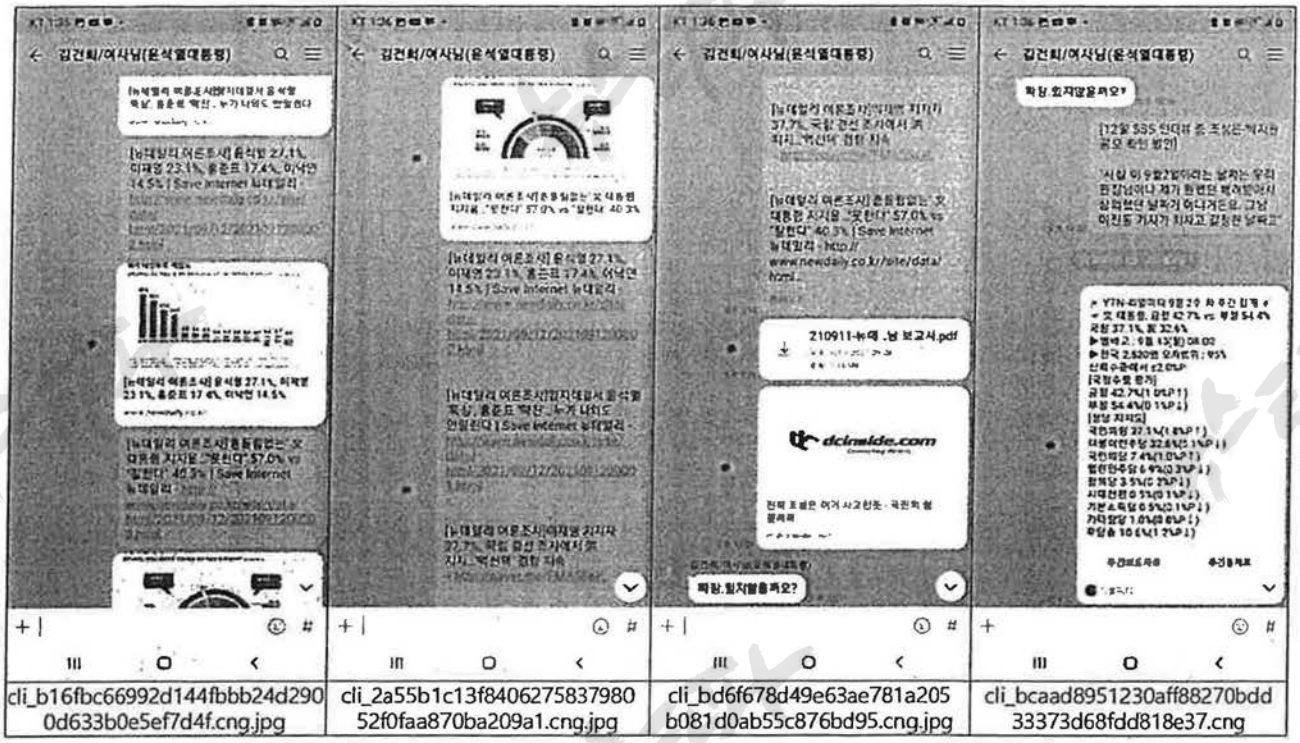
- 이에 명태균은 **<u>김건희 여사를 안심시키면서 '보수 유튜버들의 용어선택도 고발사주 의혹이 아니라 박지은-조성은 게이트로 바뀌어야 한다'</u>**라고 말함
- 계속하여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에게 여론조사 결과 관련 언론보도 전송

○ 캡쳐 사진



cli_68a387d9e4e038fb2c6d27d8c450c9d159b4d5fd.cng.jpg | cli_3e77be42fc924844e5f0532d96e7314240b3e542.cng.jpg | cli_4bb1d6e38db6adb2dd13f1364bcb7ac8afedc183.cng.jpg

(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)



cli_b16fbc66992d144fbbb24d2900d633b0e5ef7d4f.cng.jpg	cli_2a55b1c13f8406275837980 52f0faa870ba209a1.cng.jpg	cli_bd6f678d49e63ae781a205 b081d0ab55c876bd95.cng.jpg	cli_bcaad8951230aff88270bdd 33373d68fdd818e37.cn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9. 12.자 뉴데일리 「[뉴데일리 여론조사]이재명 지지자 37.7%, 국힘 경선 조사에서 與 지지…'역선택' 경향 지속」 기사 요약]

- PNR리서치가 뉴데일리와 시사경남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,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'역선택' 현상이 두드러짐
- 민주당 지지층 중 '정권안정'을 바라는 응답자의 33.9%와 이재명 지지층의 37.7%가 국민의힘 후보로 홍준표를 지지한 반면,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윤석열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남
- 문재인 국정 긍정평가 응답자의 32.8%가 홍준표를, 5.4%가 윤석열을 지지해 민주당 지지층의 전략적 '역선택' 가능성이 제기됨

[2021. 9. 12.자 뉴데일리 「[뉴데일리 여론조사]양자대결서 윤석열 '뚝심', 홍준표 '약진'…여권 후보와 막상막하」 기사 요약]

- 뉴데일리와 시사경남이 의뢰한 PNR 여론조사에 따르면, 윤석열 후보가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재명(38.9% 대 33.3%) 및 이낙연 후보(41.9% 대 29.8%)에 앞섰음
-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는 초접전(34.7% 대 35.4%)을 벌였으며, 이낙연 후보와의 대결에선 근소하게 앞섰음(36.6% 대 32.6%)
- 지역별로 윤 후보는 수도권과 영남권, 이 후보는 호남 및 강원·충청에서 강세를 보였으며, 연령대별로 윤 후보는 50대 이상, 이 후보는 40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음

[2021. 9. 12.자 뉴데일리 「[뉴데일리 여론조사] 윤석열 27.1%, 이재명 23.1%, 홍준표 17.4%, 이낙연 14.5%」 기사 요약]

- 뉴데일리와 시사경남 의뢰로 PNR이 조사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27.1%, 이재명 후보가 23.1%, 홍준표 후보가 17.4%로 나타남
- 홍준표 후보는 20대 지지율 상승을 바탕으로 6.3%p 상승, 윤석열·이재명 후보의 하락세 속 3위를 기록함
- 지역별로 윤석열 후보는 서울·영남, 이재명 후보는 경기·충청·호남에서 우세했으며, 20대에서 홍준표 후보가 31.3%로 압도적

[2021. 9. 12.자 뉴데일리 「[뉴데일리 여론조사]'흔들림없는' 文 대통령 지지율…"못한다" 57.0% vs "잘한다" 40.3%」 기사 요약]

- 뉴데일리와 시사경남 의뢰로 PNR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,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0.3%, 부정평가는 57.0%로 나타남
- 지역별로 긍정평가는 광주·전라(60.2%)에서, 부정평가는 부산·울산·경남(70.9%)에서 가장 높았음
-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.3%, 민주당이 31.7%를 기록하며,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음

□ **2021. 9. 13. ~ 2021. 9. 16.자 대화 내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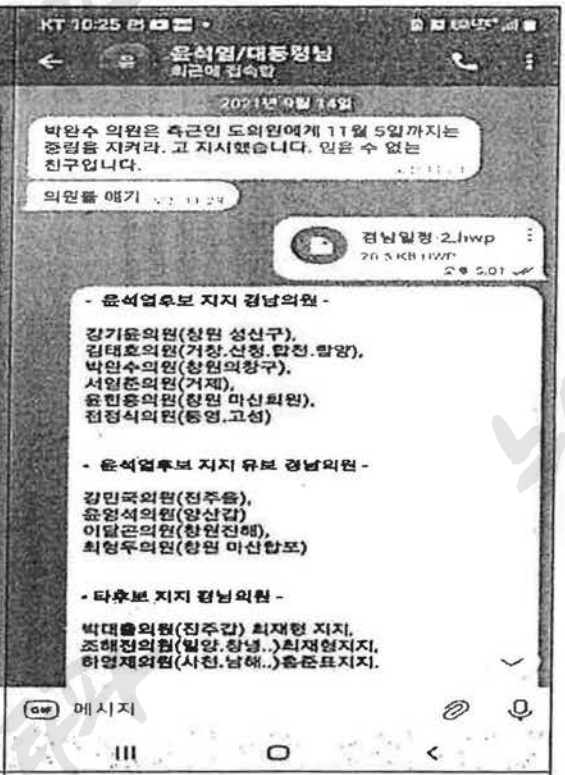
○ (명태균↔윤석열)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의원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(**박완수 의원은 측근인 도의원에게 11월 5일까지는 중립을 지키라고 지시했으므로, 믿을 수 없는 사람**이다)을 전달하자,

- 명태균이 '경남일정-2' 한글파일 및 **경남지역 의원들의 윤석열 후보 지지 여부** 텍스트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송한 후,
- 윤한홍(국회의원)의 타 의원 및 시장과의 인맥을 강조하며 '**윤석열 대통령이 진주 중앙전통시장 방문 시 윤한홍 의원으로 하여금 조규일(진주시장)과 강민국(국회의원)을 꼭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**'고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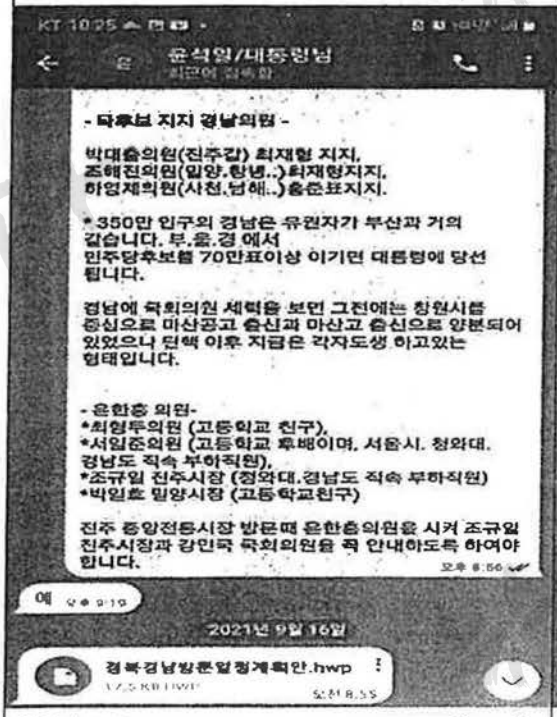
○ (명태균↔윤석열)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'경북경남방문일정계획안' 문서 사진을 전송하자 명태균은 '감사합니다'라고 답변 후 성 (창녕농협 조합장) 연락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송

○ 캡쳐 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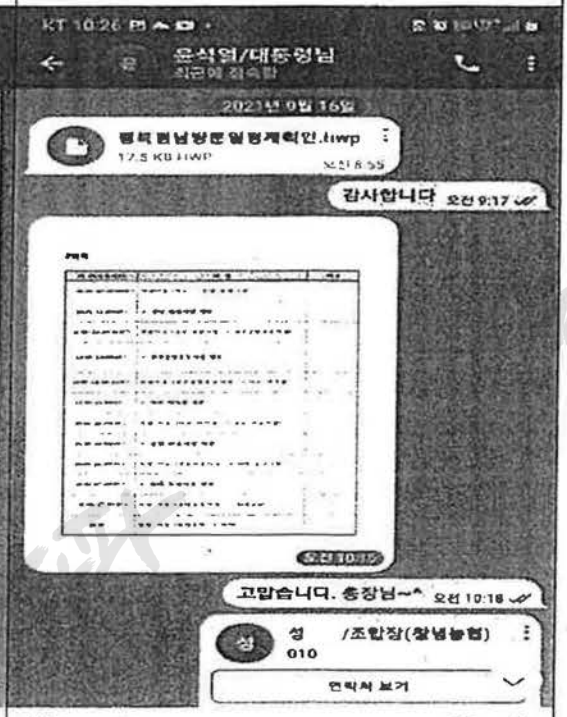
cli_135b37e2015d4383afe262666b5f3344b9d6482b.cng.jpg



cli_2eb5872a241e6543f25c4c71cc3c475ef3e0a060.cng.jpg



cli_c8808a9ca8657c991addfc4ac7f3940240fa7fd3.cng.jpg



cli_c05d1a1aef8005b8e3ddb92dc5a85b0b0d4d1b3c.c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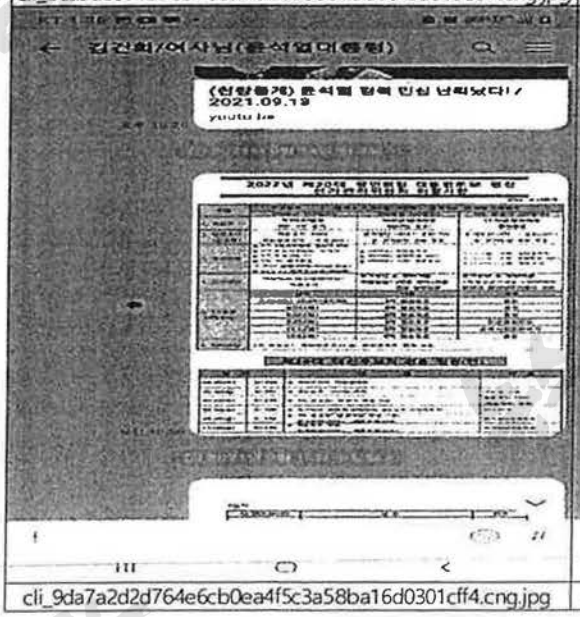
□ 2021. 9. 13. ~ 2021. 9. 15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, 홍준표 후보 캠프 구성 현황, 윤석열 대통령의 안동 지역 방문 영상, 2022년 제20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사항 자료를 전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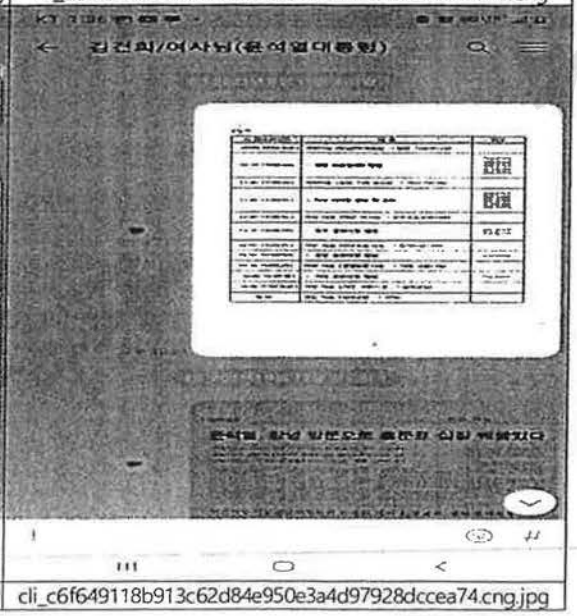
○ 캡쳐 사진

cli_bcaad8951230aff88270bdd33373d68fdd818e37.cng.jpg

cli_9988170a0cd2135d57b767a1124cbfabb62e1f7f.cng



cli_9da7a2d2d764e6cb0ea4f5c3a58ba16d0301cff4.cng.jpg



cli_c6f649118b913c62d84e950e3a4d97928dccea74.cng.jpg

□ 2021. 9. 17. ~ 2021. 9. 20.자 대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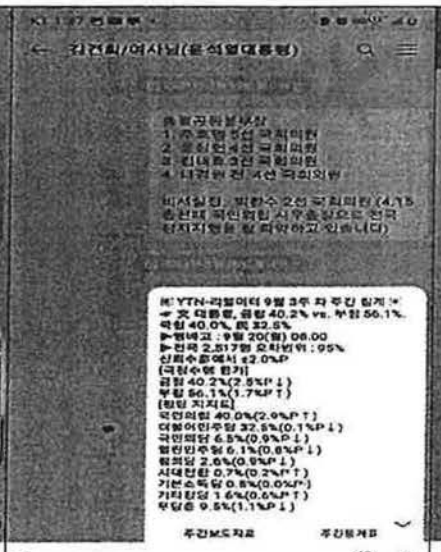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경북·경남 지역 방문 관련 언론보도 자료 및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

-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「<u>총괄공동본부장 1. 주호영 5선 국회의원, 2. 윤상현 4선 국회의원, 3.김태호 3선 국회의원, 4. 나경원 전 4선 국회의원</u>」 및 「<u>비서실장 박완수 2선 국회의원</u>」이라고 적은 글을 전송

○ (명태균↔윤석열)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남 창녕 지역 방문 관련 언론보도 자료를 전송하자, 윤석열 대통령이 '체리따봉'을 보냄

○ 캡쳐 사진

cli_e0677476360bcb1e1d85e57e41b5aed5d66c2954.cng.jpg



cli_baac45fb4bb31f8e4f38acbda5c1c8f49cd18718.cng.jpg

cli_c5ab9001a15eda1690bb4c66a0bd4e5d9efb293f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9. 18.자 세계타임즈 「국민의힘 윤석열 후보, 홍준표 고향 창녕 찾아 추석민심 살펴」 기사 요약]

-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고향 창녕군을 방문해 지역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음
- 창녕읍 장터에서 추석 인사 및 지역 경제 현황을 살피며 조해진 의원과 한정우 군수 등과 함께 상인 및 주민들과 소통함
- 윤 후보는 홍 후보 고향 방문의 특별한 의미를 부인하며 단순히 지역 경제를 살피기 위함이라고 설명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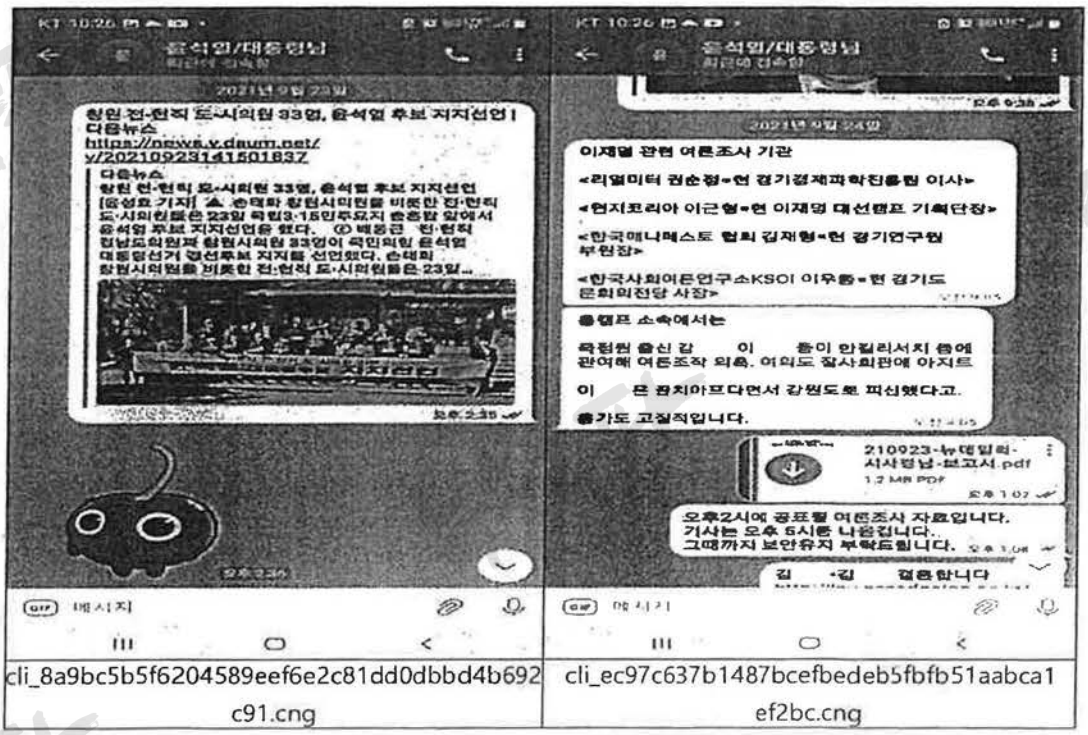
□ 2021. 9. 22. ~ 2021. 9. 24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윤석열) 명태균이 **창원 전·현직 도·시의원 33인의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관련 언론보도**를 보내자, **윤석열 대통령이 '체리따봉'** 이모티콘으로 답변하는 내용

- 윤석열 대통령이 **'이재명 관련 여론조사 기관' 4개** 기관을 특정한 텍스트 및 **홍준표 캠프 관련 여론조작 의혹** 등을 기재한 텍스트를 명태균에게 전송하고,
- 이후 명태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'오후 2시 공표 예정이고 기사는 오후 5시에 나올 예정인데 그때까지 **보안유지 부탁**한다'라고 하면서 **2021. 9. 23.자 여론조사 결과보고서(공표)를 보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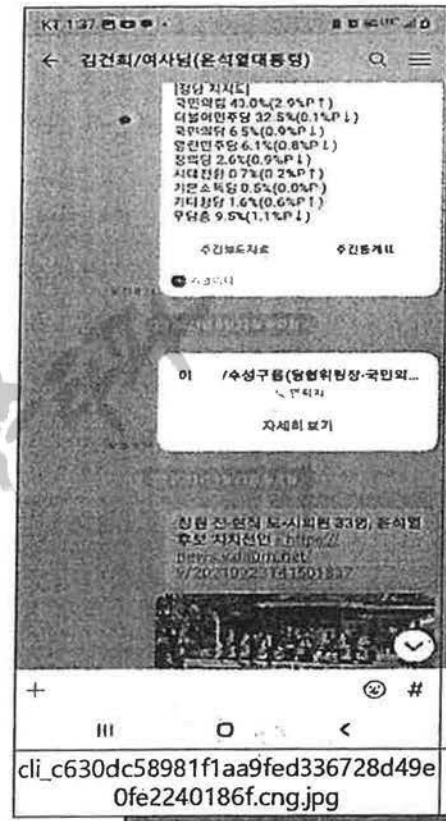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 대구 수성을 당협 위원장 연락처 및 각종 여론조사 결과 관련 언론보도 자료를 전송하고, 이재명 당시 후보의 화천대유 의혹 관련 언론보도 자료 및 사진 전송

○ 캡쳐 사진



cli_8a9bc5b5f6204589eef6e2c81dd0dbbd4b692c91.c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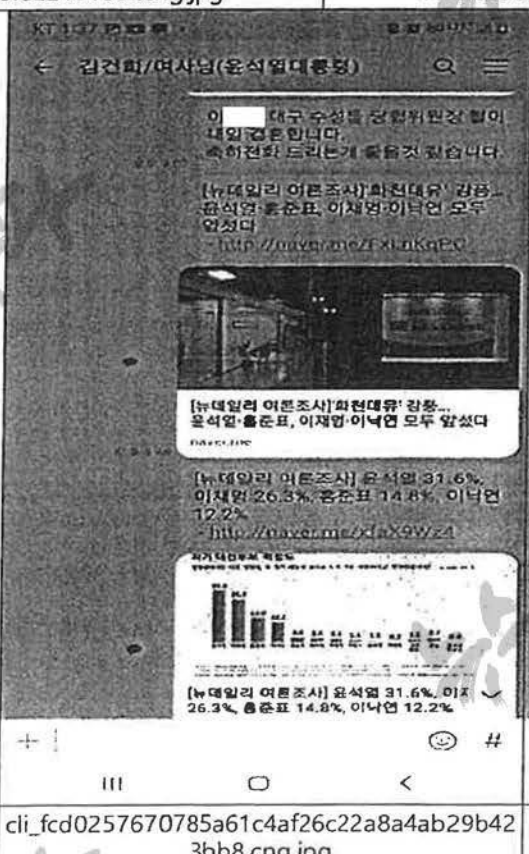
cli_ec97c637b1487bcefbedeb5fbfb51aabca1ef2bc.cng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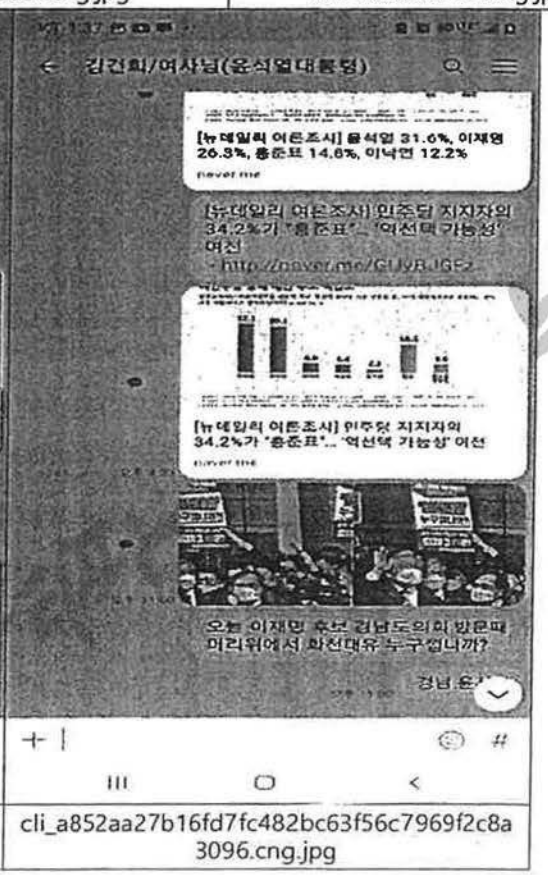
cli_c630dc58981f1aa9fed336728d49e0fe2240186f.cng.jpg

cli_57a554e46a4577af3ccbaff0665bf1fcf639ba9f.cng.jpg

cli_972ff5d6d1b740ed5b47f787ed88614ada1df468.cng.jpg



cli_fcd0257670785a61c4af26c22a8a4ab29b423bb8.cng.jpg



cli_a852aa27b16fd7fc482bc63f56c7969f2c8a3096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9. 23.자 오마이뉴스 「창원 전-현직 도-시의원 33명,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」 기사 요약]

- 경남 전·현직 도·시의원 33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발표함
-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과 탈원전 정책 등을 비판하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함
- 윤석열 후보가 자유민주주의와 공정, 원칙을 수호할 적임자라고 판단해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함

[2021. 9. 24.자 뉴데일리 「[뉴데일리 여론조사] 윤석열 31.6%, 이재명 26.3%, 홍준표 14.8%, 이낙연 12.2%」 기사 요약]

- 윤석열 후보가 31.6%, 이재명 후보가 26.3% 지지율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2강 구도를 형성함
- 윤석열 후보는 서울과 영남권, 고령층에서, 이재명 후보는 경기·인천과 호남, 40대에서 강세를 보임
- '화천대유' 의혹은 '특혜 의혹 사업'이라는 응답이 많았고, '고발 사주' 의혹은 '야당 후보 흠집 내기'라는 의견과 '국기문란'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남

[2021. 9. 24.자 뉴데일리「[뉴데일리 여론조사] 민주당 지지자의 34.2%가 "홍준표"…역선택 가능성 여전」 기사 요약]

- 뉴데일리와 시사경남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PNR이 실시한 범여권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2.1%, 이낙연 후보가 30.1%로 접전을 벌임
-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대선주자 적합도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33.1%, 홍준표 후보가 28.9%로 윤 후보가 우세를 점함
- 홍준표 후보는 호남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역선택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, 윤 후보는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강세를 보임

[2021. 9. 24.자 뉴데일리 「[뉴데일리 여론조사] '화천대유' 강풍…윤석열·홍준표, 이재명·이낙연 모두 앞섰다」 기사 요약]

- 윤석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·이낙연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재명 후보와는 42.6% 대 31.5%, 이낙연 후보와는 46.0% 대 27.3%로 조사됨
-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33.7% 대 33.3%로 근소하게 앞섰으며, 이낙연 후보와는 38.5% 대 27.7%로 격차를 보임
- 지역별 지지율에서 윤석열 후보는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우위를 보였고, 홍준표 후보는 서울과 영남권에서 강세를 나타냄
- 이번 조사는 뉴데일리와 시사경남 의뢰로 PNR(피플네트웍스리서치)가 23일 하루 동안 전국 유권자 105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0%p임

□ 2021. 9. 25. ~ 9. 30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**박완수의 사무실 간판 사진을 보내며 '찾아갔는데 없다'**라고 말함

- 김건희 여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화천대유 의혹 관련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 곽 가 작성한 텍스트를 명태균에게 전달

○ 캡쳐 사진

cli_ca3bc7ea66add75200683de6982401dfa5f39d77.cng.jpg	cli_ff25ec4002fd203b2827ebb06ec536465081edc9.cng.jpg	cli_b13662e530d0d21c04be2c2d3678003dc2b0e02a.cng.jpg	cli_56cf30f307b94c6bc3134380108a25a182f3dca7.cng.jpg

□ 2021. 9. 30.~ 10. 3.자 대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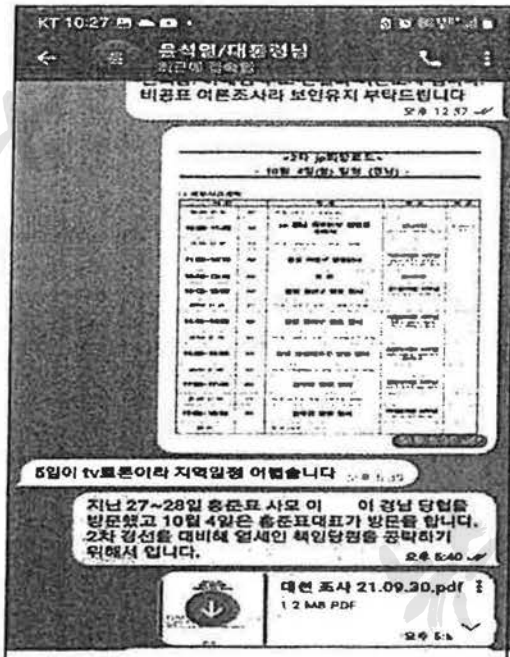
○ (명태균↔윤석열) 명태균이 **윤석열 대통령에게 2021. 9. 30.자(추정)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전송하며 '보안 유지'**를 부탁하고,

- 홍준표 후보의 경남 지역 방문 일정표 사진을 전송하며 '(홍준표 후보가) **2차 경선을 대비해 열세인 책임당원을 공략**하기 위해서'라고 덧붙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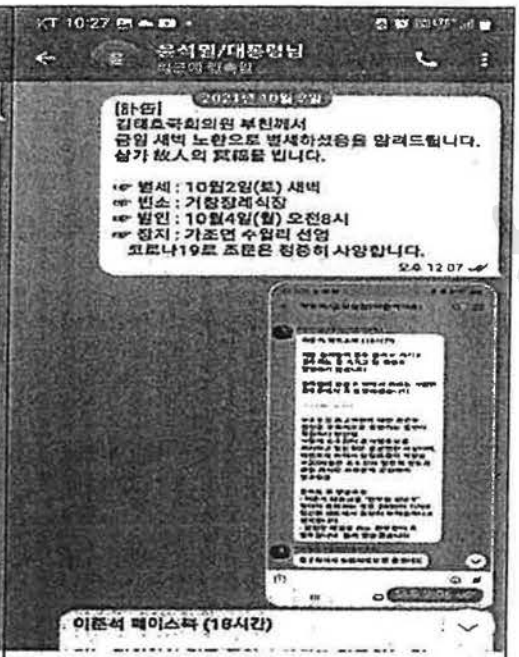
- 명태균이 김태호 국회의원의 부친상 문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송하고, 이어 이준석 당시 대표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복사한 후 하단에

'조수진 최고위원에 대한 관련된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판단됨' 등 메시지 추가 기재하여 전송한 후, 관련 언론보도 자료 전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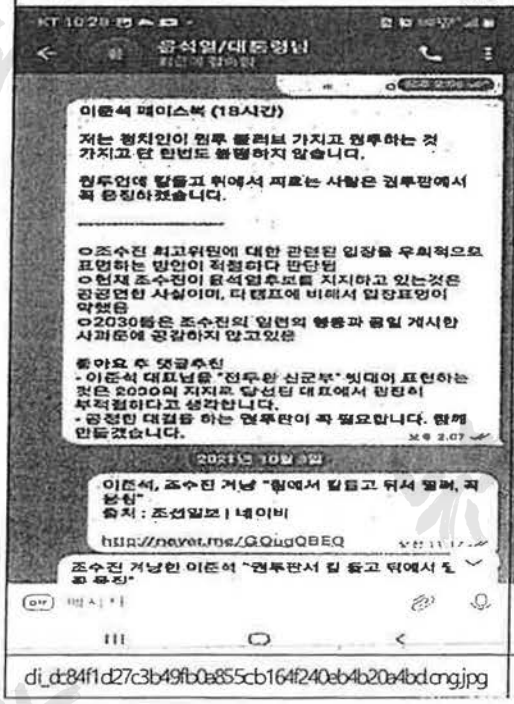
○ 캡쳐 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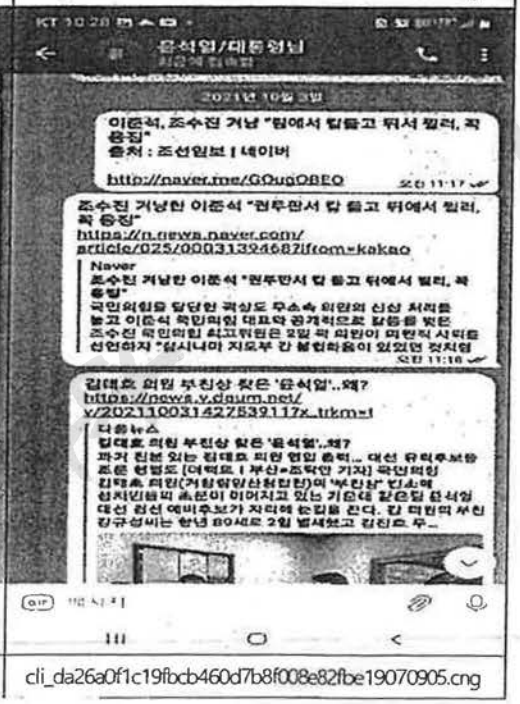
di_4f6e5e694a4e8594d1c96d4e8356f8b6c519c440.cng.jpg



di_8aa37220ba3e397c2b4e91018326fd1a13fcbb54.cng



di_dc84f1d27c3b49fb0a855cb164f240eb4b20a4bd.cng.jpg



cli_da26a0f1c19fbcb460d7b8f008e82fbe19070905.cn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10. 2.자 조선일보 「이준석, 조수진 겨냥 "링에서 칼들고 뒤서 찔러, 꼭 응징"」 기사 요약]

-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곽상도 의원 제명 문제로 조수진 최고위원을 비판하며 "정치판은 권투와 같아 선을 넘는 행동은 응징하겠다"고 발언함
-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대표의 게시글에 "공정한 권투판이 필요하다"며 지지 댓글을 달았음
- 이 대표와 조 최고위원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으며, 조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곽 의원 제명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
- 조 최고위원은 곽 의원의 사퇴 후 "지도부 간 불협화음이 있었다"며 이준석 대표와 국민에게 유감의 뜻을 표함

[2021. 10. 2.자 중앙일보 「조수진 겨냥한 이준석 "권투판서 칼 들고 뒤에서 찔러, 꼭 응징"」 기사 요약]

- 곽상도 의원의 사퇴 문제로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은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 후 "지도부 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점을 사과한다"고 밝힘
- 조 최고위원은 제명 논의가 국정감사 전날 시급히 처리할 사안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 대표의 최고위 소집에 반대 입장을 표명
- 이준석 대표는 조 최고위원의 행보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"칼 들고 뒤에서 찌르는 사람은 꼭 응징하겠다"는 강한 반응을 보였고,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대표 게시물에 "공정한 대결을 하는 권투판이 필요하다"며 지지 의견을 댓글로 표현
- 조 최고위원은 곽상도 의원의 결단을 평가하며 "정권 교체와 이재명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 촉구한다"고 강조

[2021. 10. 3.자 더팩트 「김태호 의원 부친상 찾은 '윤석열'…왜?」 기사 요약]

-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부친상에 국민의힘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으며, 대선 경선 예비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참석해 눈길을 끔
- 윤 후보는 김 의원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"김태호 의원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"고 밝혀 지지를 호소
- 윤 후보 외에도 유승민·최재형 후보와 이준석 대표,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이 조문

□ **2021. 10. 2. ~ 10. 3.자 대화 내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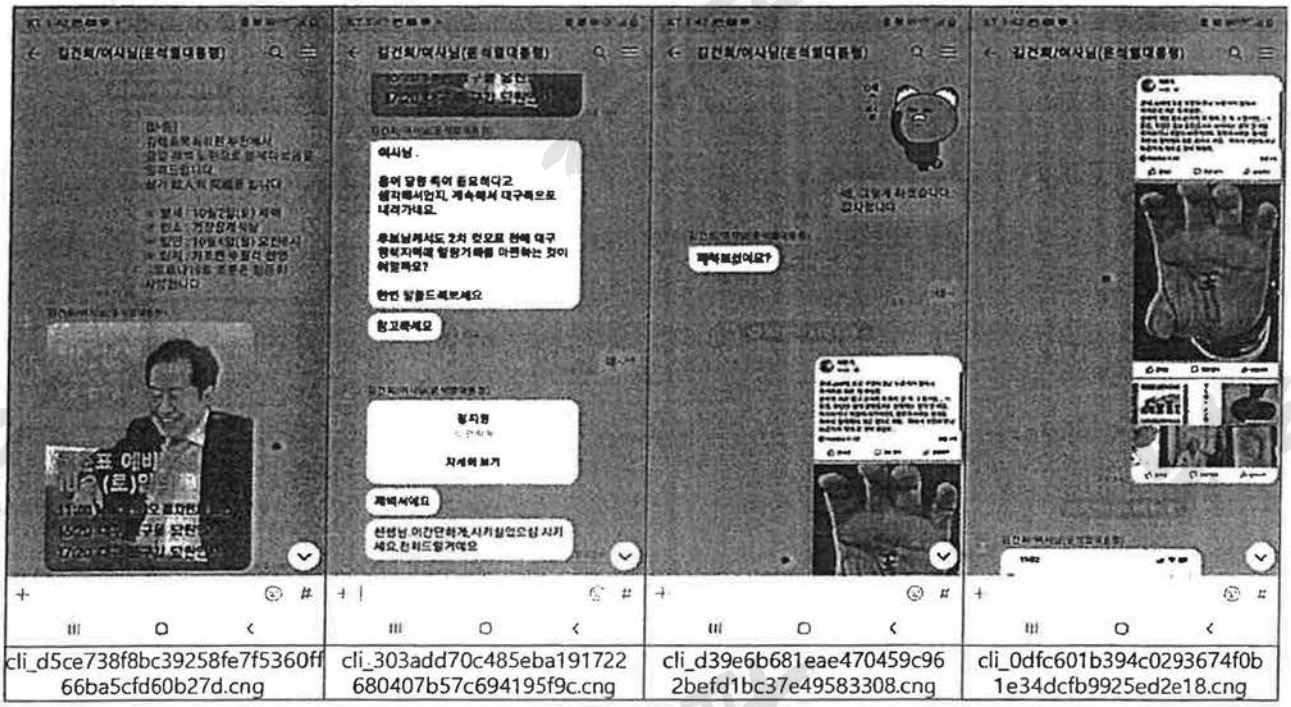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홍준표 후보의 대구 지역 방문 일정과 함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(2차 컷오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·경북 지역에 방문 권유)를 명태균에게 전송하며 참고하도록 하고,

- 본인의 비서 정 의 연락처를 전송하며 '선생님이 간단하게 시키실 일 있으심 시키세요, 전화 드릴거예요'라고 발언
- 명태균이 김태호 국회의원의 부친상 부고 문자를 발송하고, 윤석열 대통령의 '손바닥 王 표시' 관련 페이스북 캡쳐본 사진을 여사에게 전송

○ (명태균↔윤석열)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'손바닥 王 표시' 관련 페이스북 캡쳐본 및 **이준석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(윤석열 대통령의 위장당원 발언 관련 기사에 대한 논의)을 전송**하자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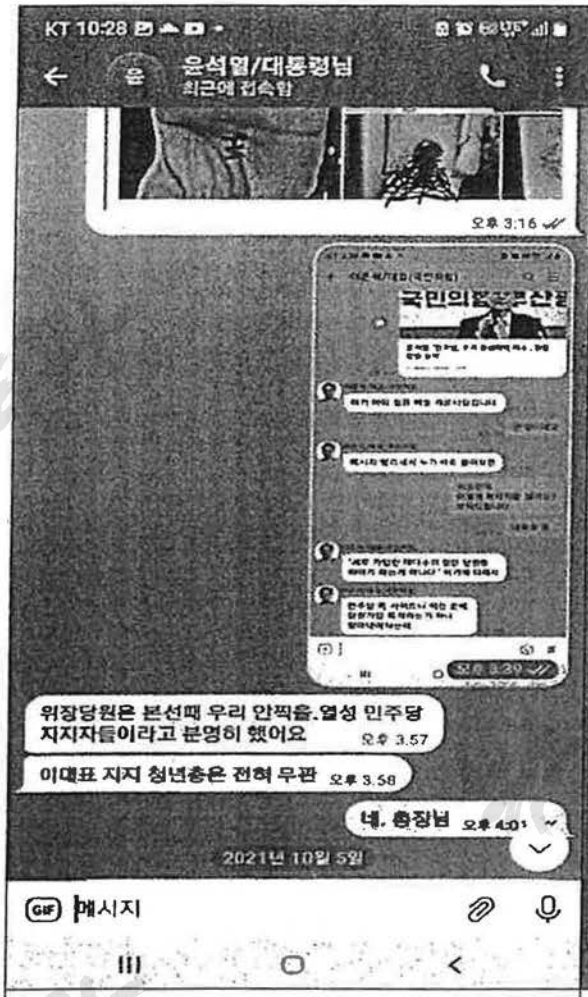
- **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에 대하여 해명**(위장당원 발언은 이준석을 지지하는 청년층과는 무관)하는 내용

○ 캡쳐 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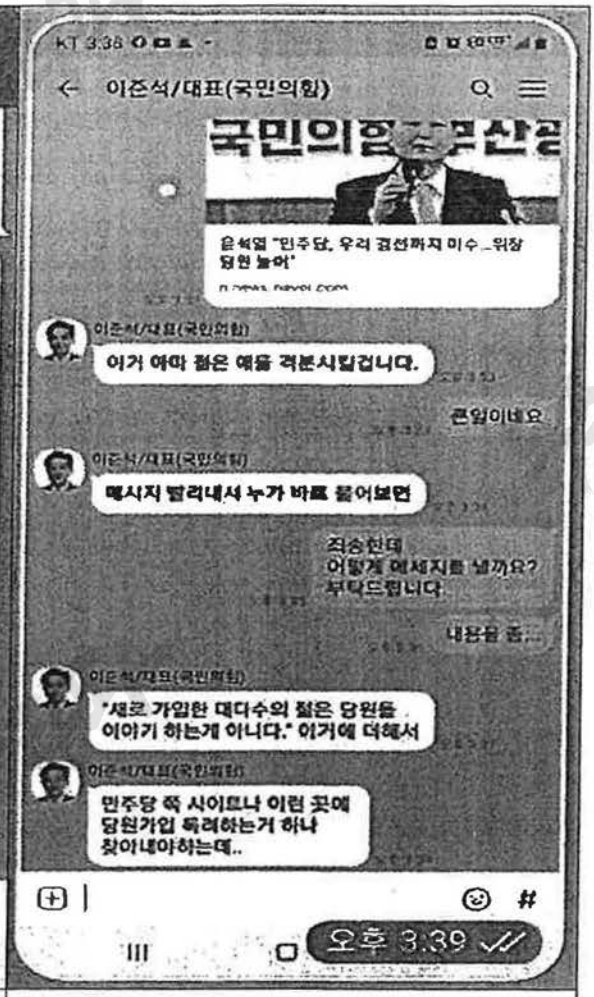


cli_d5ce738f8bc39258fe7f5360ff66ba5cfd60b27d.cng | cli_303add70c485eba191722680407b57c694195f9c.cng | cli_d39e6b681eae470459c962befd1bc37e49583308.cng | cli_0dfc601b394c0293674f0b1e34dcfb9925ed2e18.cng

(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)



cli_67093e03e01f02e5d0f94032a952e5414826faa7.cng



카카오톡 캡쳐 확대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10. 4.자 뉴시스 「윤석열 "민주당, 우리 경선까지 마수··위장 당원 늘어"」 기사 요약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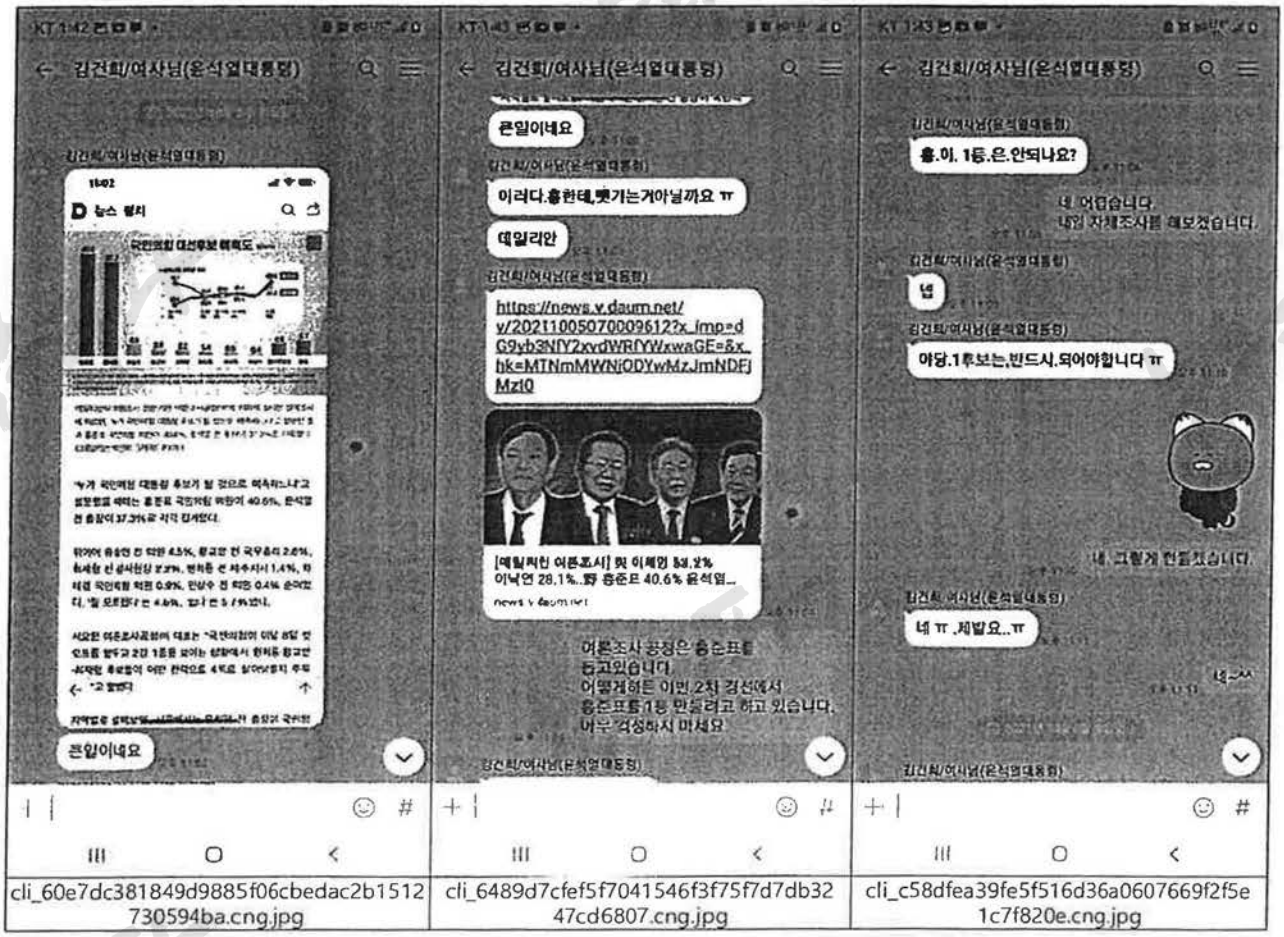
-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급증에 대해 "위장당원이 포함됐다"며 민주당이 경선에 개입했다고 주장
-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개입과 내부 총질이 있다며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
-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"국민의 재산이 특정인에게 몰빵되는 약탈"이라며 현 정권을 비판
- 정치에 잘 알지 못하지만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느껴 출마했으며, 정권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

□ 2021. 10. 5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홍준표가 제일 높은 지지율을 얻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'홍준표에게 빼앗기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'라고 하자,

- 명태균이 '여론조사 공정은 홍준표를 돕고 있다, 걱정하지 마라'라고 말하고,
- 김건희 여사가 다시 '홍준표가 1등 안 되는게 맞냐'라고 물어보자, 명태균이 '(홍준표 1등은) 어렵다, 내일 자체조사를 해 보겠다'라고 말함
- 이에 김건희 여사는 '야당 1후보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'라고 말하고, 명태균은 '그렇게 만들겠다'라고 답함

○ 캡쳐 사진



cli_60e7dc381849d9885f06cbedac2b1512730594ba.cng.jpg

cli_6489d7cfef5f7041546f3f75f7d7db3247cd6807.cng.jpg

cli_c58dfea39fe5f516d36a0607669f2f5e1c7f820e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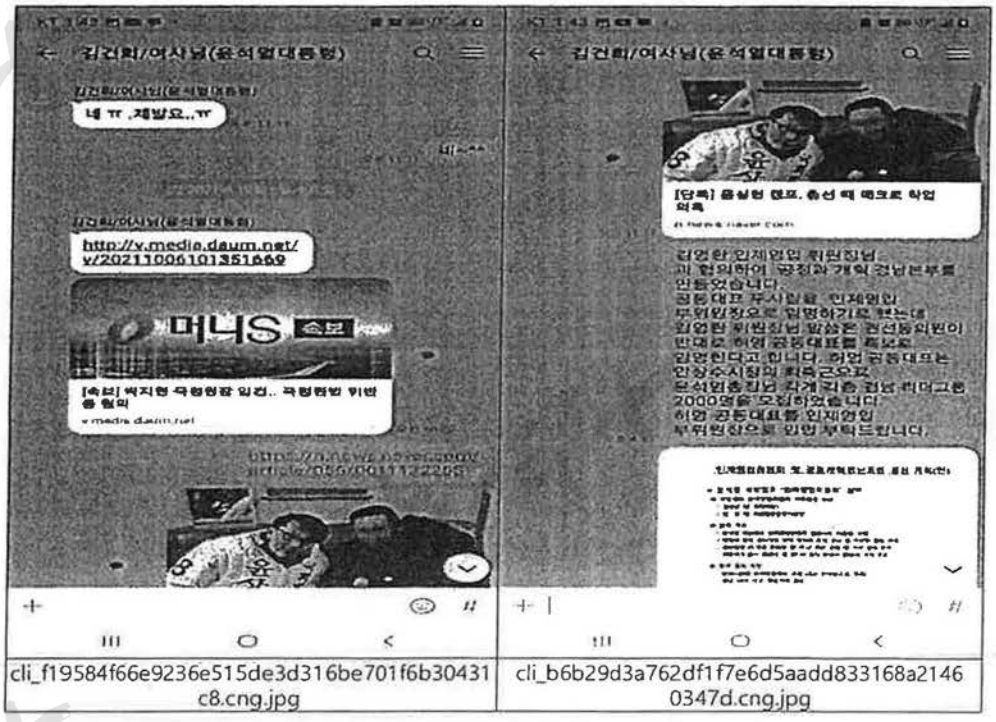
[2021. 10. 5.자 뉴시스 「[데일리안 여론조사] 與 이재명 53.2% 이낙연 28.1%‥野 홍준표 40.6% 윤석열 37.3%」 기사 요약]
-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공정㈜이 조사한 결과,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측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53.2%로 1위를 차지, 이낙연 전 대표가 28.1%로 뒤를 이음
- 국민의힘 후보 예측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40.6%, 윤석열 전 총장이 37.3%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
- 지역별로 이재명 지사는 경기·인천 및 광주·전남에서 강세를 보였고,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20대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으나 60대 이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우세

□ **2021. 10. 6.자 대화 내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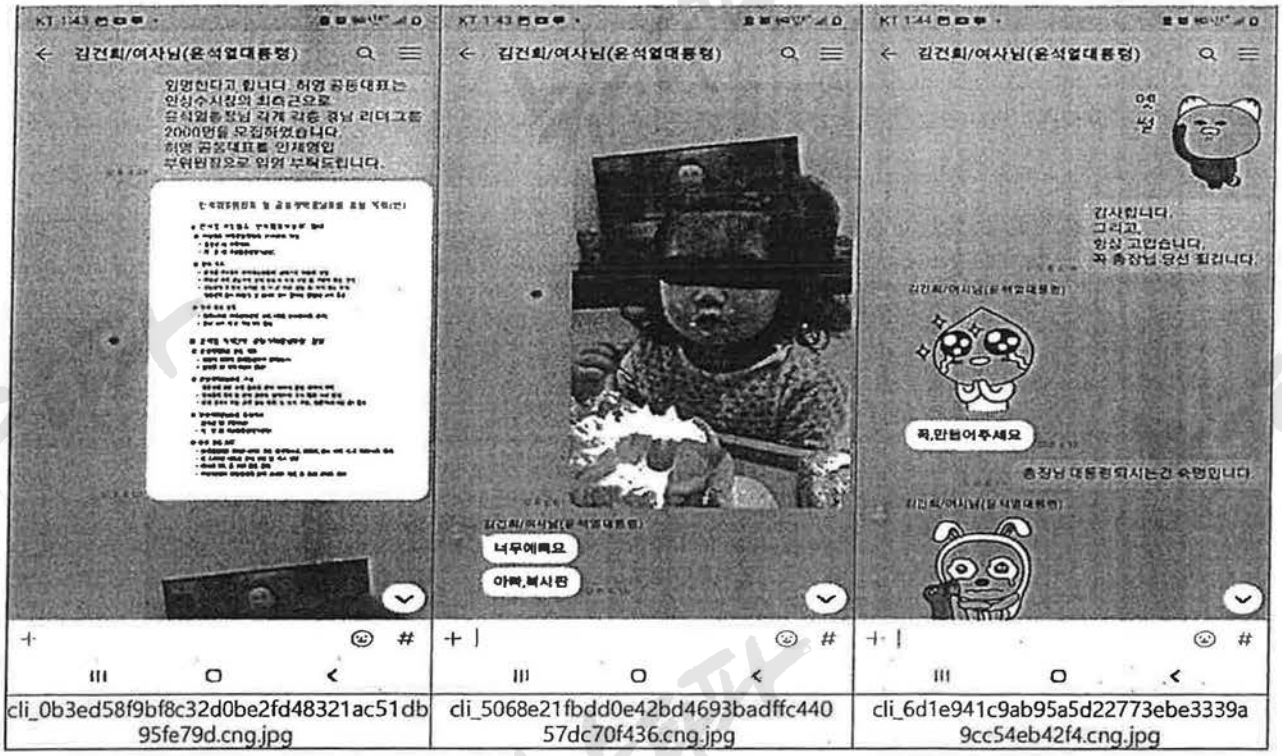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영환 인재영입위원장과 협의하여 '공정과 개혁 경남본부'를 만들었다며 관련 계획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송하고, **<u>허영 의원을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말함</u>**

- 명태균이 막내딸 명 의 사진을 전송하며 사담을 나누고, **<u>'윤석열이 대통령에 꼭 당선될 것이다'라고 말하자, 김건희 여사가 '꼭 만들어 주세요'</u>**라고 말함

○ 캡쳐 사진



cli_f19584f66e9236e515de3d316be701f6b30431c8.cng.jpg | cli_b6b29d3a762df1f7e6d5aadd833168a21460347d.cng.jpg



cli_0b3ed58f9bf8c32d0be2fd48321ac51db95fe79d.cng.jpg	cli_5068e21fbdd0e42bd4693badffc44057dc70f436.cng.jpg	cli_6d1e941c9ab95a5d22773ebe3339a9cc54eb42f4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'속보' 기사 내용은 "박지원 국정원장 입건…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"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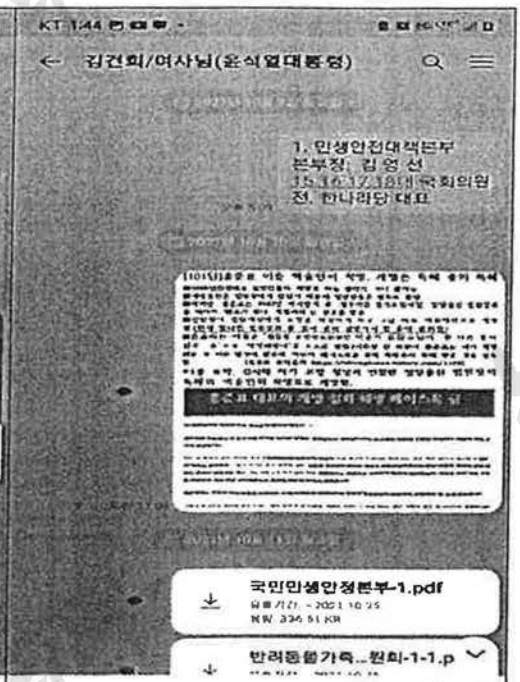
□ **2021. 10. 8. ~ 2021. 10. 12.자 대화 내용**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1위로 선정된 언론보도 및 **'민생안전대책 본부장 : 김영선'이라고 기재한 텍스트** 및 홍준표 후보 이름 개명 관련 인터넷 게시물 캡쳐본을 여사에게 전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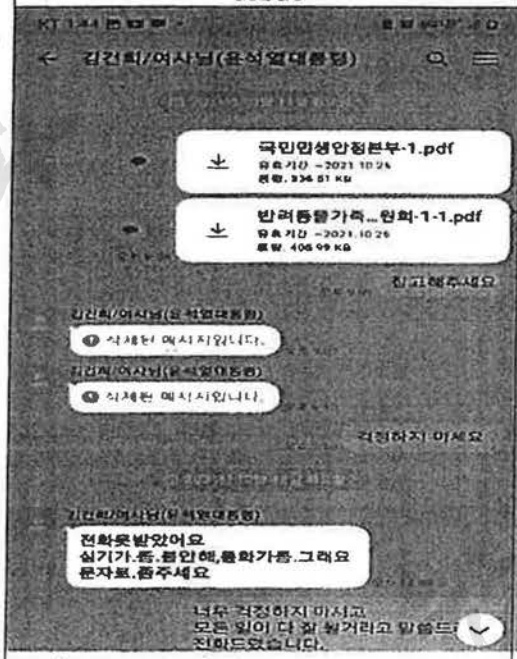
- **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'국민민생안전본부-1', '반려동물가족..원화 1-1'과 같은 PDF 파일을 전송**하고, 김건희 여사가 전송한 메시지를 삭제한 다음 "심기가 불안해 통화가 좀 그래요. 문자로 좀 주세요." 라고 말하자 명태균이 '걱정하지 마라,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하겠다' 라고 말함

○ 캡쳐 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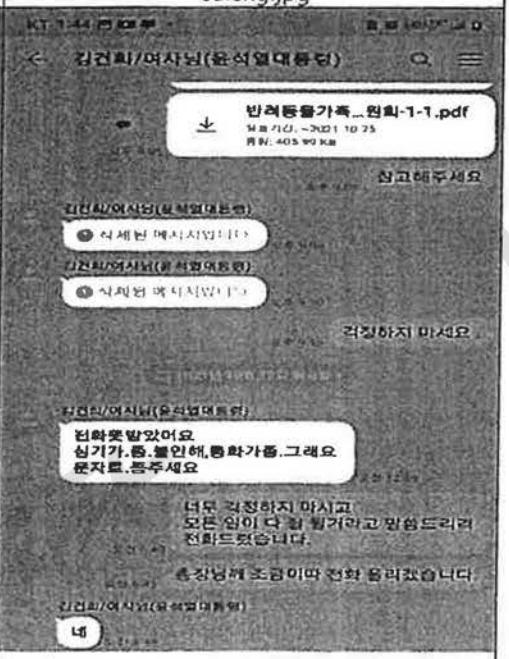
cli_ce4652954fcaabcadb0db2bd89dd19d185a a0bd8



cli_c4938cdaf994b5426f676f605f96bff39829fd 6a.cng.jpg



cli_7098cd386570c92e6c04c992e05966b28cee 3b1a.cng.jpg



cli_8cc1ee583975029e4c3d6698e7e68021af37c 882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1. 10. 9자 조선일보 「국민의힘 2차 경선... 1위 윤석열, 2위 홍준표, 3위 유승민, 4위 원희룡」 기사 요약]
-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, 홍준표, 유승민, 원희룡 후보가 2차 컷오프를 통과하며 최종 4명에 이름을 올림
- 이번 컷오프는 일반 여론조사 70%, 당원 투표 30%를 반영한 결과로, 1위 윤석열, 2위 홍준표, 3위 유승민, 4위 원희룡 순으로 파악됨
- 4강 후보들은 본경선에서 당원 투표 50%, 일반 여론조사 50%로 경쟁하며, 다음 달 5일 최종 후보가 결정될 예정

□ **2021. 10. 21. ~ 12. 4.자 대화 내용**

○ (명태균↔윤석열)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1. 10. 21.자 국민의힘 **<u>당내경선 책임당원 5,044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'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유지 부탁한다'고 하면서 전송</u>**하고, 위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논의

- 한편, 명태균은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인 12. 4.에 윤석열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한 다음, '대선후보 적합도' 여론조사 결과로 보이는 자료 전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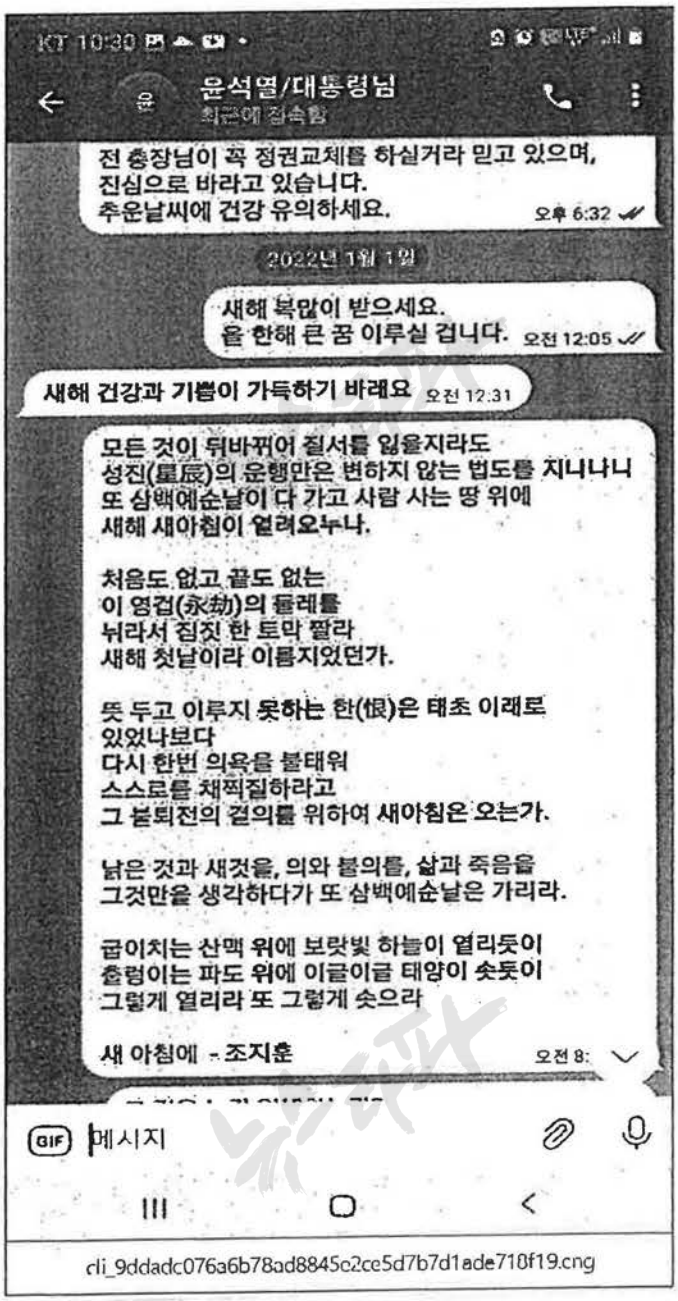
○ 캡쳐 사진

cli_9f49aca86bc5c3f73c9edaf072c0684a4c5acee7.cng
cli_04d2bad5a941d0765d917cc91807010e6c1d27a2.cng

□ 2022. 1. 1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윤석열)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신년 인사와 함께 '올 한해 큰 꿈 이루실 겁니다'라며 조지훈 시인의 시 「새 아침에」를 전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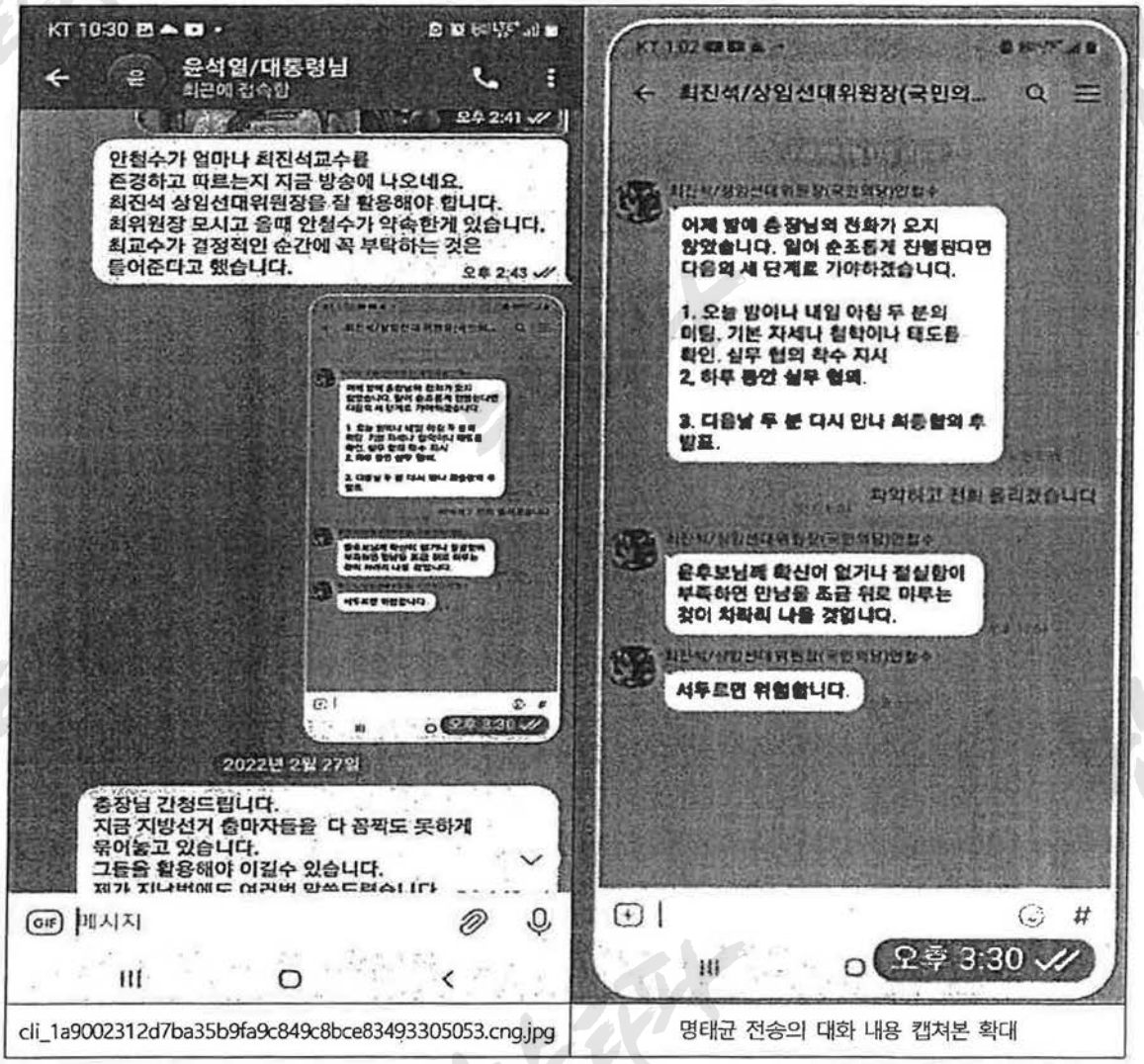
○ 캡쳐 사진



□ 2022. 2. 11. ~ 2. 26. 중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윤석열)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<u>안철수 후보와 관련하여서는 최진석(안철수 상임선대위원장)을 잘 활용</u>해야 한다고 말하면서, <u>최진석과 자신이 서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을 전송</u>

○ 캡쳐 사진



cli_1a9002312d7ba35b9fa9c849c8bce83493305053.cng.jpg 명태균 전송의 대화 내용 캡쳐본 확대

○ 참고사항

- 최진석, 이태규(국민의당 국회의원)는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협상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알려짐

□ 2022. 10. 17. ~ 10. 28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자신과 김영선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자, 명태균이 '너무 사진이 예쁘게 나왔다'고 말함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'김건희를 공격하기 위해 민주당측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'라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전송하자, 명태균이 '다 (감옥에) 집어넣어야 한다'라고 말함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각 지역 당협에 내려온 윤석열 대통령 사진의 배경이 너무 어둡다고 말함

○ 캡쳐 사진

cli_7bf2b834677abb4fc0e2841a726d14c5c3be5653.cng

cli_63cfebbeaec3e0ec43d343d8057268de693d42ca.cn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2. 10. 23.자 월간조선 「정경심 이른데 형집행정지 안 해준다고 비판하더니, 김건희 공격하기 위해 뇌 질환 교수에 휠체어 타고 국감 출석하란 민주당」 기사 요약]

- 민주당 인사들은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정경심 전 교수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한 바 있음
- 그러나 같은 민주당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관련 국정감사에 전승규 국민대 교수에게 휠체어를 타고라도 나오라 요구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됨
- 전 교수는 심각한 뇌 질환으로 인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없다고 진단서를 제출했으나, 민주당은 이 진단을 무시하고 출석을 강요했다고 주장함

[2022. 10. 28.자 중앙일보 「문 전 대통령 앞에 쌓이는 질문」 기사 요약]

-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선물로 받은 동식물을 제3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해 관리하고,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
-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두 마리의 관리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며, 양산 사저에 있는 동물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
-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여전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,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질문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음

□ 2022. 11. 4.경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윤석열)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'**(이태원 참사 관련) 민주당의 공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김영선이 선제적으로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**하였다'라고 말함

○ 캡쳐 사진

○ 참고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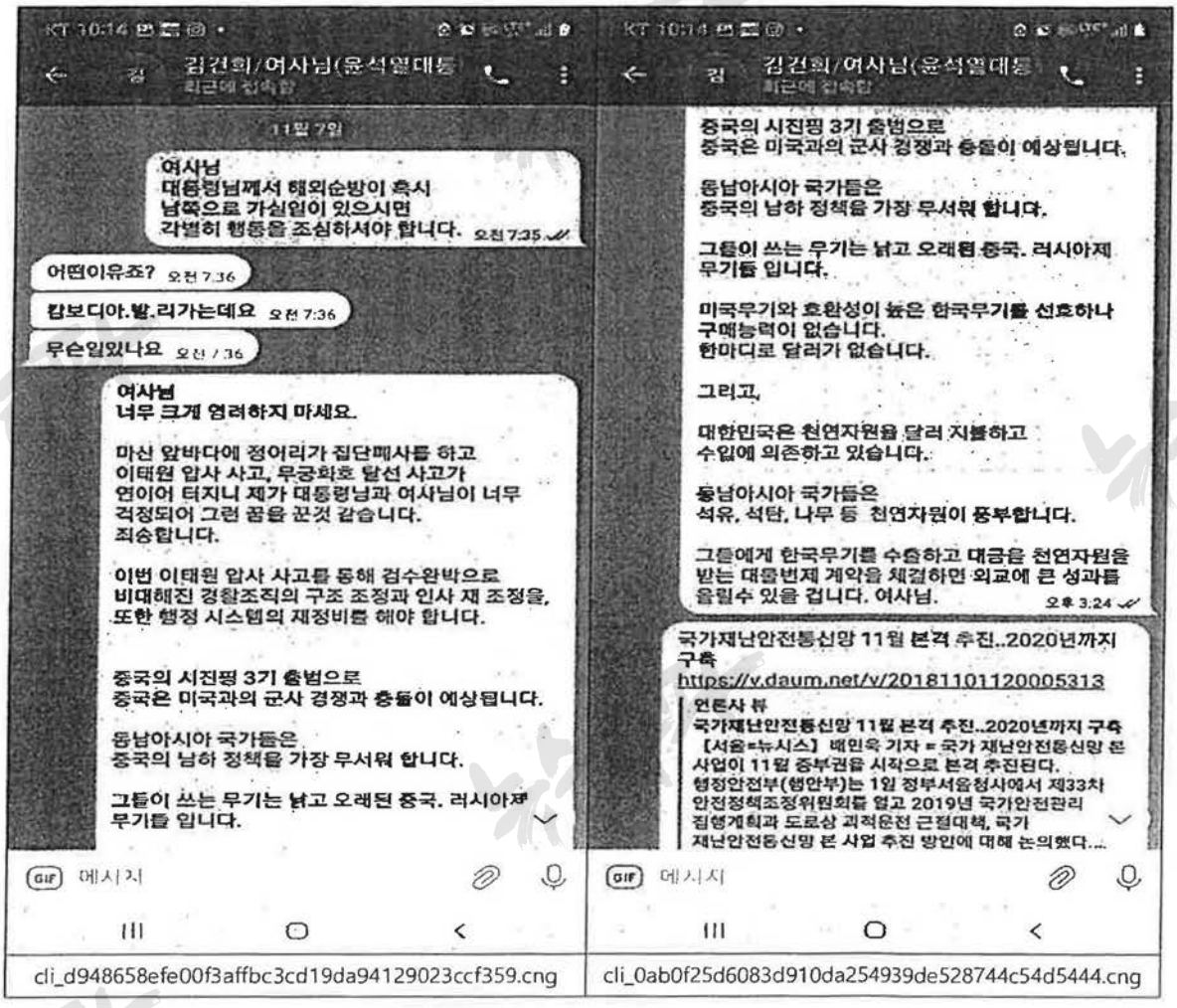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2. 11. 4.자 연합뉴스 「[이태원 참사] 김영선, 재난기본법 발의…"1㎡ 5~6명 밀집에 안전요원 배치"」 기사 요약]
-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, '이태원 압사 참사'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
- 주최자 없는 지역 행사에서도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 가능
- 김 의원은 개정안이 압사 사고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

□ **2022. 11. 7.자 대화 내용**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'혹시 해외순방을 남쪽으로 가게 되면 각별히 행동을 조심하라'라고 말하는 한편,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 방향을 조언

○ 캡쳐 사진



cli_d948658efe00f3affbc3cd19da94129023ccf359.cng

cli_0ab0f25d6083d910da254939de528744c54d5444.cn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18. 11. 1.자 뉴시스 「국가재난안전통신망 11월 본격 추진…2020년까지 구축」 기사 요약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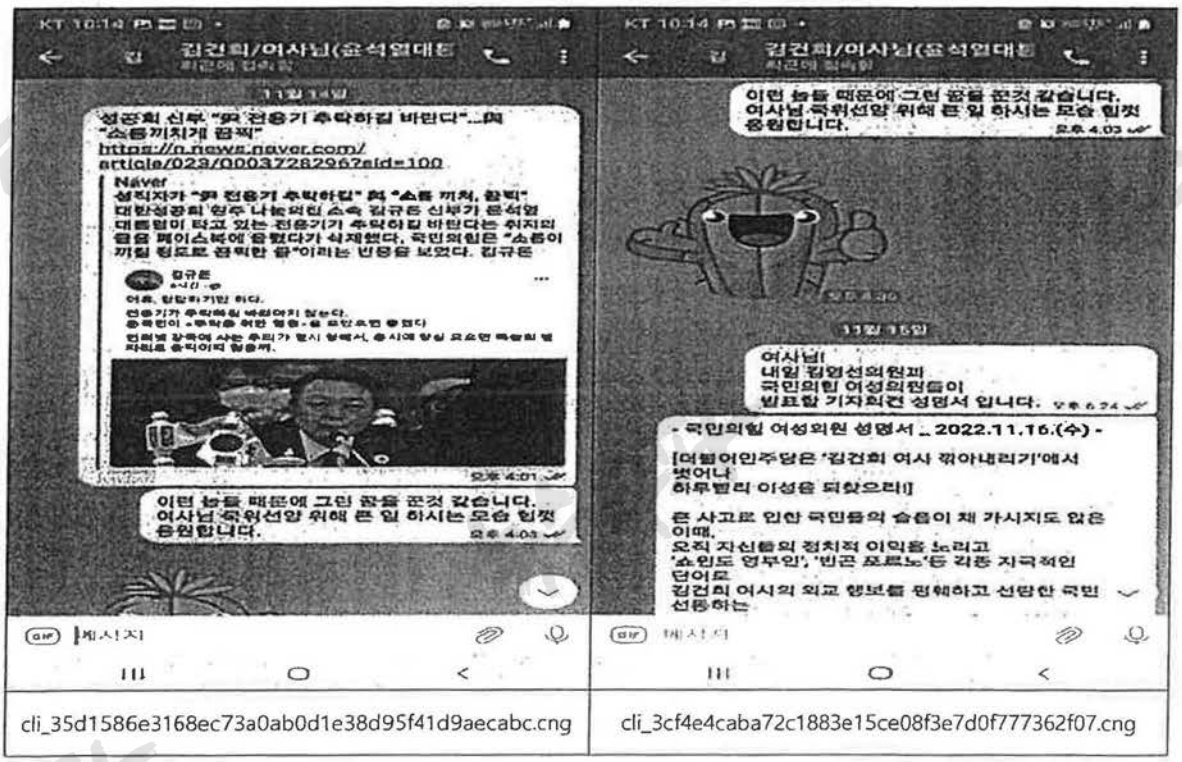
- 행정안전부는 11월 중부권부터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, 2020년까지 17개 시·도에 단계별로 구축할 계획임
-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경찰, 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PS-LTE 기술을 기반으로 함
- 도로상 과적운전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, 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, 지자체 단속 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

□ **2022. 11. 14.자 대화 내용**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**'성공회 신부가 윤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고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'라는 언론보도를 전송**하면서,

- **'이런 놈들 때문에 그런 (나쁜) 꿈을 꾼 것 같다'**, '국위선양 위해 큰 일 하는 모습을 응원한다'라고 말함

○ 캡처 사진



cli_35d1586e3168ec73a0ab0d1e38d95f41d9aecabc.cng | cli_3cf4e4caba72c1883e15ce08f3e7d0f777362f07.cn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2. 11. 14자 조선일보 「성공회 신부 "尹 전용기 추락하길 바란다"…與 "소름끼치게 끔찍"」 기사 요약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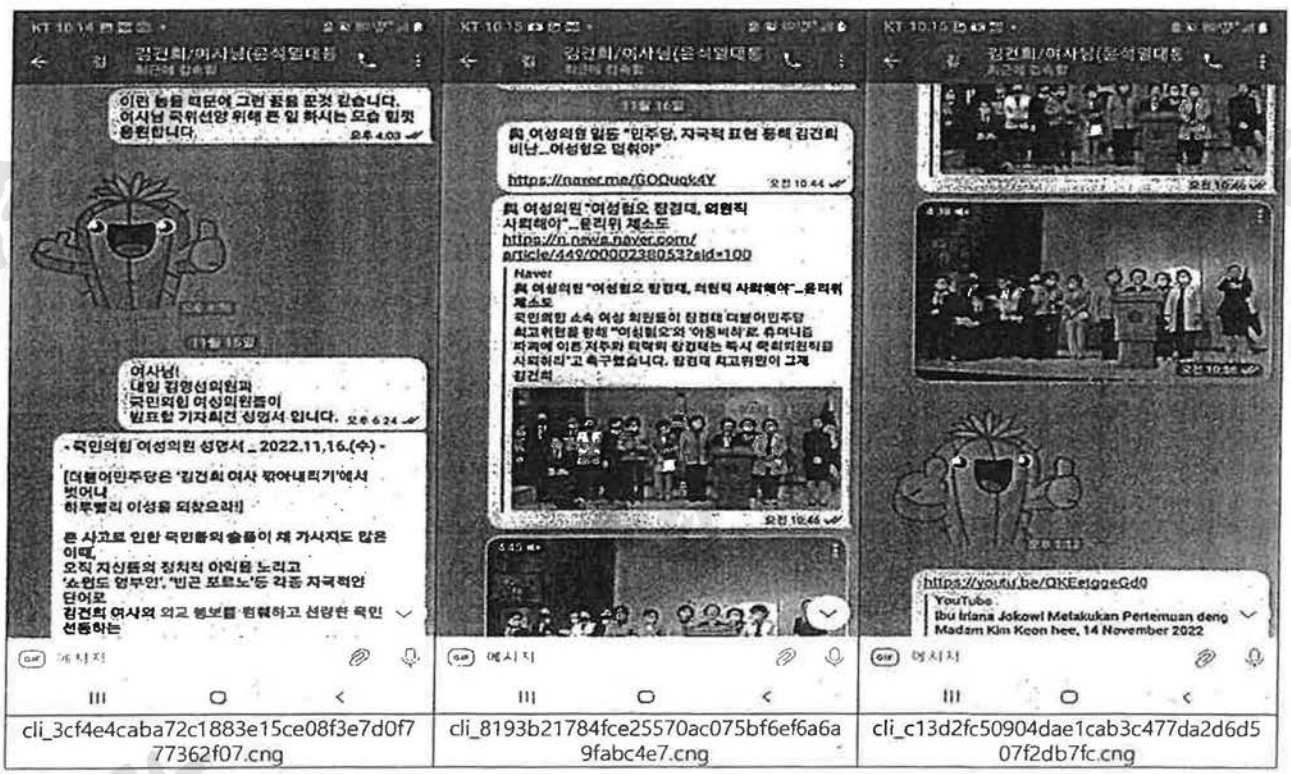
- 대한성공회 김규돈 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 추락을 바라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, 논란이 일어남
-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은 해당 발언을 "소름 끼치는 막말과 저주"라며 강력히 비판하고, 김 신부가 SNS 사용 미숙에 대해 사과했으나 발언 자체에 대한 반성은 없다고 지적
- 김 신부는 지난 2017년 '양심수 석방' 시국선언에 참여하며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을 지지한 바 있음

□ **2022. 11. 15. ~ 11. 16.자 대화 내용**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'**내일 김영선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표할 기자회견 성명서**이다'라고 하면서 성명서 문구를 전송하고,

- 실제 기자회견과 관련된 언론보도 전송

○ 캡쳐 사진



cli_3cf4e4caba72c1883e15ce08f3e7d0f777362f07.cng	cli_8193b21784fce25570ac075bf6ef6a69fabc4e7.cng	cli_c13d2fc50904dae1cab3c477da2d6d507f2db7fc.cn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2. 11. 16.자 쿠키뉴스 「與 여성의원 일동 "민주당, 자극적 표현 통해 김건희 비난·여성혐오 멈춰야"」 기사 요약]

-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외교 활동을 "쇼윈도 영부인" 및 "빈곤 포르노"와 같은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비판함
- 국민의힘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 여사의 활동을 "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"으로 언급한 발언을 문제 삼고 사죄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
- 장 최고위원은 "빈곤 포르노" 발언의 취지가 빈곤 마케팅 문제 지적임을 설명하며, 대한적십자 홈페이지를 참고하라고 대응

[2022. 11. 16.자 채널A 「與 여성의원 "여성혐오 장경태, 의원직 사퇴해야"…윤리위 제소도」 기사 요약]

-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'빈곤 포르노'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
- 김건희 여사의 외교 행보에 대한 장 최고위원의 표현이 "여성혐오와 아동 비하"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, 민주당이 입장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요구
-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'빈곤 포르노' 표현이 김 여사의 활동을 폄훼하려는 의도라며 오후 2시 국회 윤리특위에 장 최고위원을 제소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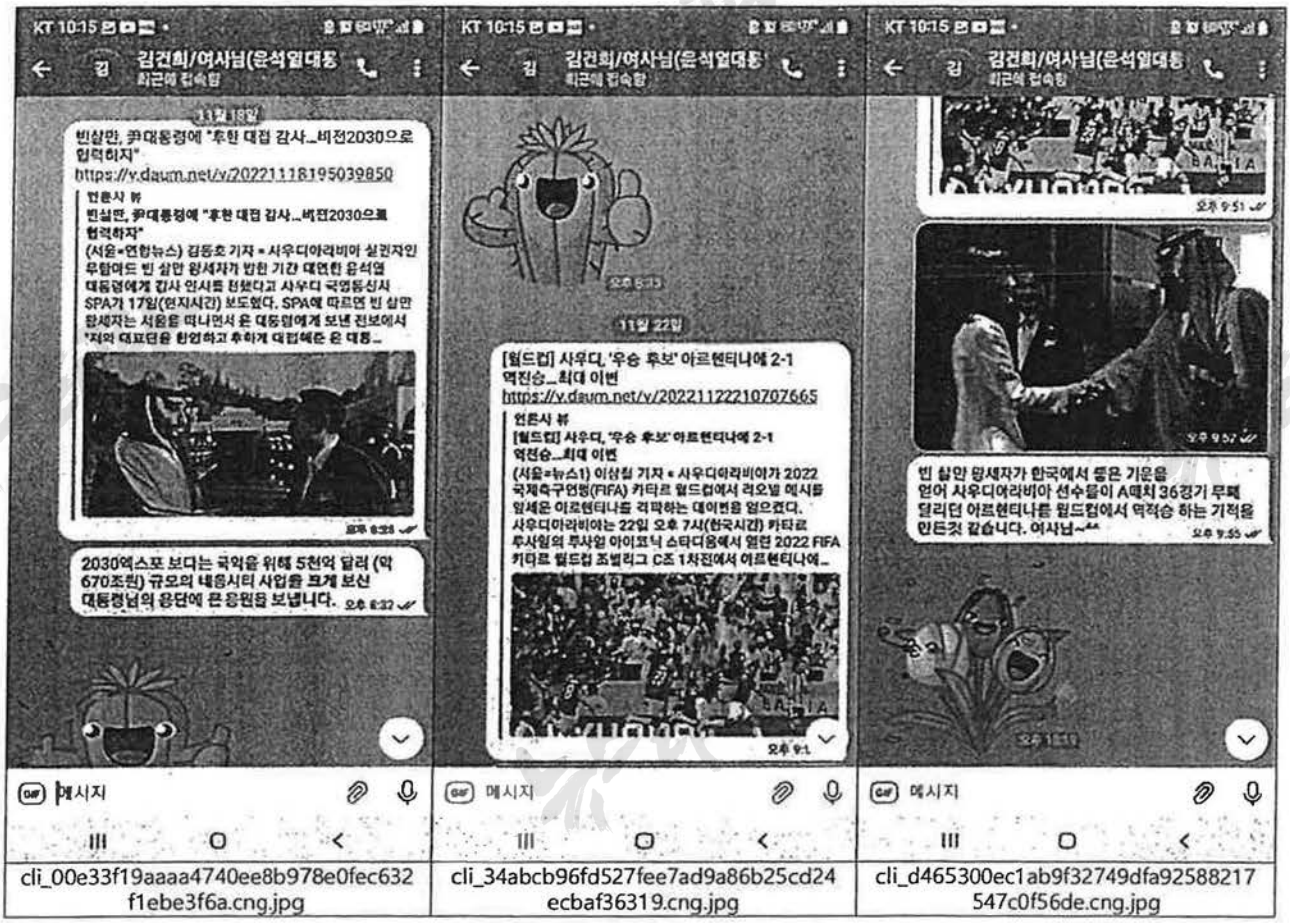
□ **2022. 11. 18. ~ 11. 22.자 대화 내용**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**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관련 신문기사를 전송**하면서, 총사업비 5천억 달러(약 670조원) 규모의 네옴시티 사업 관련 협력 논의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상찬

- 아울러 빈살만과 김건희 여사가 악수하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'빈살만이 한국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가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축구경기에서 아르헨티나에 역전승하게 되었다'라고 말함

○ 캡쳐 사진

(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)



cli_00e33f19aaaa4740ee8b978e0fec632f1ebe3f6a.cng.jpg

cli_34abcb96fd527fee7ad9a86b25cd24ecbaf36319.cng.jpg

cli_d465300ec1ab9f32749dfa92588217547c0f56de.cng.jpg

○ 참고사항

- 위 대화내용에 링크된 언론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

[2022. 11. 18.자 연합뉴스 「빈살만, 尹대통령에 "후한 대접 감사…비전2030으로 협력하자"」 기사 요약]

- 사우디아라비아가 2022 카타르 월드컵 C조 1차전에서 아르헨티나를 2-1로 역전하며 대이변을 일으킴
- 아르헨티나는 전반 10분 메시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앞섰으나, 후반에 사우디의 알셰흐리와 알도사리가 연속 득점
-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무패 행진이 36경기에서 멈추며, 남은 조별경기 부담이 커졌음

[2022. 11. 24.자 뉴스1 「[월드컵] 사우디, '우승 후보' 아르헨티나에 2-1 역전승…최대 이변」 기사 요약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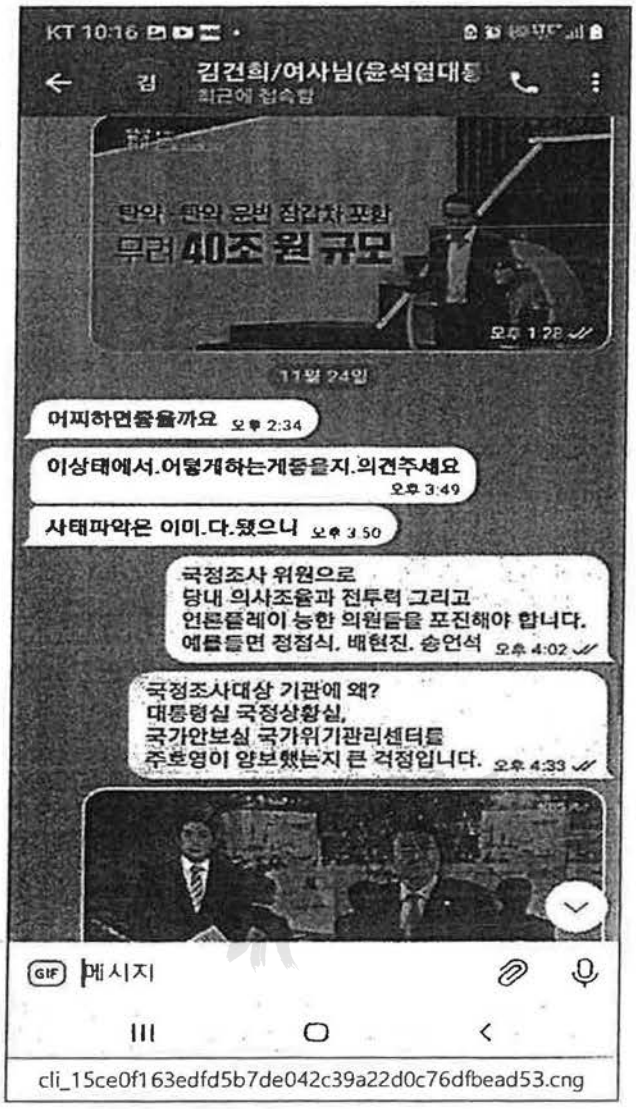
-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남편 조성화 씨, 외도 및 이혼 요구로 협의이혼 절차 중이라며 공개 입장 발표
- 조 씨는 황 의원과 상대 남성 정정복 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, 국민의힘 측에 비위 관련 조치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비판
- 당 대표 이준석의 책임 방임을 비난하며, 공당의 책임감 부족을 언급하며 언론의 도움 요청

□ 2022. 11. 24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**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자문**을 구하자,

- 명태균이 '**국정조사 위원**으로 당내 의사조율과 전투력 그리고 언론플레이에 능한 **정점식, 배현진, 송언석과 같은 사람을 배치**해야 한다', '주호영이 왜 **국정조사 대상기관에 대통령실, 국정상황실, 국가안보실, 국가위기관리센터를 포함시켰는지 걱정**이다'라고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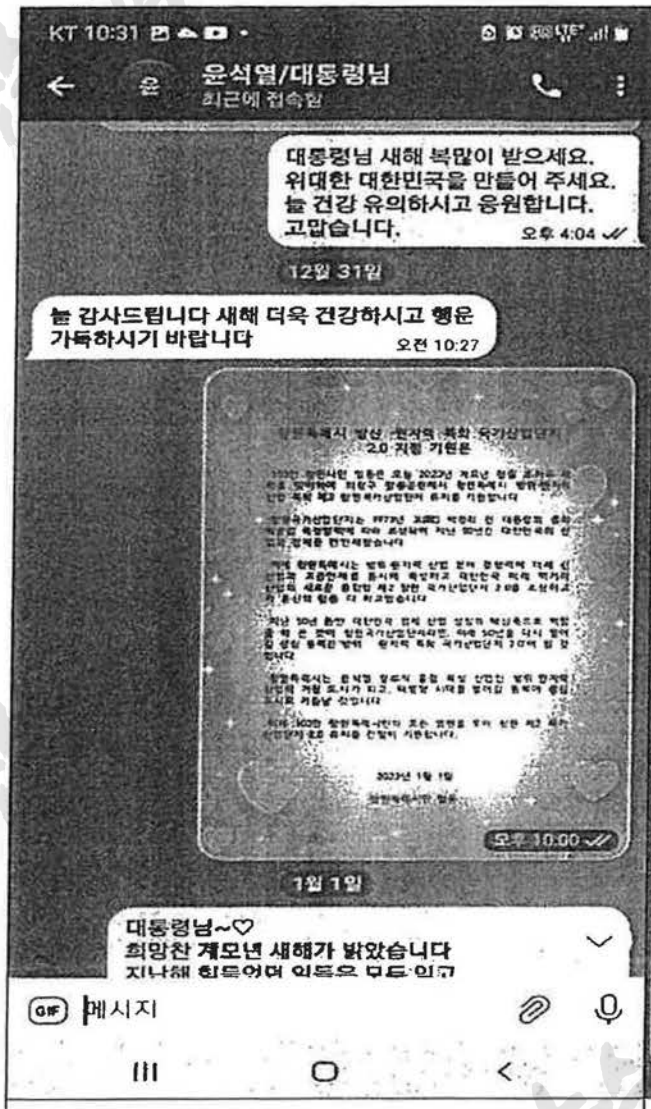
○ 캡쳐 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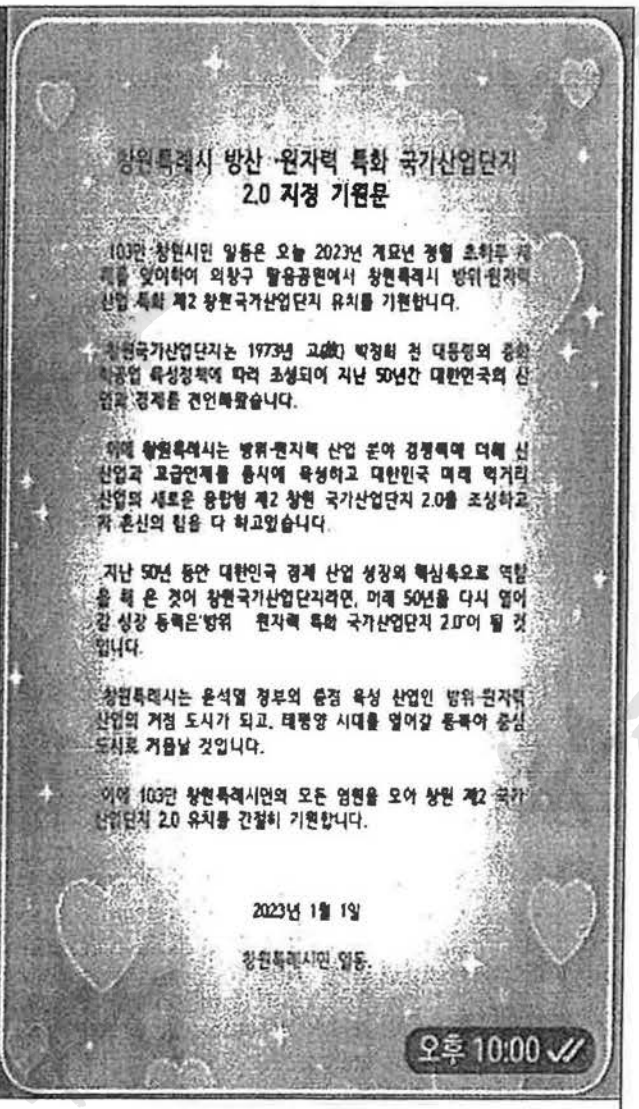
□ 2022. 12. 31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윤석일)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과 신년인사를 주고받으며, 창원특례시민 일동 명의의 **창원시 국가산단 2.0 지정 기원문 이미지 파일을 전송**

○ 캡쳐 사진



cli_17afb55d0486cd93f0e97a9b2651ca3c37eb19f3.cng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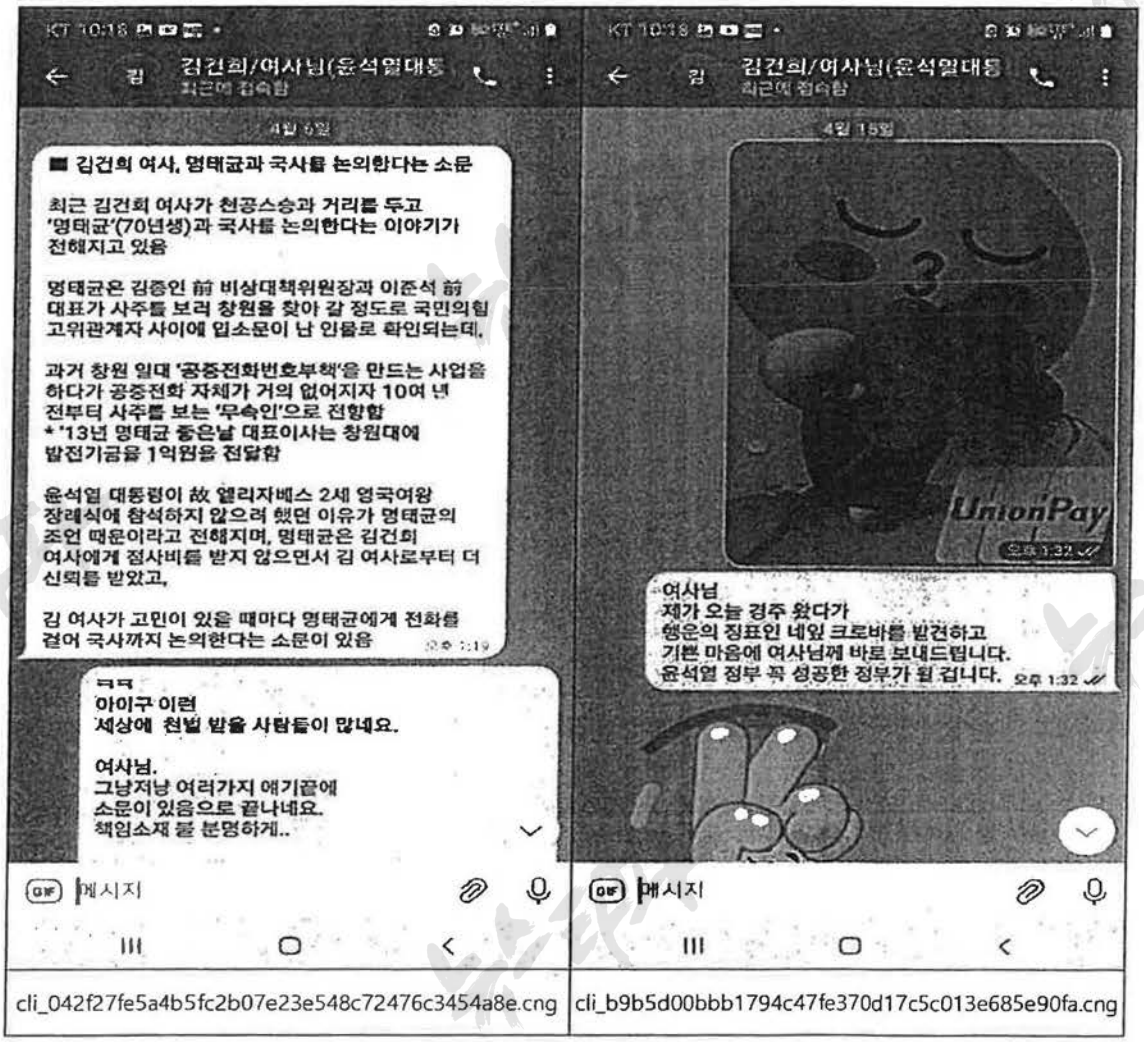
지정 기원문 확대

□ (연도 추정) 2023. 4. 6. ~ 4. 15.자 대화 내용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'<u>김건희 여사,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</u>' 텍스트를 전송하고 명태균이 '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다'라고 답변

- 명태균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네잎클로버 사진 전송

○ 캡쳐 사진



cli_042f27fe5a4b5fc2b07e23e548c72476c3454a8e.cng

cli_b9b5d00bbb1794c47fe370d17c5c013e685e90fa.cng

□ **(일자 불명) 대화 내용**

○ (명태균↔김건희)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<u>본인의 막내딸 명 의 사진</u>을 전송

○ 캡쳐 사진

2024. 11. 4.

위 보고자

검찰주사보 전